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이상아·최상미·오성은·고은새·양가람·김수완



**【연구책임자】**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오성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

고은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연구원

양가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

김수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원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문헌고찰 .....	5
<b>II. 조사방법</b> .....	<b>25</b>
1. 조사과정 및 표본추출 .....	27
2. 조사영역 및 변수설정 .....	30
<b>III. 참여자 특성</b> .....	<b>41</b>
1. 일반적 특성 .....	43
2. 경제적 특성 .....	44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	63
4. 주거 특성 .....	72
5. 가족 및 사회적관계 특성 .....	77
6. 사회서비스 이용 .....	93
<b>IV. 자활사업 참여 실태</b> .....	<b>103</b>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	105
2. 자활 참여자 경제적 자활 .....	115
3. 자활참여자 정서적 자활 .....	122
4. 자활사업 만족도 .....	127
5. 향후 근로 관련 욕구 .....	137

---

<b>V.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b> .....	<b>143</b>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관련 주요결과 .....	145
2. 자활사업 참여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	147
3. 정성적 자활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	149
4. 경제적 자활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	152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53
 <b>참고문헌</b> .....	 <b>157</b>

## CONTENTS

## 표목차

〈표 I-1〉 2012년-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연구내용	4
〈표 I-2〉 자활사업 성과지표 선행연구 정리	7
〈표 I-3〉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별 분포	13
〈표 I-4〉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 분포	13
〈표 I-5〉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14
〈표 I-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	14
〈표 I-7〉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수준별 분포	15
〈표 I-8〉 2012~2018년에 걸쳐 시행된 1~7차년도 자활패널 조사표 구성	16
〈표 I-9〉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18
〈표 I-10〉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표 구성	19
〈표 I-11〉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20
〈표 I-1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 조사표 구성	21
〈표 I-13〉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 영역과 본 연구의 조사 영역 구성	22
〈표 II-1〉 조사 설계	27
〈표 II-2〉 자활사업 참여자 표본설계 예시	29
〈표 II-3〉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표본 설계표	29
〈표 II-4〉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응답표본 분포	30
〈표 II-5〉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31
〈표 II-6〉 일반적 및 수급 특성 조사문항	32
〈표 II-7〉 자활사업 참여 특성 조사 문항	33
〈표 II-8〉 경제적 상황 조사 영역 및 문항	34
〈표 II-9〉 주거 특성 조사 문항	35
〈표 II-10〉 건강 영역 조사 세부 영역 및 문항	36
〈표 II-11〉 일관련 경험 및 욕구 조사 영역 및 문항	37

〈표 II-12〉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조사 문항	38
〈표 II-13〉 사회적 특성 조사 문항	38
〈표 II-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특성 조사 문항	39
〈표 II-15〉 주거 특성 조사 문항	39
〈표 III-1〉 참여자 일반적 특성	43
〈표 III-2〉 개인소득 평균(특성별)	46
〈표 III-3〉 구간별 총 금융자산(특성별)	47
〈표 III-4〉 구간별 월평균 저축액(특성별)	49
〈표 III-5〉 총 개인부채(특성별)	51
〈표 III-6〉 부채 부담 정도	53
〈표 III-7〉 월평균 가구 생활비(특성별)	54
〈표 III-8〉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특성별)	56
〈표 III-9〉 과거 일 경험 및 일 중단시점(특성별)	58
〈표 III-10〉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특성별)	60
〈표 III-11〉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61
〈표 III-12〉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종합)	64
〈표 III-13〉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특성별)	64
〈표 III-14〉 주관적 건강상태(특성별)	66
〈표 III-15〉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특성별)	68
〈표 III-16〉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특성별)	69
〈표 III-17〉 삶의 만족도(특성별)	71
〈표 III-18〉 주택점유형태(특성별)	73
〈표 III-19〉 주거환경(특성별)	76
〈표 III-20〉 동거인 여부(특성별)	78

〈표 III-21〉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특성별) .....	79
〈표 III-22〉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특성별) .....	81
〈표 III-23〉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특성별) .....	82
〈표 III-24〉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특성별) .....	84
〈표 III-25〉 가족 부양 부담 정도 .....	86
〈표 III-26〉 가족지지(특성별) .....	88
〈표 III-27〉 사회적 자본(특성별) .....	91
〈표 III-28〉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종합) .....	93
〈표 III-29〉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특성별) .....	93
〈표 III-30〉 지난 1년간 의료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특성별) ...	95
〈표 III-31〉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특성별) .....	97
〈표 III-32〉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특성별) .....	99
〈표 III-33〉 사회서비스 이용현황(특성별) .....	101
〈표 IV-1〉 자활사업 참여 이유(1순위+2순위)(특성별) .....	106
〈표 IV-2〉 사업단 이용경험 및 횟수(특성별) .....	107
〈표 IV-3〉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특성별) .....	109
〈표 IV-4〉 구직경험 유무(특성별) .....	111
〈표 IV-5〉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특성별) .....	113
〈표 IV-6〉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특성별) .....	114
〈표 IV-7〉 자활사업 참여 여부(특성별) .....	116
〈표 IV-8〉 자격증 개수(특성별) .....	118
〈표 IV-9〉 자격증 도움 정도 .....	120
〈표 IV-10〉 주관적 경제적 자활 현황(특성별) .....	121
〈표 IV-11〉 자활의지(특성별) .....	123

〈표 IV-12〉 고용장벽 인지(특성별) .....	125
〈표 IV-13〉 자활행동(특성별) .....	126
〈표 IV-14〉 사업단 만족도(특성별) .....	128
〈표 IV-15〉 자활사업 만족도(특성별) .....	130
〈표 IV-16〉 자활서비스 만족도(특성별) .....	132
〈표 IV-17〉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	134
〈표 IV-18〉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	136
〈표 IV-19〉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특성별) .....	138
〈표 IV-20〉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	140
〈표 IV-21〉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	142

## CONTENTS

## 그림목차

[그림 II-1] 설문조사 방식 .....	28
[그림 III-1] 개인소득 평균(종합) .....	45
[그림 III-2] 구간별 총 금융자산(종합) .....	47
[그림 III-3] 구간별 월평균 저축액(종합) .....	49
[그림 III-4] 총 개인부채(종합) .....	50
[그림 III-5] 부채에 부담감 정도(성별) .....	52
[그림 III-6] 부채에 부담감 정도(연령) .....	52
[그림 III-7] 부채에 부담감 정도(학력) .....	52
[그림 III-8] 부채에 부담감 정도(참여기간) .....	52
[그림 III-9] 부채에 부담감 정도(자활역량점수) .....	52
[그림 III-10] 부채에 부담감 정도(수급유형) .....	52
[그림 III-11] 월평균 가구 생활비(종합) .....	54
[그림 III-12]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종합) .....	56
[그림 III-13] 과거 일 경험유무 및 중단 시점(종합) .....	58
[그림 III-14]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종합) .....	59
[그림 III-15]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	61
[그림 III-16] 주관적 건강상태(종합) .....	66
[그림 III-17]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종합) .....	67
[그림 III-18]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종합) .....	69
[그림 III-19] 삶의 만족도(종합) .....	71
[그림 III-20] 주택점유형태(종합) .....	72
[그림 III-21]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종합) .....	74
[그림 III-22]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특성별) .....	74
[그림 III-23] 주거환경(종합) .....	76

[그림 III-24] 동거인 여부(종합) .....	77
[그림 III-25]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종합) .....	79
[그림 III-26]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종합) .....	80
[그림 III-27]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종합) .....	82
[그림 III-28]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종합) .....	84
[그림 III-29] 가족 부양 부담 정도(성별) .....	85
[그림 III-30] 가족 부양 부담 정도(연령대) .....	85
[그림 III-31] 가족 부양 부담 정도(학력) .....	86
[그림 III-32] 가족 부양 부담 정도(참여기간) .....	86
[그림 III-33] 가족 부양 부담 정도(자활역량점수) .....	86
[그림 III-34] 가족 부양 부담 정도(수급유형) .....	86
[그림 III-35] 가족지지(종합) .....	88
[그림 III-36] 사회적 자본(종합) .....	90
[그림 III-37] 의료 이용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종합) .....	95
[그림 III-38]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종합) .....	97
[그림 III-39]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종합) .....	98
[그림 III-40] 사회서비스 이용현황(종합) .....	100
[그림 IV-1] 자활사업 참여이유(1순위+2위)(종합) .....	105
[그림 IV-2] 사업단 이동 경험 및 이동횟수(종합) .....	107
[그림 IV-3]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종합) .....	109
[그림 IV-4] 구직경험 유무(종합) .....	110
[그림 IV-5]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종합) .....	112
[그림 IV-6]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종합) .....	114
[그림 IV-7] 자활사업 참여 여부(종합) .....	116

[그림 IV-8] 자격증 개수(종합) .....	117
[그림 IV-9] 자격증 도움 정도(성별) .....	119
[그림 IV-10] 자격증 도움 정도(연령) .....	119
[그림 IV-11] 자격증 도움 정도(학력) .....	119
[그림 IV-12] 자격증 도움 정도(참여기간) .....	119
[그림 IV-13] 자격증 도움 정도(자활역량점수) .....	119
[그림 IV-14] 자격증 도움 정도(수급유형) .....	119
[그림 IV-15] 주관적 경제적 자활(종합) .....	121
[그림 IV-16] 자활의지(종합) .....	123
[그림 IV-17] 고용장벽 인지(종합) .....	124
[그림 IV-18] 자활행동(종합) .....	126
[그림 IV-19] 사업단 만족도(종합) .....	128
[그림 IV-20] 자활사업 만족도(종합) .....	130
[그림 IV-21] 자활서비스 만족도(종합) .....	132
[그림 IV-22]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종합) .....	133
[그림 IV-23]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종합) .....	135
[그림 IV-24]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종합) .....	137
[그림 IV-25]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	140
[그림 IV-26]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	141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고찰



# I

## 서론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가구 특성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증거기반의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은 “사람 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탈수급 일변도였던 기존 자활목표에서 벗어나 개인별 강점·자활 역량에 맞추어 자활사업을 재구조화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참여대상 다변화, 대상별 맞춤형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하여 현장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 상태 혹은 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변화 등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행복e음이나 자활정보시스템의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근로 빈곤층에 대한 최초의 조사로서 2002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sup>1)</sup>를 시작으로,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패널조사가 2003년, 2004년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본 조사와 유사한 조사 대상 특성을 가진 자활후견기관(현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 실태조사<sup>2)</sup>는 2004년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저소득층 자

1) 177개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한 뒤, 총 조사대상 가구 10,022가구 중 9,244가구(92.2%), 21,718명에 대한 1차 판별조사 실시하였고, 새롭게 산출된 2022년 중위소득 60% 기준을 적용하여, 2차 심층조사 대상으로 1,125가구, 1,763명 추가 조사 실시하였고 총 응답 가구원 수는 27,718명이 조사되었음.

2) 100개 후견기관의 참여자 1,500명 대상 조사되었음.

활사업 조사의 부가 조사로서 수행되었다. 이후 지역 단위에서 간헐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sup>3)</sup>가 실시되었고, 중앙자활센터에서도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이 진행되었다. 자활패널의 경우, 패널 연구로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참여자 유지의 한계로 실제로는 코호트 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1차 자활패널 조사에서는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8년에 수행된 7차 패널 연구까지 패널 연구마다 일부는 이전 조사 참여자, 다른 일부는 신규 참여자로 구성하여 매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2018년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는 중단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7차년도에 걸쳐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외부용역 의존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한계였다.

〈표 I-1〉 2012년-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연구내용

년도	연구명	표본 수	조사 대상
2012년	자활사업 분야 (불완전 취업자 패널구축 연구)	1,500명 (단년도)	시장형 자활사업단 556명 인큐베이팅 자활사업단 452명 사회서비스 자활사업단 519명
2013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 연구 (2차년도)	1,470명 (단년도)	지역별, 센터별 참여자수 표본추출
2014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 연구 (3차년도)	1,200명 (단년도)	
2015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 연구 (4차년도)	1,468명 (14년도 연계)	2014년도 기존패널(669명) 신규패널(799명)
2016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화 추진 연구 (5차년도)	1,463명	2014년 기존패널(669명)+2014년도 신규패널(799명) 중 699명 추출 2015년도 새로운 신규패널(799명)
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화 연구 (7차년도 패널조사연구)	1,500명 (15년-18년 연계)	기존패널(15년-18년, 1,020명)+ 신규패널(480명)

3)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4월-5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규모유형 별로 기본형-표준형-확대형으로 구분하고, 이 중 50개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자활근로사업단 1,301명과 자활기업 128명이 조사되었음.

이에 본 실태조사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참여자의 사업참여실태, 참여 만족도 및 요구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자활사업 관련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활사업의 현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정책효과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2022년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실태를 주기적,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가진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더불어, 전국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현황,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문헌고찰

### 1) 국내 자활 및 빈곤 조사 고찰

#### (1) 기존 자활 연구 동향

자활사업에 대한 기존의 국내연구는 크게 자활사업의 성과측정지표, 즉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연구와 자활사업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자활사업 인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사업의 성과측정지표 관련 초기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취업률과 탈수급률이였다(고경환 외, 2009; 이채정, 2012). 2000년대 초반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대상자의 근로 의욕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며,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자활대상자의 취업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었다(고용노동부, 2004). 따라서 자활사업

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 특히 자활사업 종료자의 취·창업 여부로 평가되었다. 특히, 복지부의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기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에 대한 과도한 안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노동부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대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이석원·정희정, 2007). 임동진(2001)의 연구는 당시 이러한 노동부의 목적에 맞게 자활사업의 성과를 취·창업 여부로 판단하였다. 또한, 김교성과 강철희(2003)의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이라는 자활사업 목표를 위해 취업 및 창업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이러한 취·창업의 성공적 진입이 자활사업의 평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석원, 정희정(2007)은 취업 여부와 더불어 자격증 취득 여부를 통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현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안서연(2008)은 자활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자활직업훈련 참여자와의 소득을 비교하였다. 백학영·김경휘(2013)의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자활사례 관리 종결자 중 취·창업으로 인한 종결자 비율과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종결자의 비율로 조작적 정의한 자활성공률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지표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자활사업의 성과가 낮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성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활사업의 성과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자활 성과의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이형하·조은탁, 2004; 박재민 외, 2014). 김인숙(2008)은 기존의 자활은 '획일화된 자활' 패러다임에 따르며 이러한 획일화는 '결과'로서의 자활에 주목하게 되고 자활 형태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이형하·조원탁(2004)은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효과성은 다차원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자활에 더불어 사회적·정서적 자활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고경환 외(2009)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제적 성과지표로는 자활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자활사업의 구체적 목표 달성 여부 측정을 위하여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의 지표를 개발하고 추가로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여 자활사업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자활성과를 단순히 취·창업 여부와 같은 경제적 자립으로만 바라본 것과 달리 자활사업 평가지표를 더 세분화하였다. 또한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성과 외에도 참여자의 자활사업 만족도, 자립의지 및 전

망 등 정서적 성과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박정호(2010)는 자활성과를 정서적 자활성과와 경제적 자활성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를 사용하여 ‘①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이 된다’, ‘②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⑤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세 가지 항목을 경제적 자활성과로, ‘③ 사업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④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두 가지 항목을 정서적 자활성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엄태영(2014)은 정서적 자활을 경제적 자활의 과정으로 보고 자활사업 현장 전문가와의 델파이 연구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정서적 자활척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최상미(2017) 또한 기존의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경제적 접근 더불어 정서적 측면의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타당도 검증을 통해 미국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정서적 자활 성과지표인 고용희망척도(The Employment Hope Scale: EHS)의 타당성을 국내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김경휘 외(2022)는 최근 자활사업 내용의 변화와 자활사업 이용자 특성의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변화 측면에서 성과평가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성과는 결과적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경제적 성과에 더불어 과정적 성과로 정서적 성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I -2〉 자활사업 성과지표 선행연구 정리

구분	연구자	지표
경제적 측면	임동진(2001)	취업률
	강병구(2002)	취업률 고용안정성 근로소득
	김교성, 강철희(2003)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 기간
	오영훈(2005)	자격증취득가능성 취업가능성 소득
	이석원, 정희정(2007)	자활 달성 정도 직업능력의 향상 정도
	안서연(2008)	소득
	백학영, 김경휘(2013)	자활성공률

구분	연구자	지표	
다차원적 측면	이형하, 조원탁(2004)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고경환 외(2009)	적절성	목표 적절성 대상 적절성
		효과성	근로유인효과 소득보장효과
		효율성	비용효율성
	지속가능성	정부의 의지 현장의 의지 참여자의 의지	
다차원적 측면	박정호(2010)	경제적 자활성	구직 도움 직업능력개발 도움 생계 도움
		정서적 자활성	심리적 안정 도움 자존심 향상 도움
	박재민 외(2014)	경제적 측면	경제적 자활성과군
		정서적 측면	정서적 자활성과군
		사회적 측면	사회적 자활성과군
	엄태영(2014)	정서적 자활	긍정적 삶의 태도 대인관계 통제력 일에 대한 생각 자아상(자신감) 자립의지
	최상미(2017)	정서적 자활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 부여 기술과 자원의 사용 목적지향성
김경휘 외(2022)	과정적 성과지표 (정서적 성과)	자활의지 근로장벽 자활행동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자활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 사업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활성과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 자활성과와 정서적 자활성과 등으로 구분된다.

이석원·정희정(2007)은 자활사업 유형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취업과 자격증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활사업의 6가지 유형 중 자활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창업지원 유형 참여자들의 취업 가능성은 실업급여 유형 참여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가족 구성원 수, 학력, 지역,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이전 직장경력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가족구성원, 이전 직장경력, 지역, 성별, 학력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자활사업 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호(2010)는 자활성과를 경제적 자활성과와 정서적 자활성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자활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정서적 자활성과 중 심리적 안정 도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과 자활사업 유형, 거주지역이 심리적 안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자활성과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도움에는 학력, 빈곤여부, 자활유형이, 직업능력개발도움에는 연령과 빈곤여부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과 자활사업 유형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여 성별에 따라 자활사업이 자활성과 중 하나인 직업능력 개발의 도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박재민 외(2014)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중에서도 정신건강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우울, 불안, 신체화 정도를 반영한 정신건강 증상이 심각할수록 정서적, 사회적 자활성과가 낮아지며, 참여자의 알코올 문제는 경제적 자활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민숙 외(2012)의 연구는 정서적 자활 중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조직요인과 사회심리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유무나 수급 여부와 같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보다도 자활참여자의 성취동기나 자아효능감 등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참여하는 자활사업에서 동료 및 담당 실무자와의 대인관계, 업무 적절성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엄태영·임진섭(2014)의 연구는 타 연구들이 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자활사업단의 업무 환경적 요인이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정서적 자활 개념과 함께 횡단자료의 제한점으로 인해 측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자활성과 대신 일

에 대한 태도를 자활성과의 하위개념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업무환경은 정서적 자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조직헌신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승구·이용갑(2018)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단기 참여자와 장기 참여자로 나누어 자활사업의 성과인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전체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는 성별,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 수급 여부, 센터 직원과의 친밀도, 일에 대한 태도,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취·창업 의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3년 이상 장기 참여자의 경우에는 장애 여부,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 여부가, 단기 참여자의 경우에는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 여부, 가족친밀도, 지역자활센터 직원과의 친밀도가 취·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김영춘(2021)의 연구에서는 자활의지를 자활사업 성과로 보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는 자활 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에 참여 인식과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가 부분매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자활사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특성과 자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등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자활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확인했듯이 주로 자활은 경제적 측면의 자립으로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기에 자활사업의 목적과 그 성과도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 편향된 자활의 개념으로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광역의 개념으로써의 자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자활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김자옥·유태균(2018)의 연구는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 4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 경험에 대해 인식을 확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경험을 강제된 근로활동으로 여기며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활사업에 참여자는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근로 과정에

서 소외를 경험한다고 드러냈다. 그러나 또한 자활경험을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참여자에게 자활사업은 자활의 결과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이를 자활을 위한 과정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13명을 대상으로 자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자활을 근로능력이 미약한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수동적 일자리이며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일자리가 강요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정서적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며 직업적 역량 강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책적 입장에서는 자활을 경제적 측면의 결과로 바라보았으나 실제 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활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측면까지 포괄하여 자활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승범·신원식(2020)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2년 미만의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 자활 추구형’, ‘소극적 자활 추구형’, ‘참여 안주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신규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활사업의 경제적 자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변화, 직업역량의 향상을 경험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신규 참여자들은 기존 사업 참여자에 비해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자활을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정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실무자의 시각에서의 자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상미·홍송이(2018)의 연구는 자활사업 실무자 35명을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을 통해 이들이 자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장 실무자들은 자활은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단순히 결과로서의 경제적 자립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자립의 과정으로써 근로 희망을 고양시키고, 근로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나가는 정서적 자활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자활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 자활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결과로서의 경제적 자활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활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지성 외(2020)의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현장 실무자 14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생각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과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무자들은 취·창업 여부, 탈수급과 같은 경제적 성과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과만으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대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상별 개별화된 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시안적인 성과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2) 자활대상자의 변화 관련 고찰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자활사업은 시행 이후 20여 년간 사업의 내용, 대상, 참여자의 특성 등이 변화해 왔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맞춤형 급여체제로 크게 개편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고 동시에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상향되었다. 이는 자활사업 의무 참여대상의 규모 축소와 자활사업 희망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를 가져왔다(이승호 외, 2018).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2016년에는 49,870명이었던 자활참여자 수가 2019년에는 59,85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해식 외, 2020).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지위별 자활사업 참여자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부수급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61.8%→65.8%)으로 확인되며 다른 수급지위 유형의 분포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차상위의 경우 2018년 10.1%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6.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상아 외, 2021a).

〈표 I-3〉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계	수급자				차상위	기타	해당없음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2018	51,978 (100.0)	32,131 (61.8)	8,648 (16.6)	108 (0.2)	5,233 (10.1)	5,249 (10.1)	1 (0.0)	608 (1.2)
2019	59,859 (100.0)	38,155 (63.7)	8,507 (14.2)	125 (0.2)	6,372 (10.7)	5,753 (9.6)	5 (0.0)	942 (1.6)
2020	63,915 (100.0)	40,497 (63.4)	9,672 (15.1)	103 (0.2)	7,056 (10.1)	5,422 (8.5)	5 (0.0)	1,160 (1.8)
2021	65,498 (100.0)	43,102 (65.8)	10,222 (15.6)	110 (0.2)	7,057 (10.1)	4,466 (6.8)	1 (0.0)	540 (0.8)

자료 : 이상아 외(2021a), 자활사업의 변화와 발전방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의 변화와 함께 사업 참여자의 특성도 변화해왔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이전까지는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더 높았으나 점차 남성 참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여성보다 남성 참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I-4〉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계	여성	남성
2018	31,487 (100.0)	17,017 (54.0)	14,470 (46.0)
2019	40,589 (100.0)	20,543 (50.6)	20,046 (49.4)
2020	47,089 (100.0)	22,959 (48.8)	24,130 (51.2)

자료 : 이상아 외(2021a), 자활사업의 변화와 발전방안

2015년도에 만 65세 이상의 근로무능력 일반수급자와 차상위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맞춤형 자활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었던 자활참여자 연령대가 다소 다양해졌다(이상아 외, 2021a; 이상아 외, 2021b; 김경휘 외, 2022). 2020년까지도 가장 많은 참여자 연령대는 50대 이지만 2018년 이후 중장년층(40-50대)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고연령 참여자의 분포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를 넘게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5〉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8	31,487 (100.0)	2,223 (6.6)	2,223 (7.1)	6,318 (20.1)	11,487 (36.4)	9,385 (29.8)
2019	40,280 (100.0)	3,137 (7.8)	3,137 (7.8)	7,758 (19.3)	14,279 (35.4)	11,969 (29.7)
2020	47,089 (100.0)	3,429 (7.4)	3,429 (7.4)	8,588 (18.6)	16,335 (35.3)	14,494 (31.3)

자료 : 이상아 외(2021a), 자활사업의 변화와 발전방안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 살펴보면 2016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자격증 보유자는 31.9%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45.5%가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명, %)

연도	계	자격증 미보유	자격증 보유
2016	29,022(100.0)	19,754(68.1)	9,268(31.9)
2017	24,457(100.0)	17,942(62.2)	10,883(37.8)
2018	26,265(100.0)	18,487(60.2)	12,225(39.8)
2019	35,714(100.0)	21,466(54.5)	17,956(45.5)

자료 : 김경휘 외(2020),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유인 방안 연구

자격증을 보유한 자활사업 참여자는 증가하였으나 2014년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높은 참여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우선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역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김경휘 외, 2022). 2016년 12월 기준으로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약 11.1%, 2019년에는 15.6%로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17; 서광국, 2021).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수준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근로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참여자는 전체의 73.2%였으나 2019년 12월에는 66.3%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해식 외, 2020).

〈표 I-7〉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수준별 분포

(단위 : %)

연도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근로미분류
2016	73.2	5.5	21.3
2017	70.6	5.1	24.3
2018	70.1	4.9	24.9
2019	66.3	4.7	29.0

자료 : 정해식 외(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연구

### 3)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자활사업은 '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사업으로 존재해왔다. 자활사업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근로기회 제공, 근로역량 강화, 취업알선, 자활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왔다. 자활사업은 지난 20년간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활기업 창업지원,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시작과 확대,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자활사업으로의 이문화 배치, 차상위층까지 자활사업 대상의 확대, 자활장려금 등을 통한 자활급여의 증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과 같은 변화를 수행하였다.

자활사업의 환경 및 제도적 변화와 함께, 낮은 근로능력, 다차원적 문제를 가진 참여자의 증가, 청년의 증가와 같은 참여자들의 특성 또한 변화를 겪어왔다. 최근 코로나의 발발과 경기침체, 고실업의 장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심화 및 플랫폼노동의

증가와 같은 변화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또한 급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에 참고하고자 한다.

자활 영역에서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2012년에서 2018년까지 7차에 걸쳐 자활패널을 수집한 바 있다. 2012~2018년에 걸쳐 수행한 1~7차년도 자활패널조사의 조사표는 크게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참여특성, 자립의지, 가구가족특성, 건강, 음주, 정신건강 및 가족관계, 가구소득, 가구소비 및 생활여건, 가구저축, 자산, 부채, 주거 및 지역사회환경, 사회적 자본, 근로경험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I-8〉 2012~2018년에 걸쳐 시행된 1~7차년도 자활패널 조사표 구성

영역	세부 문항 구성
자활근로 참여특성	자활참여특성, 자활참여센터, 자활 참여기간, 자활사업단 종류, 자활사업단 업종, 자활사업단 참여기간, 자활사업단에서의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정해진 날 외의 근무 혹은 야간 추가근무 여부, 자활사업단의 월평균 급여, 자활사업단에서의 직책, 자활사업단의 사회보험가입 여부 및 혜택, 자활사업단 일자리에 대한 평가, 자활사업 지속참여 여부, 자활사업참여 어려움, 탈피 후 필요 자원 비목
자립의지	5년 후의 가족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가족상황 변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자립의지,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자립에 필요한 욕구충족정도 및 인적자본,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
가구가족특성	가구원 정보, 본인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학력이수 구분, 가구형태, 다문화가구 여부, 동거여부,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주 소득원 여부, 장애등록여부, 장애등급, 장애 발생 시기, 장애 관련 일상생활 수행 정도, 만성질환 정도, 가족 이외의 도움 제공기관(장애인 만성질환, 미취학아동·청소년·노인)
건강, 음주, 정신건강 및 가족관계	의료보장형태, 건강검진여부 및 형태, 현재 건강상태, 건강으로 인한 자활사업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체 경험, 우울에 대한 인식, 가족적응력에 대한 인식, 음주, 가족기능
가구소득	근로소득여부 및 소득액, 재산소득여부 및 소득액, 사회보험 수급여부 및 수급액, 개인연금수급여부 및 수급액, 친지로부터의 금전적 도움 제공여부 및 제공액, 정부 또는 친지로부터의 현물 생계지원여부 및 지원액, 정부나 친지외의 다른 소득여부 및 소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여부 및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제외한 정부보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가구소비 및 생활여건	적정생활비, 1년간 실제생활비 및 작년과 생활비 비교, 가계부담이 가장 큰 생활비지출, 생활비부족 경험여부, 생활비부족 충당방식 및 충당금액, 물질적 결핍에 대한 인식

영역	세부 문항 구성
가구저축, 자산, 부채	저축여부 및 각항목별 저축금액, 주택이나 토지소유여부 및 소유금액, 전세나 월세여부 및 보증금액, 금융자산 소유여부 및 소유액, 부채여부 및 부채액
주거 및 지역사회환경	주택유형, 주택점유 형태, 거주층, 주택건평, 가구원구성 및 침실구성, 가구의 주택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 형태, 거주기간, 문화사회복지·교육·시설·교통 등 거주지역 생활 환경
사회적 자본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참여 모임 및 단체, 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 고용 및 생산활동 참여, 문화 및 대중매체, 삶의 목표, 가치관과 규범, 만족감·적응·소속감
근로경험	근로여부, 근로형태, 현 직업에 자활사업이 도움이 되는지,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한 적 있는지, 직업경험(가장 최초, 가장 오래 유지, 자활사업 참여 바로직전), 자활사업 참여 도중 일자리 구한 적 있는지(일자리 구했는지, 일자리 고용형태, 희망임금 수준, 직업 얻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훈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적 있는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 및 개수
개인사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 이외의 다른 자활사업 참여여부, 수급지위 변동(1999년~2012년), 수급지위변동 주된 이유

자료 : 유태균 외(2012). 자활사업 분야(불안전 취업자) 패널구조 연구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을 위해 자활패널 외에도 복지패널, 장애인삶 패널조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조사 등을 검토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첫 조사 이래 2020년까지 15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가구원과 가구 특성, 소득·자산·부채·지출, 주거, 복지수급, 삶의 만족도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학술적 발전뿐 아니라 정책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주요 조사영역은 소득분포, 연령대별 빈곤, 기초보장 수급, 공적연금 가입, 주거실태 등이며,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9〉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영역	세부주재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G. 개인사
2. 근로활동	1) 직업이력	가구원용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B. 근로
3.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VII. 생활비 X. 재산
	3) 재산 및 부채	가구용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4) 기초생활	가구용 XI. 생활여건
4. 가구여건(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XII.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II. 건강 및 의료A V. 의료B
	3) 주거	가구용 VI. 주거
	4) 가족관계	가구용 XVII. 가족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5) 기타 가구여건	아동부가조사(1/4/7/10/13/16차)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5.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1) 사회보험	가구용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 생활보장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6. 기타	1) 기타 생활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2)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3) 복지·사회·정치문제 인식	복지인식 부가조사(2/5/8/11/14차) 가구원용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성역할)

자료 : 여유진 외(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검토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38001호)로,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2015~2017년 사이에 장애등록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 6,121명 표본을 패널로 구축하여 장애인 및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대상으로 2018년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20년 3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2차년도 조사에서는 장애인 패널 6,121명 중 5,527명이 조사 완료하여 90.3%의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으며, 2020년 3차년도 조사에서는 5,259명이 조사를 완료하여 85.92%의 표본 유지율을 확보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주요 조사영역은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자립, 사회참여 등이며,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10〉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표 구성

영역	세부 영역 구성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일반현황 등
건강·의료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자립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사회참여	장애관련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자료 : 김정희 외(2021).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

본 연구는 자활근로와 유사하게 공공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실태조사 또한 검토하였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는 2013년 이래 세 번째 통합조사로 추진되었으며,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는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과 참여 노인 각각을 대상으로 기관은 약 700개 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약 3,000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참여 노인 실태조사 및 운영기관 실태조사가 통합된 연구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재정 일자리 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실태에 대한 주기적, 종합적 파악 및 정책 개선점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참여 노인 실태조사 조사영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일반 특성 및 가구 특성, 건강 및 의료 이용, 사회참여 특성 및 심리적 특성, 복지서비스 및 노후생활, 경제상태, 경제활동, 제도개선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I-11〉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영역	세부 문항 구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현재 활동내용, 사업단 및 사업유형 변경여부, 변경 사유,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단 및 근무처인지 여부, 노인일자리사업 인지경로, 참여 동기, 근로조건(주당 활동시간, 주당 활동일수, 활동일, 교대제 현황), 계속참여자 중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비참여 기간 유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이수경험, 계속참여자 심화교육 이수경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 개선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과정의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의 변화에 대한 견해, 노인일자리사업 항목별 만족도, 참여 활동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사업 참여 이유
일반특성 및 가구특성	총 가구원 수 및 특성,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거형태
건강 및 의료 이용	건강 상태, 질병 현황, 신체능력, 의료 관련 제도 적용현황, 이용 의료시설 유형별 이용여부, 이용빈도, 의료비, 의료 이용 필요시 미이용 경험 여부, 이용 빈도, 의료비
사회참여 특성 및 심리적 특성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관계 정도 및 연락 빈도 지역사회소속감 및 인지 정도, 지역 내 안전감, 우리나라의 평등 및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및 대비 수준에 대한 견해, 만 60세 이후 자원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체유형별 참여정도: 참여여부, 참여수, 참여시간, 노년기 삶에서 사회활동의 의미, 노년기 삶에서 사회활동 통한 교류 의미, 많이 한 여가문화활동, 생활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복지서비스 및 노후생활	사회보장급여 및 노인복지서비스 항목별 수급 경험, 기초노령연금 노후생활비 충족정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전 노후생활비 마련여부, 노후생활비 준비 정도에 대한 만족도,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한 금융상품 또는 자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경제상태	기초생활보장 신청경험 및 형태, 소득원별 가구 연평균 소득액 및 항목별 소득액, 재정상태의 충분 정도, 사업 신청 전, 후 경제상태 수준, 금전 부족으로 인한 경험 지출 규모가 가장 큰 항목, 사업 신청 전, 후 가구 평균 생활비 지출액, 적정 월평균 가구 생활비 수준, 사업 참여 후 받은 활동비 및 수입사용 여부, 비중
경제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애 최초 일자리 여부, 최장 종사직업, 최종 종사직업 정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전 직업과의 관계 정도, 일에 대한 인식, 노인일자리 외 공공일자리 참여 경험, 구직을 위해 노력한 경험, 금년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경험 유무, 목적, 이유, 향후 근로의사, 노인일자리사업 외 참여 희망 일자리 형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희망 이유, 향후 노인 일자리 참여 가능 기대 기간
제도개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 경험 여부, 경험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필요성, 불공정 행위 목격 및 경험 여부, 휴식시간 이용 실태

자료 : 박경하 외(2019).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본 연구는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구축 연구를 검토하였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는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만 15~39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2018년에 가입한 참여자 3,725명을 모집단으로 하며, 체계적 표집방법을 통해 700여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22명이 1차 패널조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2019년 1차 패널 연구가 수행된 이래 2020년 2차, 2021년 3차년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3년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2018년에 참여한 패널 모두가 해지한 2022년 시점에서는 해지자 대상 4차년도 연구가 수행 중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 일, 심리정서적, 사회적, 건강, 주거 등의 측면에서 추적하여 파악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의 특성의 변화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정책제언, 나아가 청년 정책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구축 연구의 조사영역은 일반적 특성 및 수급 현황, 경제적 상황, 주거 상황/자산, 근로 특성, 진로 관련 노력,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 재무역량, 코로나 영향, 신체적 건강, 돌봄 부담,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선 의견 등의 12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I-1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 조사표 구성

영역	세부 문항 구성
일반적 특성 및 수급 현황	연령, 성별, 학력, 혼인상태, 학력, 장애여부, 종교유무, 가구주여부, 가구구성, 수급 급여 유형, 수급 기간
경제적 상황	소득(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저축액, 부채액, 총생활비 및 항목별 지출액, 부채이유, 부채부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1,2,3순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주거 상황/자산	주택유형, 주거위치, 주택점유형태, 주택금액 및 월세, 주택면적
근로 특성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위,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지속가능성
진로 관련 노력	진로준비행동, 1년 뒤 예상진로, 지난 1년간 수행한 진로관련활동
심리정서적 특성	자아존중감, 행복, grit, resilience, 우울
사회적 특성	가족지지, 사회적자본,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지, 사회활동 참여 일수
재무 역량	저축에 대한 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 금융이해력
코로나 영향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소득감소액, 코로나로 인한 실적 경험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
돌봄 부담	돌봄 부담 인지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선	사업만족도, 효과적 홍보방법, 중도포기/해지 이유, 필요한 이유, 개선 제안

자료 : 최상미 외(2021). 3차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

본 연구에서 검토한 자활패널(2012~2018), 한국복지패널(2006~2020), 장애인 삶 패널조사(2018~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201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2019~2021)에서 실시한 조사의 영역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 <표 I-13>과 같다. <표 I-13>에서 볼 수 있듯이 패널 및 실태조사 연구들은 일반적 특성, 수급특성, 건강,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상황, 근로 현황 및 특성, 주거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대상 및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영역에 보다 집중하거나 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조사영역은 가장 우측 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 및 수급 특성, 신체적 및 정신건강,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황,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자활사업 참여 특성, 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및 개선 의견의 10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조사영역별 개별 문항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표 I-13>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 영역과 본 연구의 조사 영역 구성

	자활패널 2012~2018	한국 복지패널 2006~2020	장애인 삶 패널조사 2018~2020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2019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2019~2021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일반적 및 수급 특성	가구·가족 특성	기초보장 수급		일반적 및 가구 특성	일반적 특성 및 수급 현황	일반적 및 수급 특성
건강	건강, 음주		건강·의료	건강 및 의료이용	신체적 건강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심리정서적 특성	정신건강			사회참여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사회적 특성	가족관계, 사회적 자본		사회참여		사회적 특성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황	가구소득, 저축, 자산, 부채, 소비 및 생활여건	소득분포 빈곤역동성	자립	경제상태	경제적 상황 재무역량	경제적 상황
근로경험 및 특성	근로경험 자활근로참여특성 자립의지			경제활동	근로 특성 진로관련 노력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자활사업 참여 특성

	자활패널 2012~2018	한국 복지패널 2006~2020	장애인 삶 패널조사 2018~2020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2019	자선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2019~2021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주거	주거 및 지역 사회환경	주거실태			주거상황	주거
제도 만족도 및 개선의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 및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선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돌봄					돌봄 부담	
기타	개인사	공적연금 가입	장애수용 및 변화	노후생활	코로나 영향	





## 조사방법

---

1. 조사과정 및 표본추출
2. 조사영역 및 변수설정



# II

## 조사방법 《

### 1. 조사과정 및 표본추출

#### 1) 조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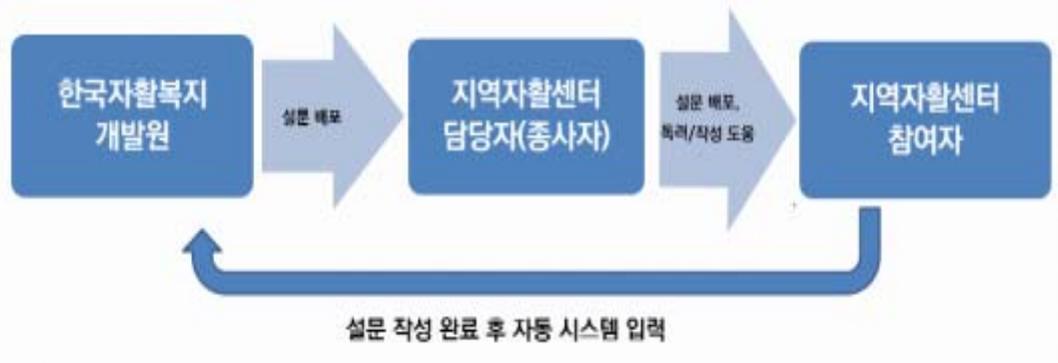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전국 시군 250개 자활사업 참여자(GATEWAY 포함) 들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5일에서 2022년 7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실태를 주기적,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개선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본 조사는 온라인 비대면 조사를 통한 접근성 확대와 조사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조사 이후 자료 처리는 SPSS를 활용하여 주요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II-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표본 수	5,000 표본
표본 설계	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 자활역량평가점수에 따른 비례배분
표본틀	2022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
조사기간	2022년 6월 15일 ~ 2022년 7월 24일
자료처리 방법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분석

지역자활센터 내 담당자(게이트웨이 담당자 혹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게 직접 구두로 연구에 대해 안내한 뒤, 온라인 기반 설문지(URL)를 전달, 첫 화면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온라인 상으로 동의를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그림 II-1] 설문조사 방식



## 2) 표본추출

본 조사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참여자 수 51,913명(자활정보시스템 기준)을 기준으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전체의 10%의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후, 자활역량점수<sup>4)</sup>와 자활사업 참여기간 참여자별 유의 할당에 따라 비례층화표집 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센터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참여자 수가 215명이므로 이 중 10% 표본으로 산출하고, A센터 참여자들의 자활역량점수와 사업기간별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표본을 할당하였다.

4) 자활역량점수는 자활사업단 배치시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대상자 판단 기준으로 대상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자활의지, 가구여건, 지역사회 연건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음

〈표 II-2〉 자활사업 참여자 표본설계 예시

	참여자수 (명)	표본 (10%)	구분	45점 미만	45점 이상- 59점 이하	60점 이상- 79점 이하	80점 이하
A센터	215	21	1년 미만	0	5	4	0
			1년 이상-3년이하	0	6	1	0
			3년초과	0	4	1	0

이때 각 지역자활센터별 최소 표본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도록 임의 조정하였다. 최종 표본은 5,000명으로, 지역별 표본 할당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3〉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표본 설계표

(단위: 명, %)

지역	조사 모집단	표본 수	비율
강원	2,402	231	4.6
경기	6,490	625	12.5
경남	3,439	331	6.6
경북	2,655	256	5.1
광주	3,143	303	6.1
대구	2,972	286	5.7
대전	1,832	176	3.5
부산	4,847	467	9.3
서울	11,000	1,059	21.2
세종	206	20	0.4
울산	997	96	1.9
인천	3,624	349	7
전남	2,130	205	4.1
전북	2,405	232	4.6
제주	782	75	1.5
충남	1,680	162	3.2
충북	1,309	126	2.5
전체	51,913	5,000	100

추출된 표본기관 중 250개 지역자활센터 모두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할당된 표본과 현재 참여자 구성이 일치하지 않아 설계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센터까지 포함된 전체 지역별 응답 표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4〉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응답표본 분포

(단위: 명, %)

지역	모집단 수(전체)	표본 수	응답 수	지역별 응답률
강원	2,402	234	236	100.9
경기	6,490	627	607	96.8
경남	3,439	337	329	97.6
경북	2,655	265	252	95.1
광주	3,143	295	283	95.9
대구	2,972	282	282	100.0
대전	1,832	171	129	75.4
부산	4,847	462	495	107.1
서울	11,000	1,036	1,011	97.6
세종	206	21	21	100.0
울산	997	95	96	101.1
인천	3,624	343	347	101.2
전남	2,130	218	216	99.1
전북	2,405	237	239	100.8
제주	782	76	75	98.7
충남	1,680	167	136	81.4
충북	1,309	134	134	100.0
전체	51,913	5,000	4,888	97.76

## 2. 조사영역 및 변수설정

본 연구는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를 검토하여 조사영역을 일반특성 및 수급 특성, 신체적 및 정신건강,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황,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자활사업 참여 특성, 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및 개선의견의 10개로 구성하였다. 조사영역 및 문항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5〉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내용
일반 및 수급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현황: 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장애유무,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혼인상태</li> <li>- 가구 현황: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가족 수, 함께 생활하는 가족</li> <li>- 근로 현황: 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 가능성</li> <li>- 수급 현황: 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수급지위</li> </ul>
자활사업 참여특성	<p>자활사업 참여 현황 : 자활사업 참여 이유,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사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유형 및 업종, 자활 참여기간</p>
경제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월평균): 근로소득(자활급여, 그 외 소득), 공적 이전소득</li> <li>- 자산: 총 금융자산</li> <li>- 저축(월평균): 통장사업 참여여부 및 월평균 저축액, 통장사업 외 월평균 저축액</li> <li>- 부채: 총 개인 부채,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한 인지</li> <li>- 신용상태</li> <li>- 지출(월평균): 월평균 총 생활비, 지출이 큰 생활비 항목(1-3순위)</li> <li>- 인지: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주택 점유형태, 주거자산 및 비용(주택 총액, 월세), 주거안정성에 대한 인지, 주거환경</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건강: 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li> <li>- 정신 건강: 정신 건강(BSI-18), 우울(PHQ-9)</li> <li>-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 시 비이용 경험 및 사유</li> </ul>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 근로 경험 유무,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수준, 근로 중단 사유</li> <li>- 구직 경험: 최근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li> <li>- 자활사업 종료 이후 근로 관련 욕구: 취·창업 중 희망 유형, 취창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li> </ul>
정서적 자활 및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li> <li>- 정서적 웰빙: 행복(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 부정적 감정 빈도)</li> </ul>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지지, 사회적자본</li> </ul>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li> <li>- 돌봄 특성: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돌봄서비스 부담에 대한 인지</li> </ul>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만족도: 자활급여, 근로내용, 근로환경, 교육, 전반적만족도</li> <li>- 사업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만족도</li> </ul>

## 1) 일반적 및 수급 특성

### (1) 일반적 특성 : 성별, 출생년월,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응답자의 성별, 출생년월,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를 질문하였다. 그 외에 학력수준, 혼인상태, 등록장애인 여부 등도 일반적 특성 자료로 파악하나 실태조사에는 포함하지 않고 자활정보시스템(자정시) 내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 (2) 수급 현황 : 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현황을 파악. 자활정보시스템 내 자료가 있기는 하나, 자료 이용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급 급여 유형을 조사하였다. 한편 수급지위는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매칭하여 이용하였다.

〈표 II-6〉 일반적 및 수급 특성 조사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일반적 특성	생년월일	○	
	성별	○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	
	학력수준		○
	혼인상태		○
	등록장애인 여부		○
수급현황	수급 중인 급여 (중복응답)	○	
	수급지위 (조건부, 일반, 차상위, 특례 등)		○

## 2) 자활사업 참여 특성 : 자활사업 참여 시기, 참여하게 된 이유,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현재 참여 사업단에서의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이유,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이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등을 조사한다. 그

외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유형 및 업종, 자활 참여기간은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표 II-7〉 자활사업 참여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활사업 참여 이유	○	
	사업단 이동 경험 및 횟수	○	
	사업단 이동 사유	○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	
	현재 참여 중인 사업단 업종 및 유형		○
	자활사업 참여시점		○
	참여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등)		○
자격증 취득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	
	취득 자격증 개수	○	
	취득 자격증의 도움 인지 정도	○	

### 3) 경제적 상황 : 소득, 자산, 부채, 저축, 지출, 신용상태, 경제적 자활 수준에 대한 인지

경제적 상황 파악을 위해 소득, 자산, 저축, 부채, 지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소득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조사대상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조사하였다. 평균 근로소득은 자활급여(기본급여, 자립성과금, 내일키움적립금), 자활급여 외 근로 및 사업 소득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총 금융자산을 조사하며, 주거 파트에서 조사하는 부동산자산과 합쳐 자산총액을 파악하였다. 부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 부채로, 조사 시점 기준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조사하였다. 부채에는 은행 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계 등이 포함하였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과 연체액은 포함하였으나,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서 제외하였다. 더하여 부채에 대한 부담을 응답자의 인지에 근거하여 11점(0점-10점)으로 파악하였다.

저축 현황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저축액을 내일키움통장과 그 외 저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저축에는 예·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개인연금(국민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갯돈 불입금,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출과 관련하여 월평균 총생활비와 가장 지출이 커서 생활에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을 파악하였다. 그 외에 신용상태는 자정시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경제적 자활 척도를 활용하여 인지에 근거한 경제적 자활 정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자활 척도(ESS)는 기본적 경제 영역, 자율적 경제 영역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관적 경제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실제 삶을 반영하는 척도로써 활용하였다.

〈표 II-8〉 경제적 상황 조사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경제적 상황	소득	근로소득	자활기본급여	○	
			자립성과금	○	
			내일키움통장적립금	○	
			자활급여 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자산	총 금융자산	○		
	저축	통장사업 참여여부 및 월평균 저축액		○	
		통장사업 외 월평균 저축액		○	
	부채	총 개인 부채		○	
		부채부담 인지 정도		○	
	지출	월평균 생활비		○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	
		신용상태			○
	인지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1)		○	

자료 : Gowdy, E. A. & Pearlmuter, S.(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 4) 주거 특성 : 주택 점유 형태, 주택 금액, 주거 환경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 점유 형태, 주택 금액, 주거 환경을 파악한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주택 금액은 주택의 총액(자가 및 전세, 전월세 모두 응답)과 월세(월 평균)를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지에 근거하여 주거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표 II-9〉 주거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주거 특성	거주주택 점유 형태 및 금액 (부동산 자산)	○	
	주거안정성	○	
	주거 환경1)	○	

자료 : 김정희 외(2021). 2020 장애인살 패널조사 주거 환경 척도 문항 수정

#### 5) 건강 특성

##### (1) 신체적 건강 : 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능력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 정도를 조사하였다.

##### (2) 정신 건강 : 정신 건강, 우울

한편 간이정신건강 진단(BSI-18) 척도와 우울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 건강 정도를 파악한다. 간이정신건강 진단 척도(Derogatis, 2000)는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신체화증상(somatization)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우울 측정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9)를 사용하였다.

### (3)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시 비이용 경험 및 사유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관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일년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의 경험 여부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험의 유무와 이유를 파악하였다.

〈표 II-10〉 건강 영역 조사 세부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신체적 건강	신체적 능력	○	
	주관적 건강 상태	○	
정신건강	정신건강(간이정신건강 진단 BSI-18)1)	○	
	우울(PHQ-9)2)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	
	의료서비스 필요 시 이용 못한 경험	○	
	의료서비스 필요 시 이용 못한 이유	○	

자료 : 1) Derogatis, L. R.(2000). Brief Symptom Inventory 18(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2) Spitzer, R. L.et al.(1999). Vali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 6)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 (1) 과거 일 경험

자활사업 참여 이전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 시장에서의 일 경험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 전 근로 경험 유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또는 사업소득, 일 중단 이유를 조사하였다.

### (2)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

현재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관련 경험 및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 (3) 자활사업 종료 후 근로 관련 욕구

자활사업 종료 이후 어떠한 유형의 일을 원하는지, 취창업 중 희망 유형, 취창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표 II-11〉 일관련 경험 및 욕구 조사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과거 일 경험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 유무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중단 시점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또는 사업소득 수준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중단 사유	○	
구직 경험	최근 구직 경험 유무	○	
	구직하지 않은 이유	○	
근로 관련 욕구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	○	
	취업 시 고려점	○	
	창업 시 고려점	○	

## 7) 정서적 자활 및 웰빙

### (1)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을 조사하였다. 정서적 자활은 참여자 중심 자활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이 중 자활의지는 참여자가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인지하고 근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얼마나 동기부여 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성취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냐를 의미한다. 고용장벽은 근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인적자본, 정보 측면에서 인지하는 장벽의 정도를, 자활 행동은 스스로 자신이 근로 관련, 일상생활, 청결,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활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 (2) 정서적 웰빙 : 행복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웰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행복’ 척도를 활용하였다. 행복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인 감정 빈도, 부정적인 감정 빈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표 II-12〉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정서적자활 <sup>1)</sup>	자활의지(고용희망)	○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	○	
	자활 행동	○	
정서적웰빙	행복 <sup>2)</sup>	○	

자료 : 1) 김경휘 외(2021). 자활사업 참여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2) 서은국 외(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 8) 사회적 특성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II-13〉 사회적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사회적 관계	가족 지지 <sup>1)</sup>	○	
	사회적 자본 <sup>2)</sup>	○	

자료 : 1) Zimet, G. D., et al.(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2) 신준섭·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사회적지지 문항 중 가족지지 4문항만 사용함  
 3) 이민홍·고정은(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9)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이전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유무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자활사업 이외에 이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가 있는지 이용여부를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파악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가족돌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돌봄 필요한 가족 구성원 돌봄 및 유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돌봄서비스 부담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II-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or 현황	○	
돌봄 특성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무	○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	○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	
	돌봄서비스 부담 인지 정도	○	

### 10)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자활사업에의 참여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활 근로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업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표 II-15〉 주거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근로 만족도	자활급여	○	
	근로내용	○	
	근로환경	○	
	교육	○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근로 만족도	게이트웨이	○	
	서비스 신속성	○	
	전반적 만족도	○	
사업참여 만족도	사업만족도	○	
	서비스만족도1)	○	

자료 : 1) 김용석 외(2007).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 McMurtry, S.L., et al(2000). 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Results of an Initial Validation Study



## 참여자 특성

---

1. 일반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4. 주거 특성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특성
6. 사회서비스 이용



# III

## 참여자 특성 《

### 1. 일반적 특성

#### 1) 참여자 일반적 특성

자활실태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자활 참여자는 모두 4,888명으로 여성이 55.7%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50-59세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49세 23.1%, 60세 이상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45.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자활 참여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자활역량점수는 60점 이상 79점 이하가 39.5%, 45점 이상 59점 이하 33.9%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수급유형은 조건부수급자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수급자 28.8%, 차상위자 13.1%, 자활특례자 1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참여자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특성		사례수(명)	백분율(%)
전체		4,888	100.0
성별	남성	2,164	44.3
	여성	2,724	55.7
연령	29세 이하	555	11.4
	30-39세	492	10.1

	특성	사례수(명)	백분율(%)
연령	40~49세	1,129	23.1
	50~59세	1,677	34.3
	60세 이상	1,035	21.2
학력	무학	97	1.9
	초졸	366	7.1
	중졸	683	13.2
	고졸	2,366	45.8
	대졸	692	13.4
참여개월 구간	6개월 미만	265	5.1
	6개월 이상 1년 미만	555	10.7
	1년 이상 3년 미만	2,344	45.4
	3년 이상 5년 미만	1,279	24.8
	5년 이상	448	8.7
자활역량변수	45점 미만	725	14.0
	45점 이상 59점 이하	1,751	33.9
	60점 이상 79점 이하	2,041	39.5
	80점 이상	374	7.2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489	28.8
	조건부수급자	1,846	35.7
	자활특례자	655	12.7
	차상위자	676	13.1

## 2. 경제적 특성

### 1) 개인소득

#### (1)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개인소득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자활 기본급여가 평균 93.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성과급 평균 9.7만 원, 통장 적립금 평균 4.0만 원, 자활급여 외 근로

및 사업소득은 평균 2.4만 원, 저축계좌 1.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활 기본급여의 경우 자활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 기본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역량점수 45점 미만이 94.3만 원으로 가장 많고 80점 이상이 92.3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유형 별로는 자활특례자가 98.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건부수급자가 87.7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립성과급은 자활사업 참여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12.1만 원), 자활역량점수 60점 이상 79점 이하(10.0만 원), 수급유형 중 자활특례자(13.3만 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은 자활 참여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6.3만 원),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4.2만 원), 수급유형 중 일반수급자와 차상위자(5.2만 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저축계좌1 및 청년저축계좌는 자활 참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1.6만 원),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 60점 이상 79점 이하(1.5만 원), 수급유형 일반수급자(2.0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급여 외 근로 및 사업소득은 자활 참여 기간 5년 이상(4.0만 원),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3.1만 원), 수급유형은 조건부수급자(2.5만 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적이전소득은 자활 참여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17.3만 원),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23.4만 원),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21.3만 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 개인소득 평균(종합)

(단위 : 점)



〈표 Ⅲ-2〉 개인소득 평균(특성별)

(단위: 만 원)

		자활기본급여	자립성과급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적립금	희망저축계좌1 및 청년저축 계좌	자활급여 외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종합		93.4	9.7	4.0	1.5	2.4	14.8
성별	남성	94.4	9.4	3.2	1.2	2.3	8.6
	여성	92.6	9.9	4.6	1.6	2.5	19.8
연령	29세 이하	96.6	9.3	4.1	1.0	1.8	12.9
	30-39세	89.0	7.8	3.3	1.7	2.8	22.6
	40-49세	92.0	10.5	4.5	2.0	2.7	19.1
	50-59세	94.7	10.2	3.9	1.4	2.8	10.4
	60세 이상	93.3	9.0	3.8	1.1	1.5	14.7
학력	무학	91.8	6.7	2.6	0.5	0.3	6.0
	초졸	93.4	9.7	3.1	0.8	2.0	8.8
	중졸	93.3	10.0	3.6	1.5	3.8	15.6
	고졸	93.9	10.3	4.4	1.7	2.2	15.4
	대졸	94.5	10.3	5.0	1.2	2.4	14.7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85.6	1.5	1.3	0.6	1.6	19.1
	6개월 이상-1년 미만	85.2	1.3	1.1	1.2	2.2	16.3
	1년 이상-3년 미만	94.5	11.0	3.6	1.6	2.4	13.3
	3년 이상-5년 미만	95.7	12.1	6.3	1.5	2.1	17.3
	5년 이상	96.1	11.0	4.4	1.4	4.0	11.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94.3	9.8	3.3	1.4	3.1	23.4
	45점 이상-59점 이하	93.0	9.5	4.2	1.5	2.5	12.2
	60점 이상-79점 이하	93.7	10.0	4.1	1.5	2.1	13.2
	80점 이상	92.3	8.5	3.5	1.3	2.0	19.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96.9	11.1	5.2	2.0	2.4	13.8
	조건부수급자	87.7	7.6	2.6	1.2	2.5	21.3
	자활특례자	98.6	13.3	4.8	1.4	2.3	5.0
	차상위자	97.2	11.5	5.2	1.5	2.2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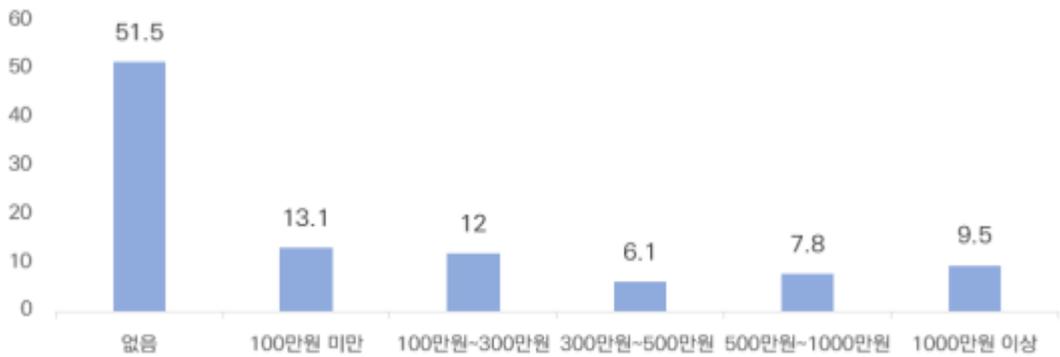
## 2) 자산

### (1) 총 금융자산

참여자의 총 금융자산 분포는 ‘없음’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 원 미만 (13.1%), 100만 원~300만 원(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수급유형 중에서는 조건부수급자(55.2%)가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차상위자(43.0%)가 가장 낮았다.

[그림 Ⅲ-2] 구간별 총 금융자산(종합)

(단위 : %)



<표 Ⅲ-3> 구간별 총 금융자산(특성별)

(단위 : %)

		없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300만 원	300만 원~500만 원	500만 원~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종합		51.5	13.1	12	6.1	7.8	9.5
성별	남성	55.5	11.7	12.6	6.0	6.6	7.8
	여성	48.3	14.3	11.6	6.2	8.7	10.9
연령	29세 이하	55.1	12.1	13.0	4.7	8.8	6.3
	30-39세	53.5	12.8	12.2	5.1	7.9	8.5
	40-49세	49.5	13.2	13.2	5.6	7.8	10.7
	50-59세	49.3	13.6	12.3	7.0	7.3	10.5
	60세 이상	54.1	13.0	9.7	6.6	7.9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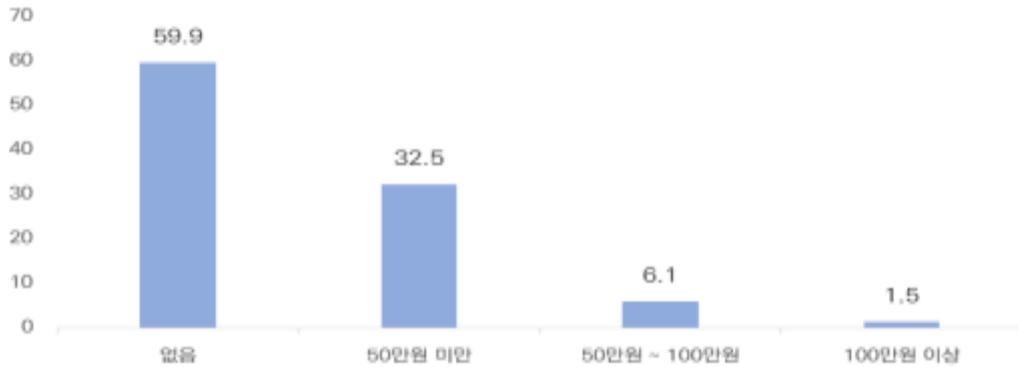
		없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300만 원	300만 원-500만 원	500만 원-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학력	무학	55.7	14.4	9.3	8.2	5.2	7.2
	초졸	54.9	15.3	9.6	5.7	6.8	7.7
	중졸	56.6	15.7	9.7	5.0	5.4	7.6
	고졸	50.1	12.2	12.6	6.6	8.4	10.1
	대졸	42.2	12.3	15.8	6.8	11.0	12.0
참여기간	6개월 미만	64.4	12.9	8.7	2.3	3.4	8.3
	6개월 이상 1년 미만	58.1	15.5	9.0	5.4	4.9	7.0
	1년 이상 3년 미만	51.0	12.8	13.3	6.1	8.2	8.6
	3년 이상 5년 미만	47.8	11.7	11.6	7.3	9.1	12.5
	5년 이상	48.0	16.3	12.3	6.0	8.3	9.2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51.7	13.1	11.9	6.2	8.0	9.1
	45점 이상 59점 이하	52.0	13.9	12.3	5.8	7.3	8.7
	60점 이상 79점 이하	51.6	12.2	11.9	6.4	7.7	10.2
	80점 이상	47.9	14.7	12.0	6.1	9.6	9.6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50.6	12.6	13.1	5.4	8.6	9.7
	조건부수급자	55.2	13.4	11.4	5.5	6.9	7.6
	자활특례자	46.4	13.0	13.1	8.5	7.5	11.5
	차상위자	43.0	13.9	11.7	8.1	10.2	13.0

## (2) 통장사업 외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저축액

자활사업 참여자의 59.9%가 통장사업 외 월평균 저축액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0만 원 미만 32.5%, 50만 원~100만 원 6.1%, 100만 원 이상 1.5%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유형별로는 참여기간 6개월 미만(76.1%),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62.3%),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63.0%)에서 통장사업 외 지난 3개월간 저축액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 구간별 월평균 저축액(종합)

(단위 : %)



〈표 Ⅲ-4〉 구간별 월평균 저축액(특성별)

(단위 : %)

		없음	50만 원 미만	50만 원~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종합		59.9	32.5	6.1	1.5
성별	남성	66.1	25.7	6.5	1.6
	여성	54.9	37.8	5.8	1.4
연령	29세 이하	52.3	33.3	11.5	2.9
	30-39세	54.7	35.0	7.3	3.0
	40-49세	58.5	35.7	4.5	1.2
	50-59세	62.6	31.9	4.7	.8
	60세 이상	63.6	28.2	6.8	1.4
학력	무학	71.1	26.8	2.1	0.0
	초졸	64.5	27.6	7.1	0.8
	중졸	65.0	28.3	5.9	0.9
	고졸	57.7	34.1	6.5	1.6
	대졸	51.3	39.2	7.7	1.9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76.1	18.2	3.8	1.9
	6개월 이상 1년 미만	71.5	22.9	4.3	1.3
	1년 이상 3년 미만	59.3	32.4	6.8	1.5
	3년 이상 5년 미만	53.3	38.2	6.6	1.9
	5년 이상	57.6	36.4	5.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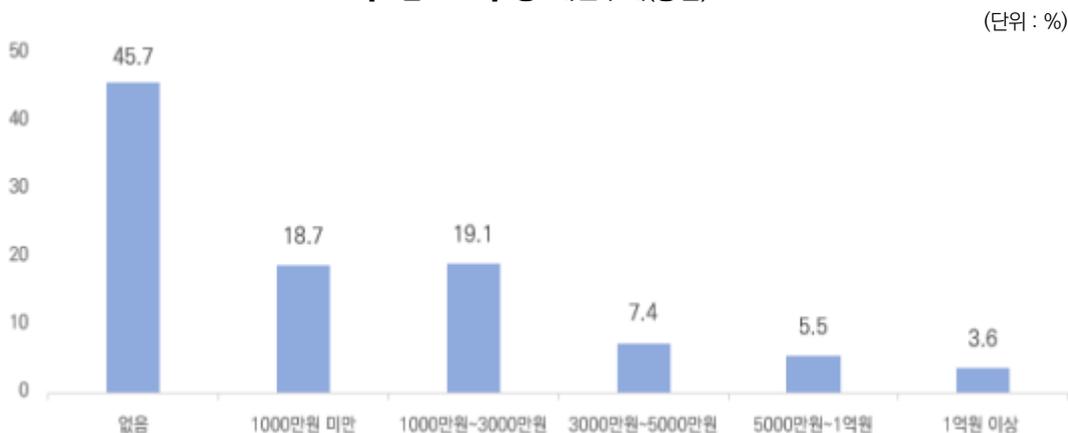
		없음	50만 원 미만	50만 원~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62.3	30.2	5.8	1.7
	45점 이상 59점 이하	60.1	32.4	5.7	1.8
	60점 이상 79점 이하	59.2	32.9	6.5	1.4
	80점 이상	57.8	34.5	7.2	.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8.1	33.9	6.7	1.3
	조건부수급자	63.0	30.4	5.2	1.4
	자활특례자	58.0	34.2	6.1	1.7
	차상위자	51.3	38.5	8.4	1.8

### 3) 재산 및 부채

#### (1) 총 개인부채

자활사업 참여자의 총 개인부채에 대해서는 45.7%가 개인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00만 원~3,000만 원(19.1%), 1,000만 원 미만(18.7%), 3,000만 원~5,000만 원(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5년 이상(55.4%),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50점 이상(47.9%), 수급유형 차상위자(49.6%)에서 개인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총 개인부채(종합)



〈표 III-5〉 총 개인부채(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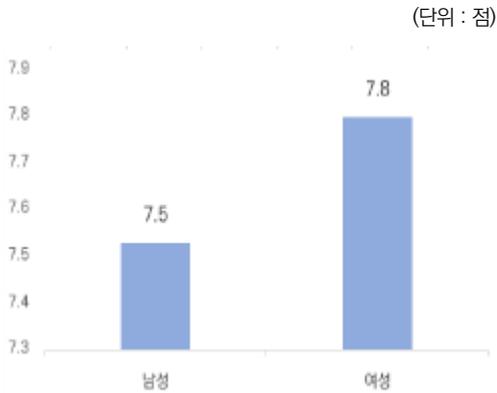
(단위 : %)

		없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3,000 만 원	3,000만 원-5,000 만 원	5,000만 원-1억 원	1억 원 이상
총합		45.7	18.7	19.1	7.4	5.5	3.6
성별	남성	45.5	23.5	16.6	3.1	7.5	3.7
	여성	45.9	26.7	17.3	2.8	5.7	1.7
연령	29세 이하	69.9	22.0	6.5	.5	.7	.4
	30-39세	45.5	31.3	16.7	2.0	3.9	.6
	40-49세	42.2	26.0	18.8	3.5	6.9	2.6
	50-59세	39.7	25.5	19.6	3.2	8.3	3.6
	60세 이상	46.2	23.0	16.6	3.7	7.5	3.0
학력	무학	51.5	30.9	9.3	3.1	4.1	1.0
	초졸	49.2	27.0	14.8	2.2	5.5	1.4
	중졸	45.9	25.7	17.2	2.5	5.9	2.9
	고졸	44.7	25.7	17.6	2.9	6.6	2.5
	대졸	43.1	23.3	18.9	4.3	7.1	3.3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6.6	22.3	12.9	5.3	9.8	3.0
	6개월 이상 1년 미만	41.9	28.7	17.0	2.3	7.6	2.5
	1년 이상 3년 미만	43.7	25.8	17.4	3.0	6.8	3.3
	3년 이상 5년 미만	47.5	25.3	17.4	2.8	5.5	1.6
	5년 이상	55.4	20.1	16.3	2.0	4.9	1.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7.9	26.1	12.7	3.2	7.3	2.8
	45점 이상 59점 이하	43.3	25.3	18.3	2.9	7.0	3.2
	60점 이상 79점 이하	46.6	25.2	17.3	2.8	5.9	2.3
	80점 이상	47.9	24.1	17.9	3.2	6.1	.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5.0	27.0	17.8	2.7	5.2	2.2
	조건부수급자	44.2	25.5	16.8	2.9	7.9	2.7
	자활특례자	47.0	24.7	17.3	2.9	5.5	2.6
	차상위자	49.6	21.7	17.0	3.0	6.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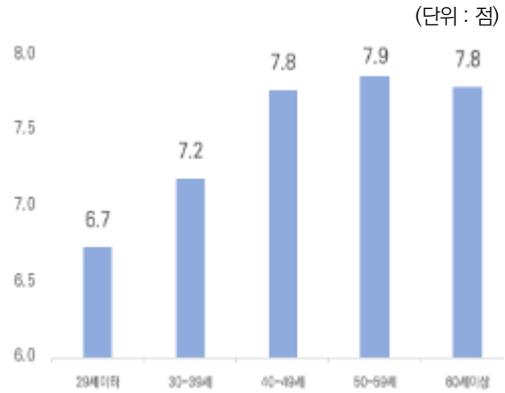
## (2) 부채 부담 인지 정도

부채 부담 인지 정도는 11점 만점에 평균 7.70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5년 이상(7.80점), 자활 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미만(7.83점), 수급유형 일반수급자(7.76점)에서 부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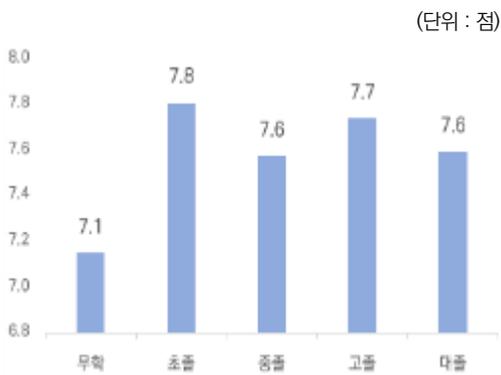
[그림 III-5] 부채에 부담감 정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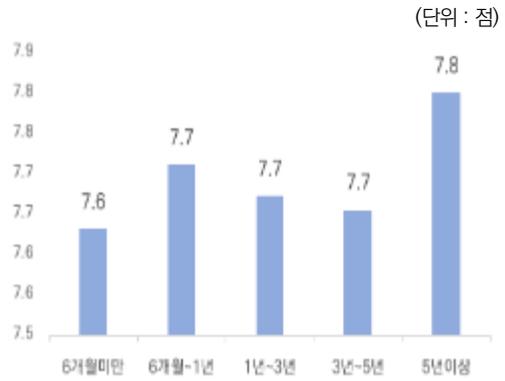
[그림 III-6] 부채에 부담감 정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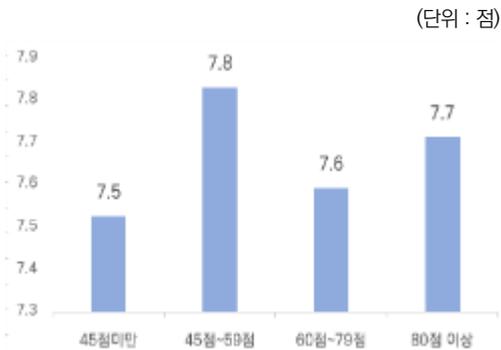
[그림 III-7] 부채에 부담감 정도(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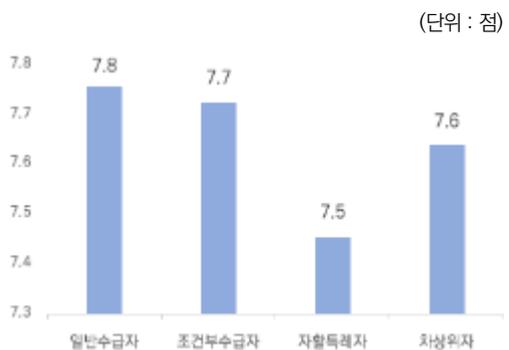
[그림 III-8] 부채에 부담감 정도(참여기간)



[그림 III-9] 부채에 부담감 정도(자활역량점수)



[그림 III-10] 부채에 부담감 정도(수급유형)



〈표 Ⅲ-6〉 부채 부담 정도

(단위 : 점, %)

		평균	전혀 부담 안됨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부담
총합		7.70	2.9	0.9	1.2	1.3	0.6	22.6	3.4	7.8	9.7	4.4	45.3
성별	남성	7.53	48.7	52.2	51.6	64.7	53.3	47.2	46.2	43.5	38.1	48.7	42.8
	여성	7.80	51.3	47.8	48.4	35.3	46.7	52.8	53.8	56.5	61.9	51.3	57.2
연령	29세 이하	6.73	17.1	8.7	12.9	14.7	6.7	5.5	13.2	12.1	5.8	6.0	4.2
	30-39세	7.18	13.2	13.0	16.1	20.6	13.3	10.5	17.6	12.1	12.5	7.7	8.0
	40-49세	7.77	11.8	30.4	25.8	32.4	33.3	23.3	23.1	26.6	29.6	27.4	23.9
	50-59세	7.85	38.2	34.8	25.8	20.6	20.0	37.0	36.3	32.9	34.6	44.4	40.9
	60세 이상	7.79	19.7	13.0	19.4	11.8	26.7	23.7	9.9	16.4	17.5	14.5	23.1
학력	무학	7.15	3.3	0.0	0.0	3.4	0.0	3.3	1.2	1.6	1.4	2.9	1.6
	초졸	7.81	6.6	9.5	10.3	6.9	14.3	8.1	5.8	7.0	5.9	4.9	9.1
	중졸	7.57	27.9	14.3	24.1	20.7	14.3	14.5	17.4	16.1	10.4	16.7	16.7
	고졸	7.74	52.5	57.1	48.3	51.7	50.0	55.4	59.3	56.5	59.3	59.8	57.2
	대졸	7.59	9.8	19.0	17.2	17.2	21.4	18.6	16.3	18.8	23.1	15.7	15.3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7.63	9.2	4.3	3.2	5.9	0.0	5.7	2.2	3.9	4.3	7.7	5.5
	6개월 이상 1년 미만	7.71	13.2	13.0	12.9	14.7	13.3	11.0	7.7	14.0	15.2	6.8	12.4
	1년 이상 3년 미만	7.67	50.0	39.1	54.8	50.0	33.3	51.7	56.0	46.4	44.7	46.2	50.5
	3년 이상 5년 미만	7.65	21.1	43.5	19.4	29.4	40.0	24.0	27.5	28.5	27.6	28.2	24.3
	5년 이상	7.80	6.6	0.0	9.7	0.0	13.3	7.7	6.6	7.2	8.2	11.1	7.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53	17.1	4.3	12.9	11.8	13.3	17.3	13.2	13.5	11.3	10.3	14.0
	45점 이상 59점 이하	7.83	30.3	43.5	35.5	32.4	46.7	36.3	37.4	30.9	33.1	35.0	40.6
	60점 이상 79점 이하	7.59	47.4	39.1	45.2	50.0	26.7	39.7	45.1	46.4	44.7	47.9	38.5
	80점 이상	7.71	5.3	13.0	6.5	5.9	13.3	6.7	4.4	9.2	10.9	6.8	6.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7.76	35.7	22.7	20.0	33.3	20.0	30.8	30.3	35.5	32.7	35.7	32.6
	조건부수급자	7.72	35.7	31.8	56.7	36.4	46.7	39.9	42.7	38.5	41.9	38.4	41.2
	자활특례자	7.46	17.1	31.8	10.0	12.1	26.7	15.1	12.4	13.0	11.3	14.3	13.1
	차상위자	7.64	11.4	13.6	13.3	18.2	6.7	14.2	14.6	13.0	14.1	11.6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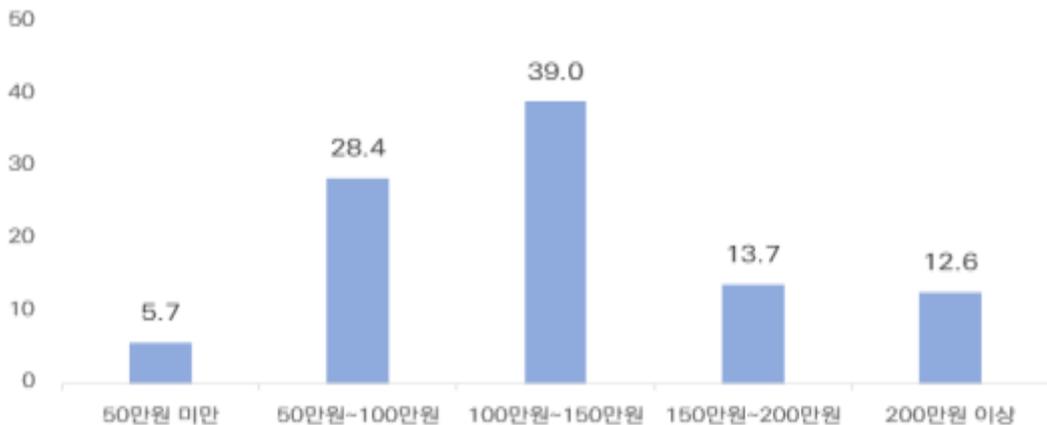
#### 4) 지출

##### (1)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생활비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 규모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39.0%로 가장 높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28.4%),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월평균 가구 생활비가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참여기간 6개월 미만(47.3%),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35.3%), 수급유형 차상위자(3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1] 월평균 가구 생활비(종합)

(단위 : %)



<표 III-7> 월평균 가구 생활비(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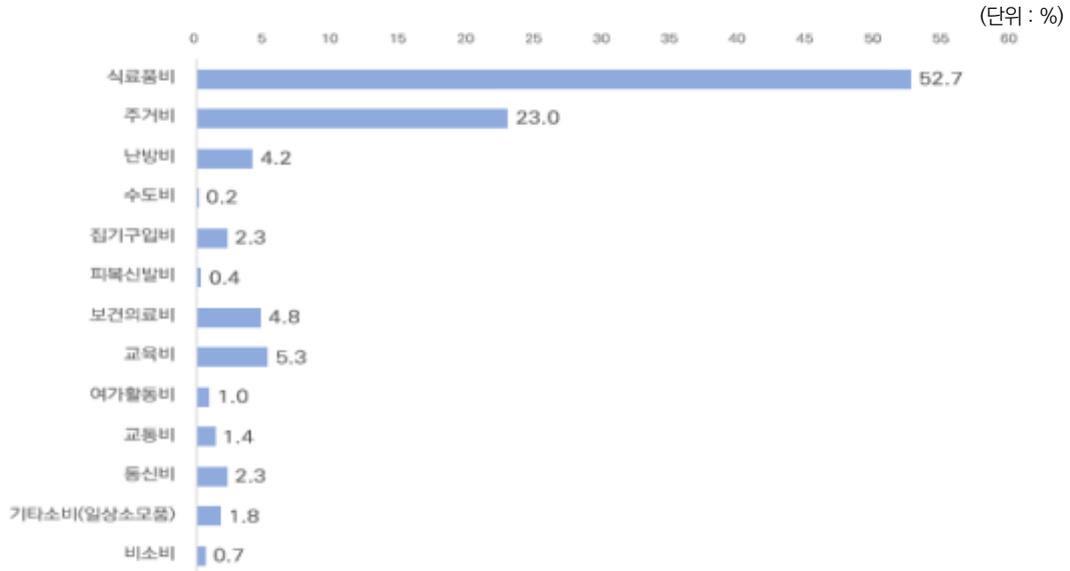
		50만 원 미만	50만 원~100만 원	100만 원~150만 원	150만 원~200만 원	200만 원 이상
종합		5.7	28.4	39.0	13.7	12.6
성별	남성	5.8	34.3	40.3	10.8	8.8
	여성	5.7	24.0	38.4	16.2	15.8
연령	29세 이하	13.2	33.0	29.2	10.7	13.9
	30~39세	6.5	26.4	38.0	15.4	13.6
	40~49세	4.5	24.6	36.1	16.1	18.8
	50~59세	4.9	28.6	40.9	14.5	11.2
	60세 이상	4.3	31.4	45.9	11.2	7.3

		50만 원 미만	50만 원~100만 원	100만 원~150만 원	150만 원~200만 원	200만 원 이상
학력	무학	7.3	31.3	43.8	10.4	7.3
	초졸	5.2	32.6	43.3	9.9	9.0
	중졸	4.8	31.1	42.9	11.9	9.3
	고졸	6.0	27.2	38.6	14.6	13.6
	대졸	4.5	24.9	36.7	16.4	17.5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8.8	38.5	28.6	12.6	11.5
	6개월 이상 1년 미만	6.2	29.0	38.7	15.1	11.1
	1년 이상 3년 미만	5.4	28.4	39.4	14.1	12.6
	3년 이상 5년 미만	5.7	26.6	39.4	13.9	14.3
	5년 이상	5.4	28.0	44.4	11.2	11.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6.4	28.4	42.0	11.1	12.2
	45점 이상 59점 이하	5.3	28.0	39.4	14.9	12.4
	60점 이상 79점 이하	5.6	29.2	39.3	13.4	12.5
	80점 이상	7.5	27.8	32.6	16.3	15.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5	28.1	41.9	13.3	11.2
	조건부수급자	5.0	26.2	37.2	16.1	15.5
	자활특례자	5.2	31.2	43.7	10.2	9.6
	차상위자	7.4	29.9	38.2	12.7	11.7

(2)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복수응답)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식료품비가 52.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거비(23.0%), 교육비(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참여자 유형에서 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종합)



<표 III-8>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특성별)

(단위 : 점)

		식료품비	주거비	난방비	수도비	집기구입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여가활동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
종합		52.7	23.0	4.2	0.2	2.3	0.4	4.8	5.3	1.0	1.4	2.3	1.8	0.7
성별	남성	56.3	25.1	3.6	0.1	1.6	0.4	3.5	2.1	1.5	1.4	1.9	1.9	0.7
	여성	49.8	21.4	4.7	0.2	2.8	0.3	5.9	7.9	0.6	1.5	2.5	1.7	0.7
연령	29세 이하	53.0	18.2	3.1	0.9	4.3	0.4	2.7	2.0	2.5	3.4	5.8	3.2	0.5
	30-39세	59.8	17.7	3.7	0.0	1.8	0.4	2.6	5.5	1.0	2.0	3.5	1.2	0.8
	40-49세	53.2	19.8	4.6	0.1	2.2	0.6	3.5	10.4	0.5	0.9	2.0	1.5	0.7
	50-59세	53.0	23.8	4.1	0.1	2.0	0.1	5.8	5.5	0.7	0.8	1.8	1.7	0.5
	60세 이상	47.9	30.5	5.0	0.0	1.9	0.5	6.9	1.2	1.2	1.7	0.7	1.6	0.9
학력	무학	49.5	22.7	7.2	0.0	0.0	0.0	8.2	2.1	3.1	2.1	1.0	4.1	0.0
	초졸	52.7	23.2	5.2	0.3	2.2	0.8	7.7	1.4	0.5	1.9	2.2	1.6	0.3
	중졸	50.9	23.8	5.6	0.1	2.5	0.3	6.2	2.9	1.8	0.9	2.2	1.8	1.2
	고졸	52.8	23.2	3.9	0.2	2.5	0.4	3.8	5.7	1.1	1.9	2.4	1.6	0.5
	대졸	55.8	20.5	3.0	0.1	2.5	0.3	4.9	7.7	0.3	0.6	1.4	2.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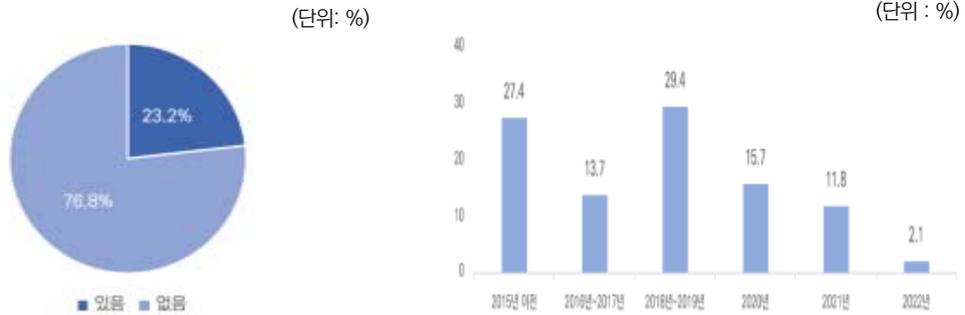
		식료 품비	주거비	난방비	수도비	집기 구입비	피복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여가 활동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	비소비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50.8	25.8	3.8	0.0	0.8	0.0	3.4	6.8	1.1	1.5	3.0	1.5	1.5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2	29.1	2.9	0.4	1.4	0.4	4.2	4.7	0.7	1.6	2.3	1.6	0.5
	1년 이상 3년 미만	52.5	24.1	3.9	0.2	2.9	0.3	4.5	4.7	1.0	1.3	1.7	2.0	0.8
	3년 이상 5년 미만	54.5	20.0	4.4	0.1	1.7	0.3	4.8	6.3	1.3	1.6	3.0	1.6	0.5
	5년 이상	52.2	17.2	7.4	0.0	2.7	1.1	8.0	5.8	0.4	1.1	2.0	1.6	0.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4.8	23.5	3.5	0.1	1.4	0.1	4.6	4.4	1.2	1.7	1.5	2.2	1.0
	45점 이상 59점 이하	52.3	24.1	4.3	0.1	2.3	0.5	4.8	4.7	1.1	1.3	1.9	1.9	0.7
	60점 이상 79점 이하	51.6	23.2	4.4	0.2	2.5	0.4	5.0	5.6	0.6	1.5	2.8	1.6	0.6
	80점 이상	56.1	16.0	4.8	0.3	2.1	0.3	4.5	8.6	1.9	1.6	2.1	1.1	0.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2.3	23.0	4.5	0.2	2.6	0.4	4.5	4.8	1.1	1.4	2.8	1.9	0.5
	조건부수급자	55.0	22.0	3.4	0.2	2.2	0.4	3.0	7.2	0.9	1.2	2.0	1.7	0.8
	자활특례자	54.0	25.5	4.3	0.2	2.3	0.5	4.9	1.2	1.2	1.7	1.4	2.4	0.5
	차상위자	46.4	23.2	5.9	0.0	2.2	0.3	10.8	4.4	1.0	1.6	2.1	1.2	0.7

## 5) 과거 일 경험

### (1) 과거 일 경험 및 일 중단 시점

자활실태조사 참여자의 과거 일 경험과 일 중단 시점을 확인해보면, 과거 마지막 일자리 중단 시점은 3년 이상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미만(30.5%), 1년 이상 3년 미만(26.2%), 6개월 이상 1년 미만(10.9%)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유형별로는 참여기간 6개월 미만(45.2%)과 5년 이상(46.2%)에서 마지막 일자리 중단시점이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36.6%), 수급유형 자활특례자(38.2%)에서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시점이 3년 이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3] 과거 일 경험유무 및 중단 시점(종합)



<표 III-9> 과거 일 경험 및 일 중단시점(특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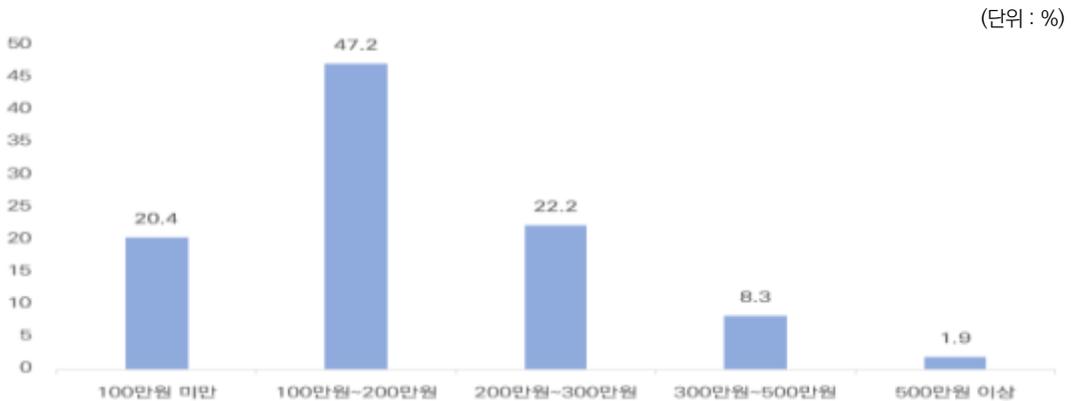
		자활사업이 생애 첫 일자리 여부		마지막 일자리 중단시점			
		예	아니오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종합		23.2	76.8	30.5	10.9	26.2	32.3
성별	남성	20.0	80.0	25.8	10.9	30.3	33.1
	여성	25.7	74.3	34.5	11	22.8	31.7
연령	29세 이하	40.7	59.3	47.5	11.8	25.6	15.1
	30-39세	20.1	79.9	33.6	9.5	28.5	28.5
	40-49세	19.5	80.5	29.9	12.4	25.1	32.7
	50-59세	20.9	79.1	27	10.6	26.5	35.9
	60세 이상	22.9	77.1	28.7	10.3	26.2	34.7
학력	무학	21.6	78.4	22.4	13.2	31.6	32.9
	초졸	27.0	73.0	36	7.5	22.8	33.7
	중졸	24.9	75.1	29.5	10.4	23.4	36.7
	고졸	23.2	76.8	31.4	12	26.6	30
	대졸	19.1	80.9	29.1	9.3	28.6	33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25.4	74.6	22.6	3.2	29	45.2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2	73.8	27.4	12.7	28.6	31.3
	1년 이상 3년 미만	22.2	77.8	28.9	11.5	29.3	30.3
	3년 이상 5년 미만	22.0	78.0	34.5	9.8	24.1	31.6
	5년 이상	26.6	73.4	31.9	9.7	12.2	46.2

		자활사업이 생애 첫 일자리 여부		마지막 일자리 중단시점			
		예	아니오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3.5	76.5	30.6	8.7	29.6	31.1
	45점 이상 59점 이하	22.7	77.3	25.5	11.5	26.4	36.6
	60점 이상 79점 이하	23.4	76.6	33.3	11.7	25	29.9
	80점 이상	23.5	76.5	38.5	8.3	25.7	27.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3.3	76.7	30.8	10.9	25.7	32.7
	조건부수급자	24.6	75.4	29.4	10.1	27.7	32.8
	자활특례자	20.8	79.2	26.2	10.2	25.4	38.2
	차상위자	20.6	79.4	36.9	14	24.2	25

(2) 과거 일자리 평균 소득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200만 원 이상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 원~300만 원 (22.2%), 100만 원 미만(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로 과거 마지막 일자리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참여기간 6개월 미만 (28.4%),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21.7%), 수급유형 조건부 수급자(22.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4]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종합)



〈표 III-10〉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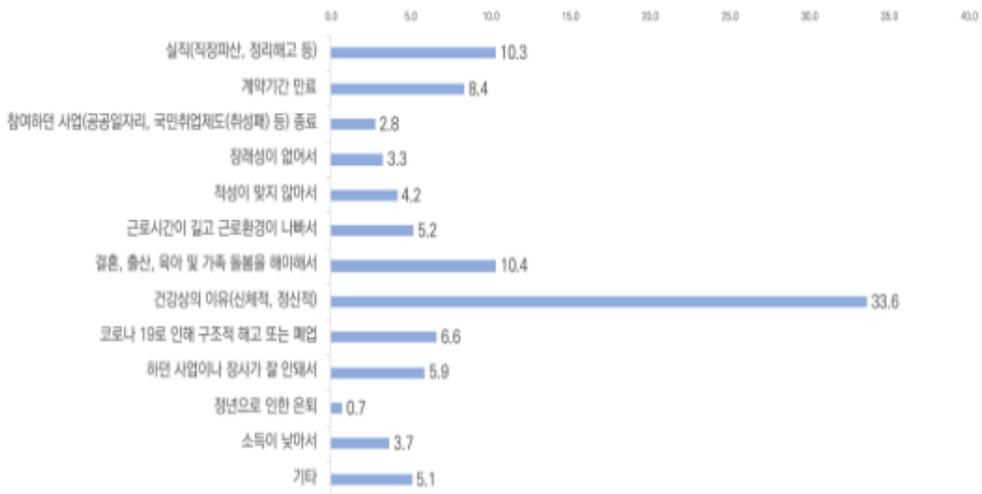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상
종합		20.4	47.2	22.2	8.3	1.9
성별	남성	12.1	40.3	30.0	14.3	3.4
	여성	27.6	53.2	15.6	3.1	.6
연령	29세 이하	28.6	55.3	14.6	1.5	0.0
	30-39세	17.3	55.2	20.6	6.6	.3
	40-49세	21.2	47.5	21.9	8.3	1.1
	50-59세	19.0	44.5	23.5	10.1	2.9
	60세 이상	20.2	44.1	24.3	8.8	2.6
학력	무학	25.0	43.4	23.7	6.6	1.3
	초졸	27.3	49.1	18.0	4.9	.7
	중졸	21.9	47.9	19.9	9.2	1.2
	고졸	18.9	48.2	22.8	8.5	1.7
	대졸	17.1	45.4	25.0	9.5	3.0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28.4	38.1	24.9	6.6	2.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3.5	41.1	23.5	10.0	2.0
	1년 이상 3년 미만	18.0	46.0	24.5	9.1	2.5
	3년 이상 5년 미만	20.6	52.7	19.0	6.3	1.3
	5년 이상	24.9	50.8	16.1	8.2	0.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1.7	45.5	21.8	8.3	2.7
	45점 이상 59점 이하	21.4	45.9	22.8	7.8	2.1
	60점 이상 79점 이하	19.2	48.8	21.6	8.8	1.5
	80점 이상	20.6	48.3	23.1	7.3	.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8.5	48.5	22.6	8.1	2.4
	조건부수급자	22.3	45.2	22.8	8.3	1.4
	자활특례자	21.2	46.1	20.8	9.6	2.3
	차상위자	16.4	53.4	20.7	8.0	1.5

(3) 과거 일 중단 이유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신체적, 정신적)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10.4%), 실직(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로도 모든 자활특성 유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5]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단위 : %)



<표 Ⅲ-11>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단위 : %)

		실직	계약기간 만료	참여하던 사업 종료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환경이 나빠서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 돌봄
종합		10.3	8.4	2.8	3.3	4.2	5.2	10.4
성별	남성	13.1	8.2	2.9	3.7	5.1	6.0	2.6
	여성	8.0	8.5	2.7	2.9	3.4	4.4	17.0
연령	29세 이하	8.2	10.6	1.8	9.4	17.9	8.8	10.3
	30-39세	10.7	6.6	3.1	2.5	6.4	7.1	24.2
	40-49세	9.1	7.6	2.1	4.0	3.2	5.1	16.3
	50-59세	11.2	8.0	3.4	2.3	2.0	4.5	7.0
	60세 이상	10.9	9.8	2.8	2.0	2.1	3.9	2.4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실직	계약기간 만료	참여하던 사업 종료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환경이 나빠서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 돌봄
학력	무학	11.8	6.6	1.3	5.3	2.6	7.9	2.6
	초졸	9.7	3.7	2.6	1.5	.7	6.0	4.5
	중졸	9.6	8.6	3.3	3.5	3.7	3.9	9.2
	고졸	10.6	8.4	2.4	3.7	4.5	5.1	11.9
	대졸	11.1	9.5	3.8	2.5	5.2	5.5	10.9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8.6	12.7	3.6	4.1	6.6	2.0	8.1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0	9.3	4.9	3.9	3.4	6.4	7.6
	1년 이상 3년 미만	10.8	7.0	2.8	2.4	4.4	5.1	8.4
	3년 이상 5년 미만	10.4	8.5	1.5	4.4	4.1	5.3	14.6
	5년 이상	8.8	11.9	3.3	3.6	2.4	5.5	13.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1.9	8.1	2.7	4.2	3.2	4.2	7.6
	45점 이상 59점 이하	9.2	8.8	2.7	2.7	3.0	4.7	10.1
	60점 이상 79점 이하	11.1	7.9	2.9	3.3	5.1	6.2	11.5
	80점 이상	8.4	9.4	2.8	4.5	6.3	3.5	10.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0.2	8.1	2.2	3.0	4.7	5.8	9.3
	조건부수급자	9.8	7.3	3.0	3.6	3.8	5.0	15.6
	자활특례자	12.1	7.5	2.1	2.5	3.5	4.4	4.4
	차상위자	11.5	10.8	3.9	3.7	3.5	6.0	5.8

		건강상의 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구조적 해고 또는 폐업	하던 사업이나 장사가 잘 안돼서	정년으로 인한 은퇴	소득이 낮아서	기타
종합		33.6	6.6	5.9	0.7	3.7	5.1
성별	남성	35.6	5.8	7.6	1.0	3.1	5.3
	여성	31.9	7.3	4.4	.4	4.2	4.9
연령	29세 이하	10.9	5.8	.9	0.0	3.6	11.6
	30-39세	23.2	6.6	2.8	0.0	2.5	4.3
	40-49세	33.8	5.6	3.9	0.0	3.9	5.6
	50-59세	39.3	6.7	7.9	.3	3.5	3.9
	60세 이상	38.6	8.0	8.4	2.8	4.3	4.1

		건강상의 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구조적 해고 또는 폐업	하던 사업이나 장사가 잘 안돼서	정년으로 인한 은퇴	소득이 낮아서	기타
학력	무학	38.2	5.3	9.2	1.3	7.9	0.0
	초졸	49.8	6.0	4.9	1.1	4.5	4.9
	중졸	37.5	5.7	4.9	1.0	3.7	5.5
	고졸	32.8	6.6	5.7	0.4	3.2	4.8
	대졸	25.7	7.9	6.3	1.1	3.9	6.8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1.5	6.6	6.1	0.5	3.6	6.1
	6개월 이상 1년 미만	31.3	11.0	3.2	0.2	3.2	5.6
	1년 이상 3년 미만	33.9	9.9	6.0	0.6	3.2	5.6
	3년 이상 5년 미만	33.8	0.9	6.9	0.9	4.6	4.0
	5년 이상	35.9	0.3	5.5	1.2	4.3	4.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4.8	5.8	5.8	1.3	4.9	5.6
	45점 이상 59점 이하	37.3	5.8	6.6	0.7	3.8	4.5
	60점 이상 79점 이하	30.5	7.0	5.5	0.4	3.3	5.4
	80점 이상	31.1	9.8	4.9	0.7	2.8	5.2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5.8	6.0	6.1	0.7	3.0	5.3
	조건부수급자	29.8	7.8	5.7	0.4	3.7	4.5
	자활특례자	39.9	4.8	7.1	1.2	5.0	5.4
	차상위자	33.7	6.5	4.5	1.1	3.5	5.4

###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 1) 신체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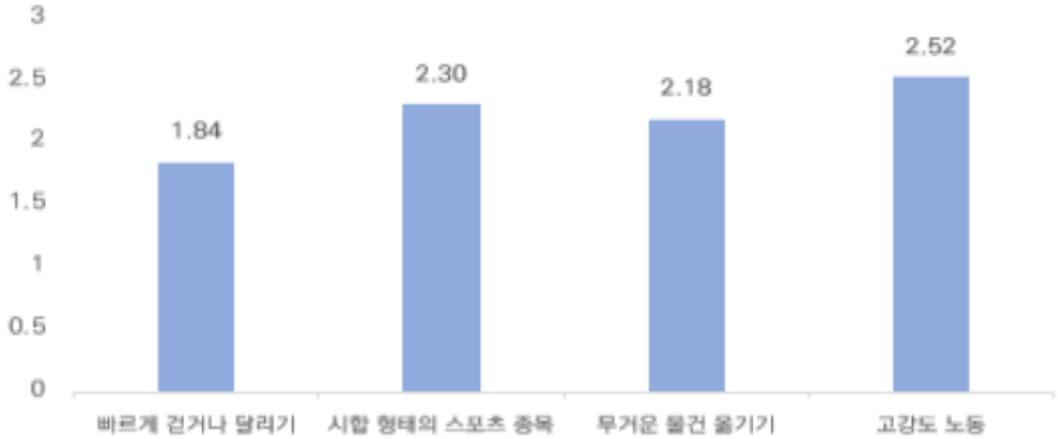
##### (1) 신체적 능력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는 고강도 노동이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합 형태의 스포츠 종목(2.30점), 무거운 물건 옮기기(2.18점),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1.84점)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살펴보면, 참여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모든 신

체 동작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유형 중 자활특례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신체 동작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종합)

(단위 : 점)



〈표 Ⅲ-13〉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특성별)

(단위 : 점)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시합 형태의 스포츠 종목	무거운 물건 옮기기	고강도 노동
종합		1.84	2.30	2.18	2.52
성별	남성	1.90	2.44	2.10	2.53
	여성	1.93	2.59	2.32	2.67
연령	29세 이하	1.55	2.17	1.83	2.39
	30-39세	1.73	2.26	1.96	2.44
	40-49세	1.87	2.47	2.22	2.55
	50-59세	2.00	2.60	2.32	2.66
	60세 이상	2.12	2.79	2.41	2.79
학력	무학	2.20	2.99	2.42	2.90
	초졸	2.17	2.81	2.43	2.77
	중졸	2.03	2.65	2.26	2.60
	고졸	1.86	2.44	2.17	2.57
	대졸	1.82	2.43	2.18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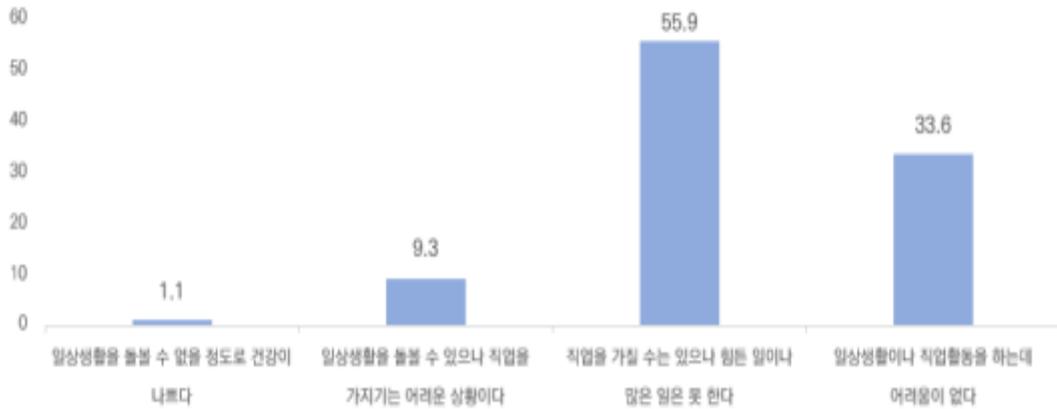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시합 형태의 스포츠 종목	무거운 물건 옮기기	고강도 노동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96	2.55	2.33	2.70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2	2.52	2.20	2.58
	1년 이상 3년 미만	1.90	2.48	2.19	2.58
	3년 이상 5년 미만	1.92	2.54	2.25	2.63
	5년 이상	2.12	2.72	2.27	2.6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96	2.61	2.29	2.65
	45점 이상 59점 이하	1.99	2.60	2.28	2.66
	60점 이상 79점 이하	1.87	2.46	2.17	2.56
	80점 이상	1.78	2.37	2.12	2.5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89	2.56	2.21	2.59
	조건부수급자	1.86	2.42	2.19	2.59
	자활특례자	2.08	2.68	2.30	2.71
	차상위자	1.96	2.56	2.23	2.58

## (2) 주관적 건강상태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작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이나 작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33.6%),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9.3%),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1.1%)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5년 이상(14.7%),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12.3%), 수급 유형 자활특례자(13.0%)에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울 정도 이상으로 건강이 나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6] 주관적 건강상태(종합)

(단위 : %)



<표 III-14> 주관적 건강상태(특성별)

(단위 : %)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을 못 한다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종합		1.1	9.3	55.9	33.6
성별	남성	1.3	11.6	52.4	34.7
	여성	1.0	7.5	58.7	32.7
연령	29세 이하	.5	4.7	30.8	64.0
	30-39세	1.4	8.1	44.7	45.7
	40-49세	1.2	8.1	56.6	34.1
	50-59세	1.1	10.0	63.0	25.8
	60세 이상	1.4	12.5	62.6	23.6
학력	무학	3.1	15.5	60.8	20.6
	초졸	1.4	14.2	62.6	21.9
	중졸	1.3	11.1	57.8	29.8
	고졸	.8	8.8	54.4	36.0
	대졸	1.2	6.2	55.2	37.4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5	10.2	56.1	32.2
	6개월 이상 1년 미만	.7	8.8	53.1	37.4
	1년 이상 3년 미만	1.1	8.4	56.0	34.5
	3년 이상 5년 미만	1.2	9.7	57.1	32.1
	5년 이상	1.6	13.2	56.0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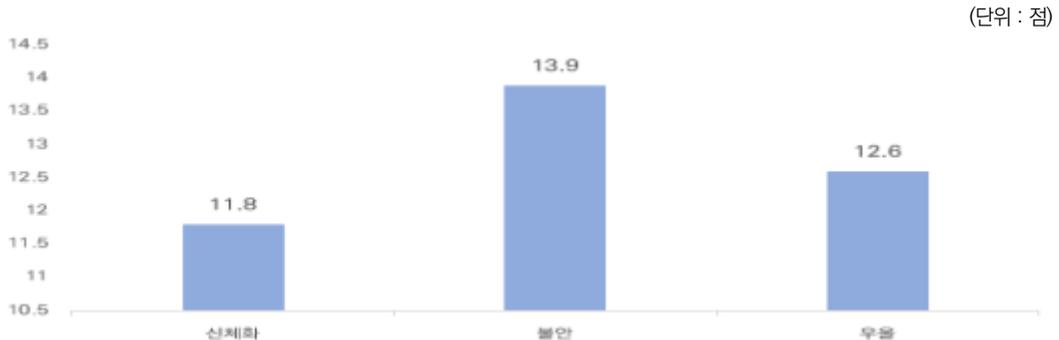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 한다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0	9.0	58.8	31.2
	45점 이상 59점 이하	1.1	11.2	58.3	29.4
	60점 이상 79점 이하	1.2	8.3	54.0	36.5
	80점 이상	1.6	6.7	49.7	42.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3	9.9	55.8	33.0
	조건부수급자	1.1	8.8	53.8	36.3
	자활특례자	1.2	11.8	60.9	26.1
	차상위자	.9	7.1	56.8	35.2

## 2) 정신 건강

### (1) 정신건강(간이정신건강 진단 BSI-18)

참여자의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신체화 평균 11.8점, 우울 평균 13.9점, 불안 평균 12.6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별로는 3년 이상 5년 미만 이 신체화 12.1점, 불안 12.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은 6개월 미만 과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각 14.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활역량점수는 45점 이상 59점 미만에서 모든 유형의 정신 건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유형 중에서는 자활특례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모든 정신 건강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7]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종합)



〈표 III-15〉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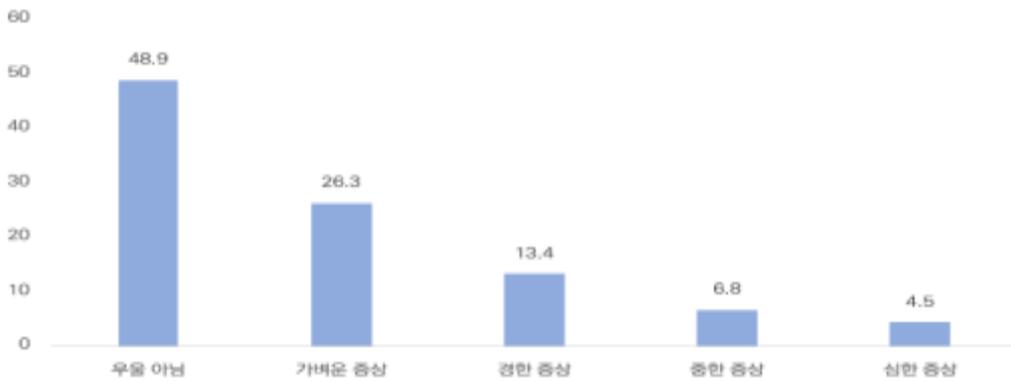
		신체화	불안	우울
종합		11.8	13.9	12.6
성별	남성	11.2	12.0	14.0
	여성	12.2	13.0	13.8
연령	29세 이하	10.1	12.4	13.7
	30-39세	11.2	12.7	14.0
	40-49세	11.9	12.6	13.7
	50-59세	12.2	12.6	14.0
	60세 이상	12.2	12.5	14.2
학력	무학	13.0	13.4	15.3
	초졸	12.8	13.1	15.0
	중졸	12.2	12.6	14.0
	고졸	11.6	12.5	13.8
	대졸	11.3	12.2	13.5
참여기간	6개월 미만	11.3	12.6	14.0
	6개월 이상 1년 미만	11.1	12.2	13.9
	1년 이상 3년 미만	11.8	12.6	14.0
	3년 이상 5년 미만	12.1	12.7	13.9
	5년 이상	11.9	12.5	13.6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11.7	12.3	13.9
	45점 이상 59점 이하	12.1	12.8	14.1
	60점 이상 79점 이하	11.6	12.5	13.8
	80점 이상	11.5	12.5	13.7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1.9	12.6	14.0
	조건부수급자	11.8	12.6	14.1
	자활특례자	12.2	12.7	14.2
	차상위자	11.2	12.1	13.2

(2) 우울

PHQ-9을 사용한 참여자의 우울증 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증상이 6.8%,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증상이 4.5%로 나타났으며 경한 증상도 13.4%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중한 증상 9.1%, 심한 증상 5.3%),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미만(중한 증상 7.5%, 심한 증상 4.9%), 수급유형 중 일반수급자(중한 증상 6.9%, 심한 증상 5.6%)에서 치료가 필요한 우울 증세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8]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종합)

(단위 : %)



<표 Ⅲ-16>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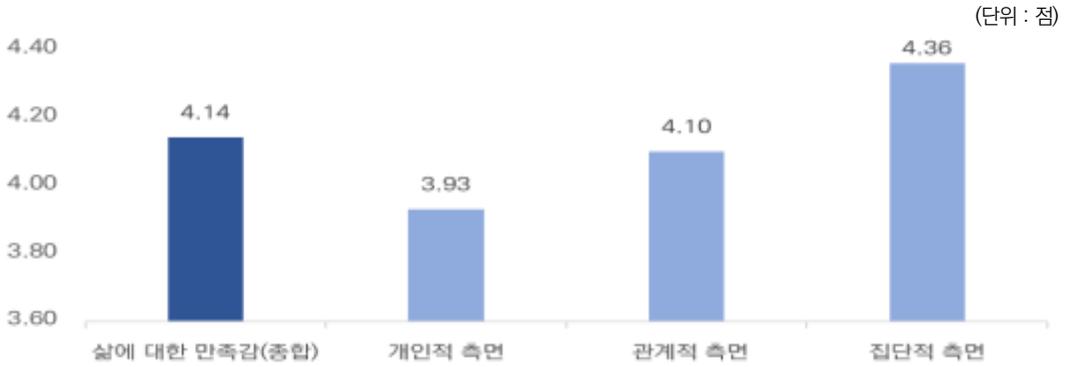
		우울 아님	가벼운 증상	경한 증상	중한 증상	심한 증상
종합		48.9	26.3	13.4	6.8	4.5
성별	남성	50.7	26.4	12.0	6.4	4.5
	여성	47.5	26.2	14.5	7.2	4.5
연령	29세 이하	45.6	27.0	16.4	6.8	4.1
	30-39세	40.4	29.3	17.7	8.9	3.7
	40-49세	48.4	25.9	12.9	6.8	5.9
	50-59세	49.1	27.5	13.1	6.5	3.8
	60세 이상	55.0	23.1	10.8	6.4	4.7

		우울 아님	가벼운 증상	경한 증상	중한 증상	심한 증상
학력	무학	47.4	21.6	13.4	11.3	6.2
	초졸	48.1	23.0	14.8	8.2	6.0
	중졸	48.8	25.8	13.0	5.9	6.5
	고졸	48.4	27.0	13.4	7.3	3.8
	대졸	51.0	26.4	12.9	5.9	3.8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8.5	21.6	15.5	9.1	5.3
	6개월 이상 1년 미만	51.1	25.3	11.6	7.4	4.7
	1년 이상 3년 미만	46.7	28.3	13.8	6.8	4.3
	3년 이상 5년 미만	50.3	25.7	12.6	6.6	4.8
	5년 이상	54.2	21.9	14.5	5.4	4.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1.1	24.3	14.8	6.1	3.7
	45점 이상 59점 이하	46.7	27.3	13.7	7.5	4.9
	60점 이상 79점 이하	50.0	26.1	12.8	6.7	4.5
	80점 이상	49.5	27.3	12.8	6.1	4.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8.8	25.7	13.0	6.9	5.6
	조건부수급자	46.1	27.6	14.9	7.0	4.3
	자활특례자	48.2	28.4	11.9	7.3	4.1
	차상위자	56.8	23.8	10.8	5.2	3.4

### (3) 삶의 만족도

참여자의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14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측면에 대해서는 개인적 측면 3.93점, 관계적 측면 4.10점, 집단적 측면 4.36점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참여기간 6개월 미만(4.01점),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4.07점), 수급유형 중 조건부수급자(4.04점)에서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9] 삶의 만족도(종합)



<표 Ⅲ-17> 삶의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삶에 대한 만족감(종합)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
종합		4.14	3.93	4.10	4.36
성별	남성	4.03	3.84	3.96	4.29
	여성	4.21	4.01	4.22	4.41
연령	29세 이하	4.32	4.05	4.36	4.56
	30-39세	4.03	3.79	3.94	4.36
	40-49세	4.14	3.97	4.14	4.32
	50-59세	4.10	3.91	4.05	4.32
	60세 이상	4.13	3.94	4.08	4.36
학력	무학	4.00	3.80	3.85	4.34
	초졸	4.11	3.83	4.03	4.47
	중졸	4.24	4.03	4.12	4.55
	고졸	4.13	3.91	4.12	4.37
	대졸	4.07	4.01	4.09	4.1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01	3.80	3.97	4.27
	6개월 이상 1년 미만	4.17	3.94	4.16	4.43
	1년 이상 3년 미만	4.07	3.85	4.03	4.33
	3년 이상 5년 미만	4.19	4.03	4.19	4.35
	5년 이상	4.31	4.16	4.25	4.51

		삶에 대한 만족감(종합)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19	3.97	4.16	4.43
	45점 이상 59점 이하	4.07	3.86	4.03	4.30
	60점 이상 79점 이하	4.15	3.96	4.12	4.39
	80점 이상	4.21	4.06	4.20	4.3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13	3.94	4.10	4.35
	조건부수급자	4.04	3.80	4.03	4.30
	자활특례자	4.12	4.01	4.05	4.31
	차상위자	4.39	4.23	4.34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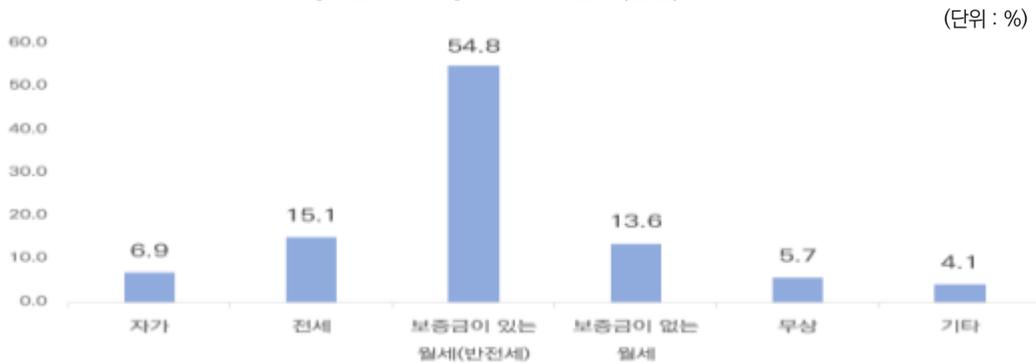
## 4. 주거 특성

### 1) 주거형태

#### (1) 주택 점유 형태 및 주택금액

주택점유 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반전세)가 54.8%로 가장 높으며, 그 뒤 전세(15.1%), 보증금이 없는 월세(13.6%), 자가(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 별로 참여기간 5년 이상(자가 13.8%, 전세 17.4%),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자가 8.8%, 전세 19.8%), 차상위계층(자가 18.2%, 전세 13.9%)에서 자가 및 전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0] 주택점유형태(종합)



〈표 Ⅲ-18〉 주택점유형태(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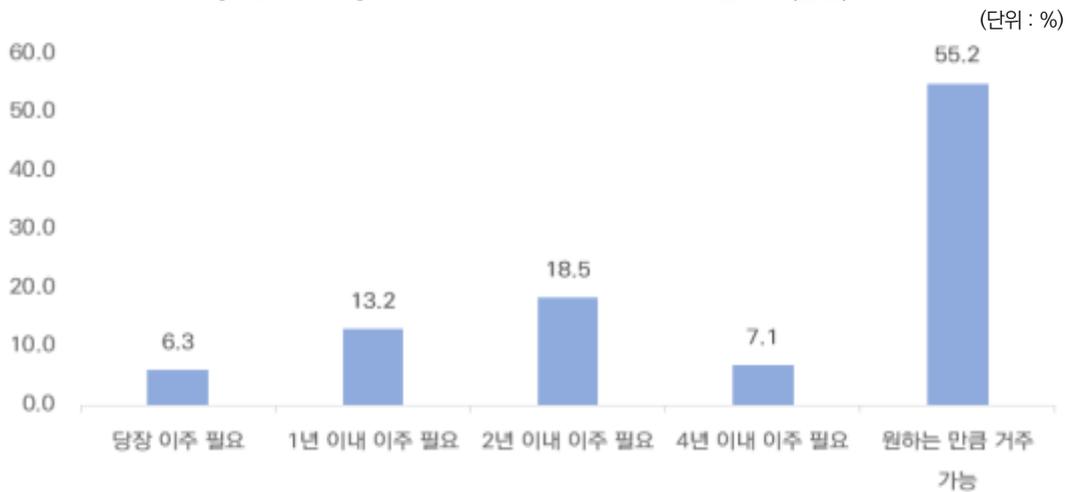
(단위 : %)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반전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상	기타
종합		6.9	15.1	54.8	13.6	5.7	4.1
성별	남성	6.4	13.1	51.2	19.4	5.1	4.8
	여성	7.3	17.0	58.4	7.7	6.2	3.4
연령	29세 이하	6.8	22.3	48.1	6.8	7.6	8.3
	30-39세	5.3	18.9	52.8	11.6	7.5	3.9
	40-49세	5.2	15.7	57.6	10.4	6.4	4.8
	50-59세	7.0	14.7	56.0	14.5	4.2	3.6
	60세 이상	9.3	10.2	56.2	16.9	5.7	1.6
학력	무학	10.3	11.3	50.5	15.5	10.3	2.1
	초졸	11.5	14.8	49.7	16.9	4.4	2.7
	중졸	9.1	12.8	54.0	15.7	5.1	3.4
	고졸	6.3	16.4	56.5	11.4	5.3	4.1
	대졸	5.8	15.8	56.1	10.8	7.4	4.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8	14.8	51.5	16.3	8.0	5.7
	6개월 이상 1년 미만	6.0	13.5	54.3	15.5	4.5	6.1
	1년 이상 3년 미만	5.8	14.8	55.5	14.4	5.6	3.9
	3년 이상 5년 미만	7.5	16.3	57.3	9.5	6.2	3.3
	5년 이상	13.8	17.4	50.9	9.6	5.1	3.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6.6	15.7	53.6	13.3	7.3	3.5
	45점 이상 59점 이하	7.0	13.8	55.4	14.5	5.8	3.5
	60점 이상 79점 이하	6.6	15.5	55.6	12.3	5.4	4.6
	80점 이상	8.8	19.8	55.1	8.3	4.0	4.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6.0	15.1	59.5	10.5	5.2	3.8
	조건부수급자	4.6	16.0	56.6	13.7	5.1	3.9
	자활특례자	4.9	15.1	56.0	16.0	5.6	2.3
	차상위자	18.2	13.9	42.3	12.3	7.5	5.8

## (2) 주거안정성

현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 시기는 원하는 만큼 거주 가능하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2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18.5%), 1년 이내 이주해야 함(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 중 조건부수급자(7.0%)에서 당장 이주해야 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1]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종합)



[그림 III-22]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특성별)

구분		당장 이주 필요	1년 이내 이주 필요	2년 이내 이주 필요	4년 이내 이주 필요	원하는 만큼 거주 가능
종합		6.3	13.2	18.5	7.1	55.2
성별	남성	8.1	14.1	17.7	6.6	53.6
	여성	4.4	12.2	19.2	7.5	56.7
연령	29세 이하	3.6	16.0	17.8	7.2	55.3
	30-39세	4.7	14.4	19.5	8.9	52.4
	40-49세	5.8	14.3	18.0	7.8	54.2
	50-59세	6.4	12.3	19.0	7.6	54.6
	60세 이상	7.8	10.4	18.2	4.5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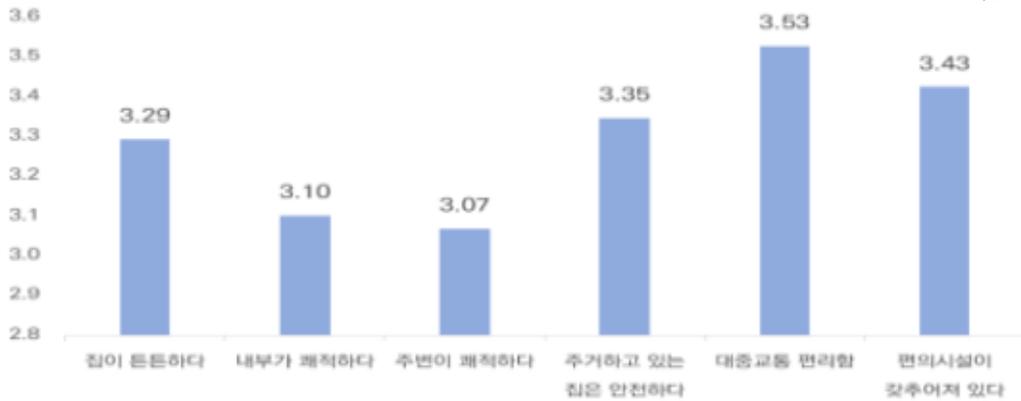
		당장 이주 필요	1년 이내 이주 필요	2년 이내 이주 필요	4년 이내 이주 필요	원하는 만큼 거주 가능
학력	무학	7.2	9.3	21.6	4.1	57.7
	초졸	7.1	10.1	16.7	7.4	58.7
	중졸	5.9	11.6	20.2	5.0	57.3
	고졸	6.0	13.5	18.0	7.3	55.3
	대졸	5.2	11.8	18.9	8.7	55.3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0.6	16.7	23.1	5.7	43.9
	6개월 이상 1년 미만	8.3	16.4	17.3	5.8	52.2
	1년 이상 3년 미만	6.5	14.8	18.9	7.2	52.7
	3년 이상 5년 미만	4.3	9.0	18.8	8.2	59.7
	5년 이상	3.1	8.9	14.5	6.0	67.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6.6	13.1	19.1	6.2	55.0
	45점 이상 59점 이하	6.7	12.7	18.1	7.1	55.4
	60점 이상 79점 이하	5.5	13.4	18.3	7.5	55.3
	80점 이상	4.8	12.0	20.9	7.0	55.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2	13.0	16.9	7.0	57.9
	조건부수급자	7.0	14.3	19.7	7.8	51.2
	자활특례자	6.0	11.8	20.0	6.3	56.0
	차상위자	4.3	9.5	16.1	6.7	63.5

## 2) 주거환경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수준은 대중교통 편리함이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3.43점), 주거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3.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의 내외부 쾌적함에 대한 평가(각 3.10점, 3.07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집의 내외부 쾌적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기간 6개월 미만(3.03점)에서 집 내부 쾌적함이 가장 낮았으며, 집 외부 쾌적함은 1년 이상 3년 미만(3.04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각 3.07점), 수급유형 중 조건부수급자(3.04점, 3.01점)에서 집 내외부 쾌적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23] 주거환경(종합)

(단위 : 점)



<표 III-19> 주거환경(특성별)

(단위 : 점)

		집이 튼튼하다	내부가 쾌적하다	주변이 쾌적하다	주거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	대중교통 편리함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종합		3.29	3.10	3.07	3.35	3.53	3.43
성별	남성	3.25	3.01	3.02	3.30	3.48	3.36
	여성	3.34	3.20	3.11	3.40	3.57	3.50
연령	29세 이하	3.42	3.21	3.06	3.31	3.72	3.65
	30-39세	3.26	3.09	3.00	3.31	3.55	3.50
	40-49세	3.30	3.13	3.09	3.37	3.51	3.44
	50-59세	3.30	3.11	3.09	3.37	3.51	3.41
	60세 이상	3.26	3.06	3.07	3.36	3.48	3.32
학력	무학	3.14	2.98	2.85	3.11	3.29	3.19
	초졸	3.13	2.88	2.92	3.25	3.37	3.25
	중졸	3.24	3.09	3.05	3.33	3.48	3.33
	고졸	3.32	3.15	3.09	3.36	3.59	3.47
	대졸	3.37	3.18	3.15	3.43	3.60	3.51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34	3.03	3.08	3.38	3.45	3.43
	6개월 이상 1년 미만	3.34	3.09	3.06	3.37	3.62	3.54
	1년 이상 3년 미만	3.26	3.07	3.04	3.31	3.53	3.44
	3년 이상 5년 미만	3.32	3.16	3.11	3.41	3.52	3.42
	5년 이상	3.34	3.25	3.20	3.40	3.51	3.34

		집이 튼튼하다	내부가 쾌적하다	주변이 쾌적하다	주거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	대중교통 편리함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28	3.11	3.01	3.36	3.53	3.42
	45점 이상 59점 이하	3.26	3.07	3.07	3.32	3.50	3.39
	60점 이상 79점 이하	3.31	3.13	3.09	3.36	3.56	3.47
	80점 이상	3.43	3.24	3.14	3.49	3.54	3.4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34	3.19	3.07	3.38	3.52	3.42
	조건부수급자	3.27	3.04	3.01	3.30	3.57	3.50
	자활특례자	3.27	3.07	3.08	3.34	3.51	3.41
	차상위자	3.31	3.18	3.24	3.43	3.51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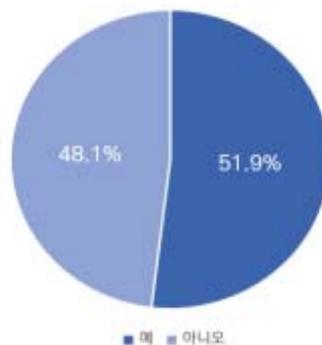
## 5. 가족 및 사회적관계 특성

### 1) 가족형태

#### (1) 동거가족 유무

자활사업 참여자 중 동거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1%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 중 자활특례자(69.5%)에서 동거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4] 동거인 여부(종합)  
(단위: %)



〈표 III-20〉 동거인 여부(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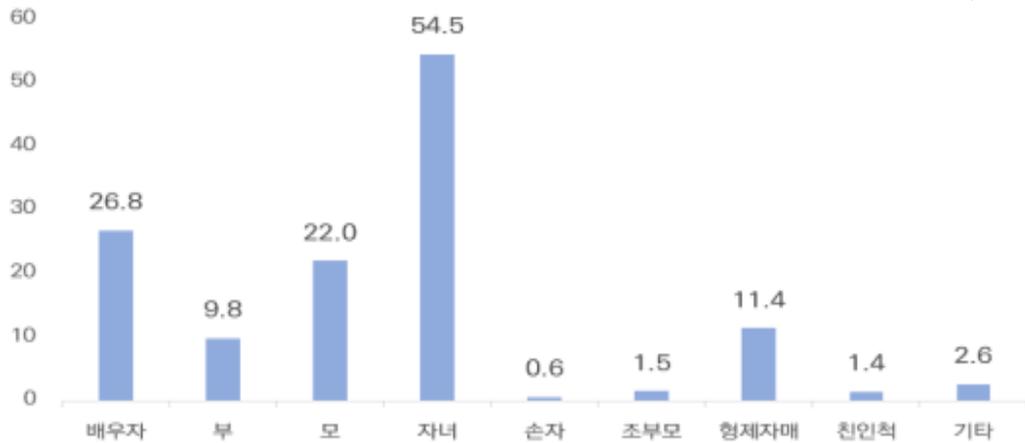
		예	아니오
종합		51.9	48.1
성별	남성	35.9	64.1
	여성	64.6	35.4
연령	29세 이하	75.7	24.3
	30-39세	68.5	31.5
	40-49세	64.3	35.7
	50-59세	45.3	54.7
	60세 이상	28.5	71.5
학력	무학	33.0	67.0
	초졸	33.6	66.4
	중졸	44.7	55.3
	고졸	56.6	43.4
	대졸	57.2	42.8
참여기간	6개월 미만	46.2	53.8
	6개월 이상 1년 미만	49.8	50.2
	1년 이상 3년 미만	48.9	51.1
	3년 이상 5년 미만	55.8	44.2
	5년 이상	62.5	37.5
자활역량 점수	45점 미만	44.6	55.4
	45점 이상 59점 이하	48.2	51.8
	60점 이상 79점 이하	55.6	44.4
	80점 이상	63.4	36.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9.5	50.5
	조건부수급자	61.5	38.5
	자활특례자	30.5	69.5
	차상위자	53.0	47.0

(2) 동거인 형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중 자녀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26.8%), 모(22.0%), 형제자매(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5]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종합)

(단위 : %)



<표 Ⅲ-21>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특성별)

(단위 : %)

		배우자	부	모	자녀	손자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종합		26.8	9.8	22	54.5	0.6	1.5	11.4	1.4	2.6
성별	남성	22.7	11.9	27.3	21.0	0.2	1.1	9.0	1.6	2.5
	여성	18.4	5.1	11.0	49.5	0.5	1.1	8.1	0.7	1.6
연령	29세 이하	1.9	20.1	35.8	8.8	0.0	4.6	25.6	1.2	1.7
	30-39세	14.4	8.5	18.5	47.1	0.0	0.2	7.0	0.8	2.5
	40-49세	20.2	4.7	10.0	56.9	0.2	0.3	4.0	0.9	1.4
	50-59세	25.9	2.0	10.5	48.7	0.3	0.2	2.7	1.1	1.8
	60세 이상	45.0	1.4	7.2	25.2	2.6	0.0	3.7	1.1	3.2
학력	무학	30.8	0.0	12.8	30.8	5.1	0.0	5.1	2.6	5.1
	초졸	33.3	3.9	9.2	39.2	0.7	0.7	5.2	0.7	2.6
	중졸	25.6	5.1	15.2	38.1	1.3	0.8	4.3	1.5	4.1
	고졸	17.5	8.2	16.7	41.8	0.3	1.3	10.0	0.9	1.4
	대졸	18.2	7.9	16.7	42.4	0.0	1.4	8.8	1.1	1.8

		배우자	부	모	자녀	손자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20.0	9.1	20.6	33.3	0.0	0.6	6.1	1.2	2.4
	6개월 이상-1년 미만	13.3	8.6	18.5	34.5	0.0	1.9	12.7	1.1	3.9
	1년 이상-3년 미만	18.2	8.1	18.5	39.0	0.4	1.3	8.5	1.3	1.8
	3년 이상-5년 미만	22.7	5.6	13.7	43.4	0.5	0.7	8.2	0.7	1.6
	5년 이상	25.3	5.6	9.2	46.7	0.6	0.6	5.6	0.6	1.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3.2	6.2	15.0	39.6	1.2	1.7	6.7	1.0	1.7
	45점 이상-59점 이하	22.9	5.3	14.4	41.8	0.5	0.5	7.1	1.0	1.9
	60점 이상-79점 이하	17.6	8.7	17.8	39.5	0.1	1.3	9.1	1.0	2.1
	80점 이상	15.0	8.5	17.1	39.7	0.6	1.5	12.1	1.5	1.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8.7	7.9	16.4	40.6	0.7	1.3	8.2	0.6	2.0
	조건부수급자	17.1	6.8	16.1	44.9	0.3	1.3	8.2	1.0	1.5
	자활특례자	21.4	6.6	21.8	24.9	0.8	0.0	12.8	1.9	4.7
	차상위자	29.2	7.0	12.3	35.4	0.2	0.8	7.8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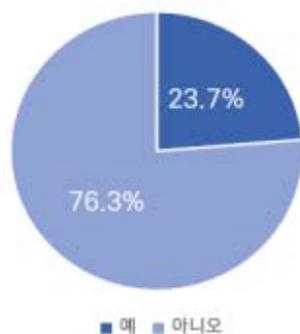
## 2) 돌봄 특성

### (1)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7%로 나타났다. 자활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24.9%),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26.2%), 조건부수급자(29.5%)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6]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종합)

(단위 : %)



〈표 III-22〉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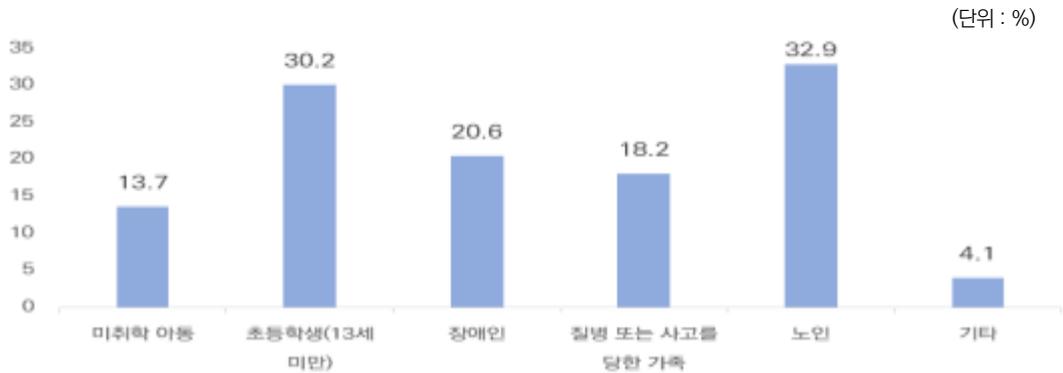
(단위 : %)

		예	아니오
종합		23.7	76.3
성별	남성	18.3	81.7
	여성	27.9	72.1
연령	29세 이하	31.0	69.0
	30-39세	41.7	58.3
	40-49세	31.2	68.8
	50-59세	18.8	81.2
	60세 이상	10.9	89.1
학력	무학	15.5	84.5
	초졸	17.5	82.5
	중졸	19.1	80.9
	고졸	25.1	74.9
	대졸	28.2	71.8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22.7	77.3
	6개월 이상 1년 미만	22.9	77.1
	1년 이상 3년 미만	23.7	76.3
	3년 이상 5년 미만	24.9	75.1
	5년 이상	21.7	78.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2.0	78.0
	45점 이상 59점 이하	21.8	78.2
	60점 이상 79점 이하	25.4	74.6
	80점 이상	26.2	73.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3.4	76.6
	조건부수급자	29.5	70.5
	자활특례자	11.1	88.9
	차상위자	20.7	79.3

## (2)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노인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13세 미만) 30.2%, 장애인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3년 미만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 중 노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3년 이상부터는 초등학생(13세 미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활역량점수가 59점 이하인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으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점 이상부터는 초등학생(13세 미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급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초등학생(13세 미만)의 비율이 29.3%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유형에서는 노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7]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종합)



<표 III-23>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특성별)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13세 미만)	장애인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	노인	기타
종합		13.7	30.2	20.6	18.2	32.9	4.1
성별	남성	6.1	11.3	21.1	15.4	42.4	3.8
	여성	14.3	32.6	15.1	15.0	19.7	3.3
연령	29세 이하	19.5	12.7	28.8	18.5	19.0	1.5
	30-39세	23.9	45.0	10.8	10.0	7.6	2.8
	40-49세	11.4	36.5	12.1	10.5	25.6	4.0
	50-59세	1.9	11.3	20.4	18.8	43.4	4.3
	60세 이상	1.6	8.8	19.2	25.6	40.8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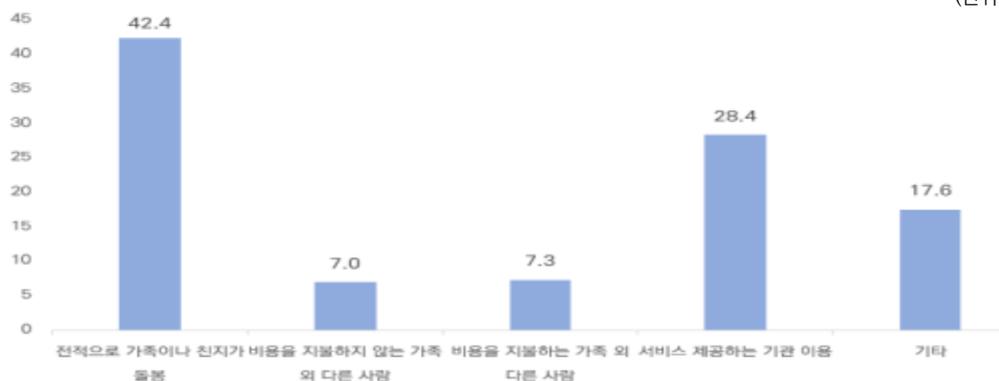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13세 미만)	장애인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	노인	기타
학력	무학	0.0	18.8	12.5	18.8	43.8	6.3
	초졸	8.2	19.2	20.5	26.0	20.5	5.5
	중졸	12.7	21.5	17.1	17.7	29.1	1.9
	고졸	9.7	27.8	17.9	14.3	27.1	3.1
	대졸	13.9	21.7	14.3	15.7	28.3	6.1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0.8	23.0	13.5	14.9	35.1	2.7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1	21.9	16.8	15.5	25.2	2.6
	1년 이상 3년 미만	13.3	21.9	16.0	15.0	29.5	4.2
	3년 이상 5년 미만	7.7	32.7	17.7	14.5	24.3	3.2
	5년 이상	4.3	25.2	25.2	18.3	25.2	1.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1	19.1	19.1	16.9	33.3	4.4
	45점 이상 59점 이하	10.3	25.8	15.3	16.6	28.9	3.1
	60점 이상 79점 이하	13.7	25.6	18.1	14.1	24.8	3.8
	80점 이상	10.5	30.7	16.7	12.3	28.1	1.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9.7	22.8	19.7	14.7	29.2	3.8
	조건부수급자	14.3	29.3	16.7	15.0	22.2	2.6
	자활특례자	1.2	9.6	13.3	22.9	49.4	3.6
	차상위자	9.3	22.7	16.0	13.3	32.0	6.7

### (3) 돌봄서비스 이용방식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으로는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28.4%, 기타 17.6%,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 외 다른 사람 7.3%,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 7.0%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본다는 응답(35.3%)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39.2%)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8]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종합)

(단위 : %)



<표 III-24>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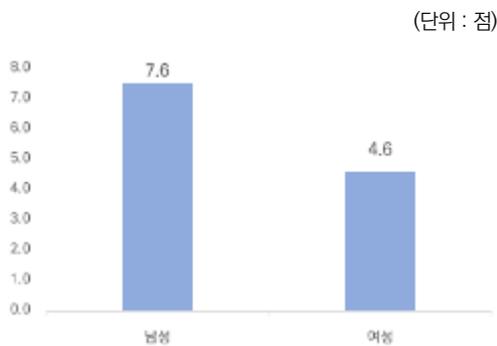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 외 다른 사람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용	기타
종합		42.4	7.0	7.3	28.4	17.6
성별	남성	46.3	7.7	5.5	26.6	13.9
	여성	38.7	6.3	8.0	28.2	18.8
연령	29세 이하	49.4	2.8	5.7	25.0	17.0
	30-39세	33.0	8.4	8.4	30.7	19.5
	40-49세	40.9	9.1	8.5	28.6	12.9
	50-59세	40.8	5.9	6.9	26.8	19.6
	60세 이상	46.5	5.3	3.5	25.4	19.3
학력	무학	31.3	0.0	0.0	37.5	31.3
	초졸	40.9	7.6	6.1	25.8	19.7
	중졸	45.1	7.5	9.8	19.5	18.0
	고졸	39.1	7.1	6.5	29.9	17.4
	대졸	45.2	7.6	8.6	23.9	14.7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6.8	3.2	4.8	25.8	19.4
	6개월 이상-1년 미만	38.8	4.7	7.0	31.8	17.8
	1년 이상-3년 미만	44.2	7.9	8.4	23.2	16.3
	3년 이상-5년 미만	37.9	6.1	4.9	30.6	20.5
	5년 이상	35.3	7.8	8.8	39.2	8.8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 외 다른 사람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용	기타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4.4	7.4	4.3	21.6	22.2
	45점 이상-59점 이하	39.9	6.8	7.3	30.6	15.4
	60점 이상-79점 이하	40.4	6.4	8.3	27.8	17.1
	80점 이상	46.0	8.0	5.0	25.0	16.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2.7	8.5	6.8	24.9	17.2
	조건부수급자	40.4	6.0	7.4	29.9	16.3
	자활특례자	44.0	8.0	8.0	25.3	14.7
	차상위자	38.7	6.3	7.7	26.8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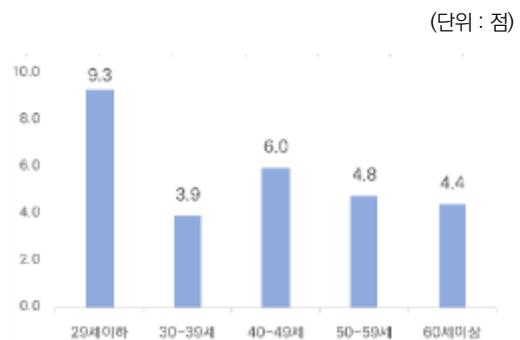
(4) 돌봄서비스 부담 인지 정도

가족 돌봄 부담 인지 정도는 평균 6.57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로는 참여 기간 5년 이상(7.48점), 자활 역량점수 80점 이상 (6.84점), 수급유형 자활특례자 (7.23점)에서 가족 돌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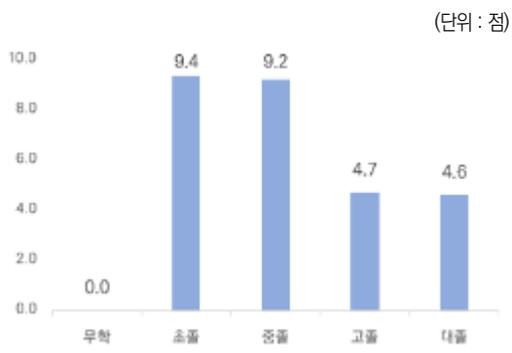
[그림 III-29] 가족 부양 부담 정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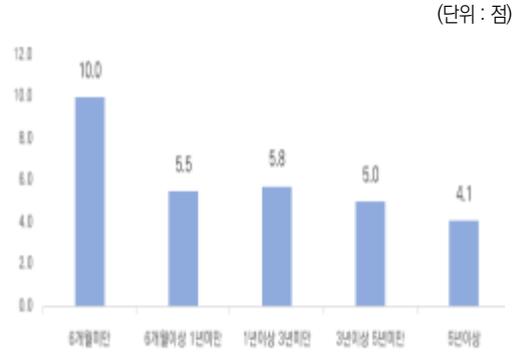
[그림 III-30] 가족 부양 부담 정도(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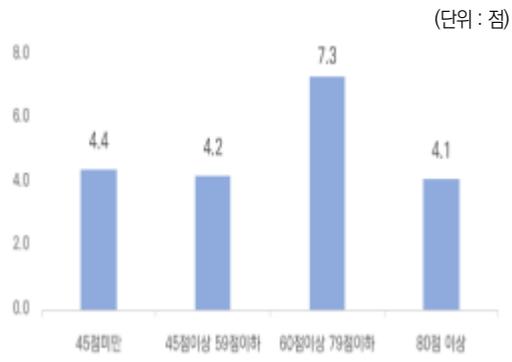
[그림 III-31] 가족 부양 부담 정도(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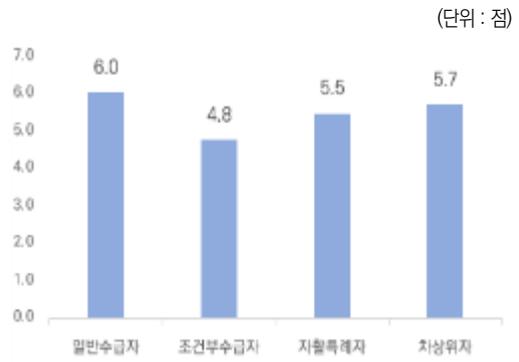
[그림 III-32] 가족 부양 부담 정도(참여기간)



[그림 III-33] 가족 부양 부담 정도(자활역량점수)



[그림 III-34] 가족 부양 부담 정도(수급유형)



〈표 III-25〉 가족 부양 부담 정도

(단위 : %)

		평균	전혀 부담 되지 않음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부담
종합		6.57	5.6	1.2	2.1	1.6	1.6	32.2	5.4	9.8	11.4	5.0	24.3
성별	남성	6.12	7.6	0.8	2.3	2.8	.8	38.3	5.8	9.3	8.8	3.5	20.2
	여성	6.80	4.6	1.4	2.0	.9	2.0	28.9	5.1	10.0	12.8	5.8	26.4
연령	29세 이하	5.70	9.3	1.7	5.2	4.1	2.3	29.1	7.6	13.4	8.1	4.7	14.5
	30-39세	6.80	3.9	1.0	1.0	1.0	3.4	32.2	4.9	7.8	13.7	5.4	25.9
	40-49세	6.62	6.0	0.6	2.6	.9	1.4	31.3	5.7	9.9	11.9	6.0	23.9
	50-59세	6.80	4.8	1.6	1.3	1.3	.6	32.7	4.1	9.5	11.1	4.8	28.3
	60세 이상	6.66	4.4	1.8	0.0	1.8	0.0	38.1	5.3	8.0	11.5	2.7	26.5

		평균	전혀 부담되지 않음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부담
학력	무학	7.27	0.0	0.0	0.0	0.0	0.0	40.0	0.0	13.3	13.3	6.7	26.7
	초졸	6.72	9.4	1.6	0.0	3.1	0.0	28.1	4.7	6.3	9.4	1.6	35.9
	중졸	6.08	9.2	1.5	2.3	1.5	.8	35.4	6.2	10.0	6.9	6.2	20.0
	고졸	6.59	4.7	1.5	2.5	1.5	1.7	31.4	6.2	9.6	11.8	4.7	24.4
	대졸	6.58	4.6	1.0	1.0	1.5	3.1	32.3	4.6	11.3	14.9	5.6	20.0
참여기간	6개월 미만	6.28	10.0	0.0	5.0	3.3	1.7	31.7	1.7	3.3	8.3	6.7	28.3
	6개월 이상 1년 미만	6.65	5.5	.8	3.1	0.0	.8	30.7	5.5	11.8	13.4	5.5	22.8
	1년 이상 3년 미만	6.39	5.8	2.0	2.3	1.4	1.3	34.1	5.0	9.9	12.1	4.5	21.6
	3년 이상 5년 미만	6.62	5.0	.6	1.3	2.5	2.8	31.4	6.6	10.4	9.4	4.1	25.8
	5년 이상	7.48	4.1	0.0	0.0	0.0	0.0	25.8	5.2	8.2	13.4	9.3	34.0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6.64	4.4	1.9	.6	.6	1.3	35.8	6.3	7.5	13.2	4.4	23.9
	45점 이상 59점 이하	6.82	4.2	1.0	2.1	2.4	.5	31.0	4.5	9.7	11.0	6.3	27.3
	60점 이상 79점 이하	6.31	7.3	1.3	2.5	1.5	2.5	31.2	6.0	10.2	11.4	4.4	21.6
	80점 이상	6.84	4.1	0.0	2.0	0.0	1.0	35.7	4.1	11.2	10.2	4.1	27.6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6.56	6.0	1.4	1.7	2.6	.3	32.8	4.3	10.3	10.1	5.2	25.3
	조건부수급자	6.61	4.8	1.7	1.8	.6	1.7	33.6	6.1	9.4	11.2	5.1	24.1
	자활특례자	7.23	5.5	0.0	1.4	0.0	0.0	19.2	9.6	11.0	19.2	5.5	28.8
	차상위자	6.26	5.7	0.0	2.9	2.9	5.0	32.9	4.3	11.4	12.1	3.6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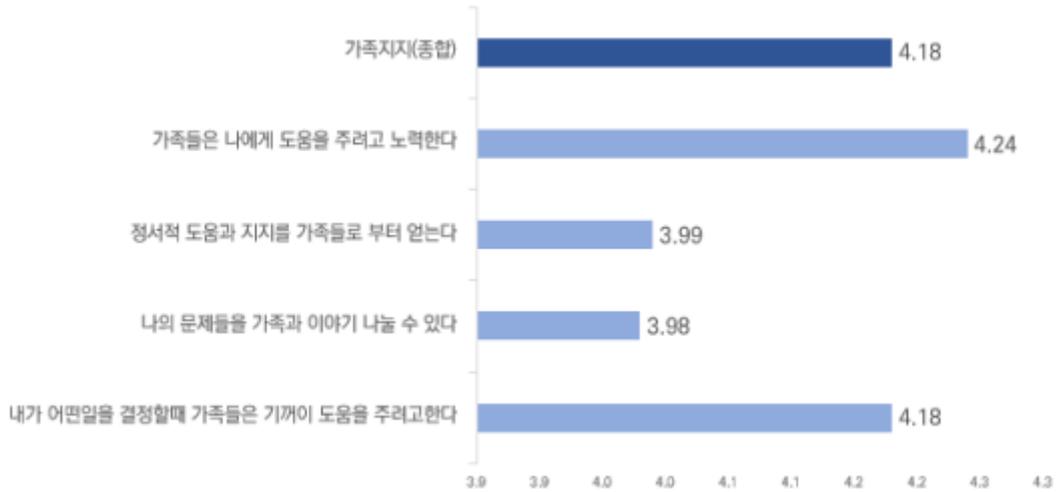
### 3)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 (1) 가족 지지

가족들의 지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7점 만점에 평균 4.1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평가 항목별로는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4.24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4.18점),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3.99점), 나의 문제들을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 가족지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참여기간 5년 이상(4.36점),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4.37점), 수급유형 중 차상위자(4.43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5] 가족지지(종합)

(단위 : 점)



<표 III-26> 가족지지(특성별)

(단위 : 점)

		가족지지 (종합)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 부터 얻는다	나의 문제들을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내가 어떤일을 결정할때 가족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한다
종합		4.10	4.24	3.99	3.98	4.18
성별	남성	3.82	4.03	3.71	3.65	3.88
	여성	4.32	4.40	4.21	4.25	4.42
연령	29세 이하	4.28	4.55	4.12	4.05	4.39
	30-39세	4.14	4.36	4.01	3.94	4.26
	40-49세	4.27	4.44	4.19	4.13	4.34
	50-59세	4.12	4.24	4.02	4.03	4.19
	60세 이상	3.75	3.78	3.62	3.74	3.85
학력	무학	3.19	3.22	3.06	3.14	3.35
	초졸	3.43	3.52	3.29	3.41	3.49
	중졸	3.84	3.95	3.66	3.82	3.93
	고졸	4.17	4.30	4.07	4.05	4.24
	대졸	4.46	4.60	4.38	4.31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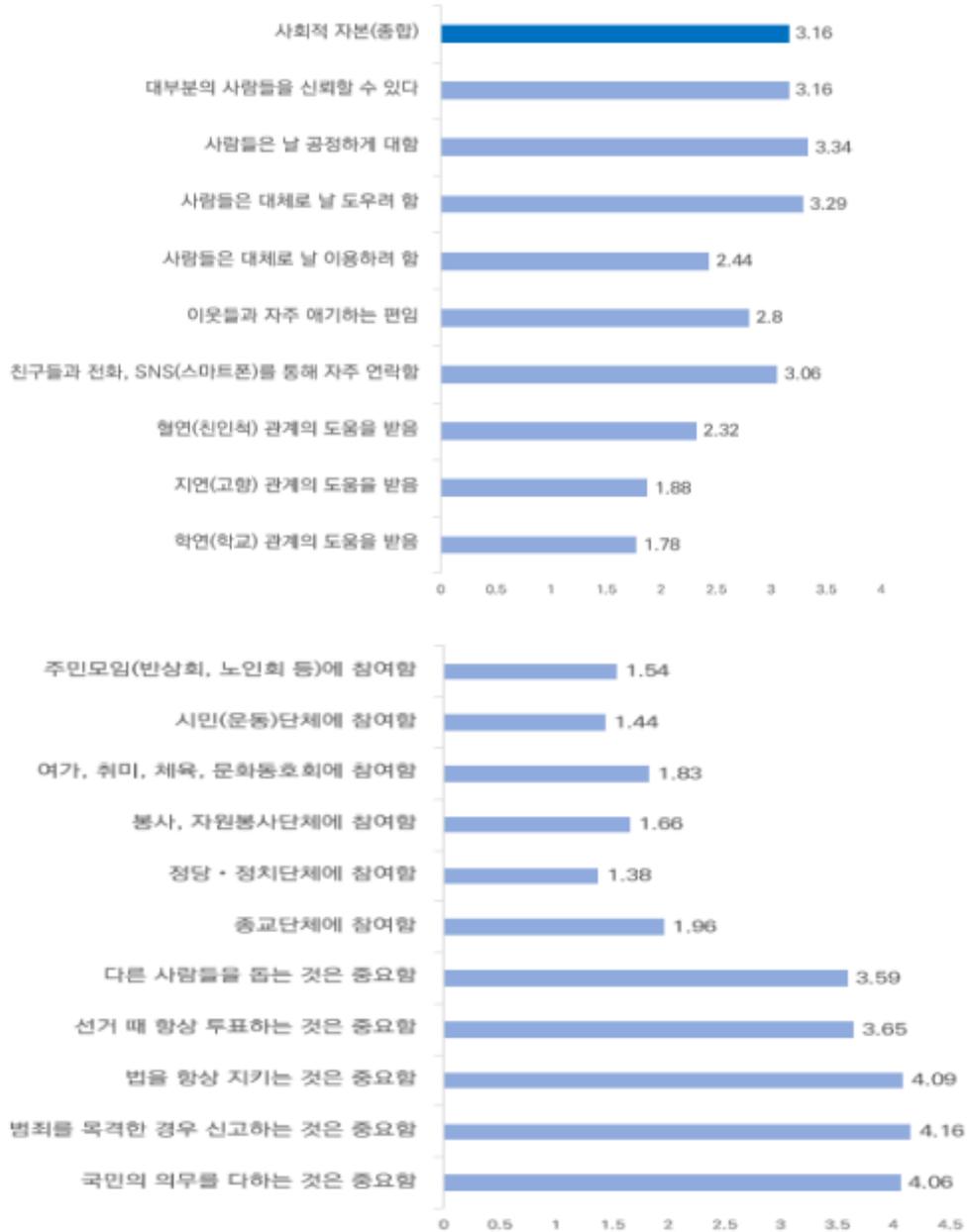
		가족지지 (종합)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 부터 얻는다	나의 문제들을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내가 어떤일을 결정할때 가족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한다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22	4.48	4.10	3.99	4.31
	6개월 이상 1년 미만	3.99	4.20	3.82	3.85	4.12
	1년 이상 3년 미만	4.02	4.17	3.92	3.89	4.11
	3년 이상 5년 미만	4.16	4.26	4.06	4.09	4.24
	5년 이상	4.36	4.44	4.27	4.32	4.4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03	4.15	3.91	3.92	4.14
	45점 이상 59점 이하	4.00	4.13	3.88	3.92	4.07
	60점 이상 79점 이하	4.16	4.32	4.05	4.01	4.25
	80점 이상	4.37	4.45	4.29	4.30	4.4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02	4.16	3.90	3.92	4.11
	조건부수급자	4.11	4.27	4.00	3.97	4.21
	자활특례자	3.82	3.94	3.73	3.74	3.87
	차상위자	4.43	4.52	4.34	4.36	4.51

##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5점 만점에 2.67점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항목별로는 범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4.16점),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중요함(4.09점),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함(4.0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정치 단체에 참여(1.38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5년 이상(2.75점),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2.69점), 수급유형 차상위자(2.75점)에서 종합적인 사회적 자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6] 사회적 자본(종합)

(단위 : 점)



〈표 Ⅲ-27〉 사회적 자본(특성별)

(단위 : 점)

		사회적 자본 (종합)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함	사람들은 대체로 날 도우려 함	사람들은 대체로 날 이용하려 함	이웃들과 자주 얘기하는 편임	친구들과 전화, SNS를 통해 자주 연락함	혈연 관계의 도움을 받음	지연관계 도움을 받음	학연 관계의 도움을 받음
종합		2.67	3.16	3.34	3.29	2.44	2.8	3.06	2.32	1.88	1.78
성별	남성	2.65	3.13	3.31	3.20	2.53	2.70	2.88	2.19	1.90	1.81
	여성	2.69	3.19	3.36	3.36	2.38	2.87	3.21	2.43	1.87	1.76
연령	29세 이하	2.59	3.01	3.41	3.42	2.41	2.12	3.37	2.61	1.94	2.03
	30-39세	2.53	2.92	3.22	3.24	2.54	2.50	3.04	2.28	1.80	1.77
	40-49세	2.62	3.15	3.29	3.29	2.47	2.82	3.00	2.33	1.84	1.76
	50-59세	2.73	3.25	3.36	3.30	2.45	2.95	3.01	2.32	1.92	1.76
	60세 이상	2.74	3.24	3.38	3.21	2.38	3.03	3.06	2.19	1.89	1.70
학력	무학	2.59	3.11	3.16	3.06	2.56	2.87	2.64	1.86	1.77	1.57
	초졸	2.62	3.13	3.33	3.23	2.43	2.92	2.88	1.99	1.72	1.53
	중졸	2.67	3.23	3.34	3.20	2.32	2.97	3.07	2.23	1.94	1.78
	고졸	2.66	3.15	3.33	3.31	2.44	2.75	3.11	2.35	1.87	1.78
	대졸	2.75	3.19	3.37	3.35	2.56	2.76	3.11	2.53	1.94	1.89
참여기간	6개월 미만	2.69	3.07	3.35	3.27	2.51	2.75	2.96	2.31	1.93	1.87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5	3.15	3.38	3.27	2.41	2.70	3.05	2.35	1.88	1.75
	1년 이상 3년 미만	2.65	3.16	3.33	3.27	2.48	2.76	3.04	2.28	1.86	1.76
	3년 이상 5년 미만	2.69	3.17	3.33	3.33	2.41	2.85	3.12	2.35	1.89	1.80
	5년 이상	2.75	3.24	3.37	3.31	2.38	3.00	3.12	2.48	2.00	1.82
자활역량 점수	45점 미만	2.69	3.18	3.33	3.25	2.48	2.89	2.99	2.30	1.89	1.77
	45점 이상 55점 이하	2.68	3.16	3.32	3.27	2.43	2.82	3.04	2.27	1.88	1.77
	60점 이상 75점 이하	2.66	3.17	3.35	3.30	2.43	2.75	3.08	2.34	1.88	1.79
	80점 이상	2.68	3.14	3.40	3.37	2.48	2.75	3.20	2.49	1.89	1.7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66	3.13	3.29	3.25	2.46	2.78	3.09	2.28	1.85	1.75
	조건부수급자	2.64	3.14	3.34	3.28	2.46	2.73	3.05	2.32	1.83	1.77
	자활특례자	2.70	3.22	3.38	3.31	2.43	2.80	2.99	2.25	1.94	1.81
	차상위자	2.75	3.28	3.38	3.36	2.37	3.01	3.13	2.49	2.04	1.79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주민 모임에 참여함	시민 단체에 참여함	여가, 취미, 체육, 문화 동호회에 참여함	봉사 단체에 참여함	정당정치 단체에 참여함	종교 단체에 참여함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함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은 중요함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중요함	범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는 것은 중요함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함
종합		1.54	1.44	1.83	1.66	1.38	1.96	3.59	3.65	4.09	4.16	4.06
성별	남성	1.56	1.50	1.91	1.67	1.45	1.82	3.51	3.65	4.05	4.12	4.05
	여성	1.52	1.40	1.76	1.65	1.33	2.06	3.66	3.65	4.12	4.18	4.07
연령	29세 이하	1.28	1.27	1.74	1.48	1.21	1.55	3.60	3.33	4.03	4.18	3.89
	30-39세	1.42	1.33	1.77	1.50	1.29	1.70	3.39	3.20	3.89	4.05	3.80
	40-49세	1.51	1.39	1.79	1.62	1.33	1.91	3.52	3.48	3.97	4.11	3.93
	50-59세	1.57	1.49	1.87	1.72	1.41	2.05	3.68	3.81	4.19	4.23	4.19
	60세 이상	1.70	1.58	1.88	1.77	1.52	2.20	3.63	3.97	4.20	4.14	4.20
학력	무학	1.75	1.41	1.59	1.53	1.37	1.84	3.51	3.84	4.21	4.12	4.08
	초졸	1.57	1.43	1.70	1.63	1.39	1.92	3.49	3.81	4.10	4.09	4.10
	중졸	1.61	1.47	1.83	1.69	1.40	1.84	3.53	3.58	4.07	4.15	4.07
	고졸	1.50	1.41	1.82	1.62	1.35	1.89	3.60	3.60	4.08	4.15	4.04
	대졸	1.53	1.52	1.95	1.77	1.45	2.20	3.71	3.80	4.14	4.18	4.10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60	1.48	1.89	1.72	1.37	2.04	3.59	3.63	4.11	4.20	4.10
	6개월 이상 1년 미만	1.47	1.41	1.82	1.63	1.35	1.80	3.58	3.57	4.10	4.19	4.06
	1년 이상 3년 미만	1.50	1.44	1.82	1.66	1.39	1.90	3.59	3.61	4.07	4.15	4.04
	3년 이상 5년 미만	1.56	1.43	1.84	1.65	1.37	2.04	3.61	3.69	4.11	4.13	4.08
	5년 이상	1.71	1.50	1.82	1.71	1.43	2.17	3.59	3.88	4.13	4.19	4.1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58	1.46	1.84	1.64	1.40	1.94	3.64	3.71	4.13	4.21	4.13
	45점 이상 59점 이하	1.58	1.48	1.80	1.67	1.41	2.00	3.59	3.69	4.10	4.15	4.06
	60점 이상 79점 이하	1.50	1.41	1.86	1.66	1.36	1.94	3.57	3.60	4.06	4.12	4.02
	80점 이상	1.45	1.37	1.76	1.62	1.30	1.89	3.67	3.63	4.16	4.26	4.11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52	1.45	1.80	1.64	1.37	1.94	3.61	3.67	4.10	4.17	4.07
	조건부수급자	1.46	1.40	1.81	1.62	1.36	1.86	3.57	3.54	4.04	4.16	4.02
	자활특례자	1.61	1.53	1.94	1.75	1.43	2.03	3.57	3.73	4.15	4.11	4.09
	차상위자	1.69	1.45	1.81	1.70	1.43	2.14	3.64	3.82	4.15	4.15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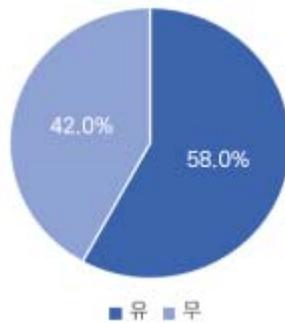
## 6. 사회서비스 이용

### 1)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1)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8.0%,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 참여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52.7%),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과 80점 이상(각 43.6%),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47.4%)에서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종합)



〈표 III-29〉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특성별)

(단위 : %)

		유	무
종합		58.0	42.0
성별	남성	50.2	49.8
	여성	64.2	35.8
연령	29세 이하	35.7	64.3
	30-39세	44.9	55.1
	40-49세	60.5	39.5
	50-59세	62.4	37.6
	60세 이상	66.5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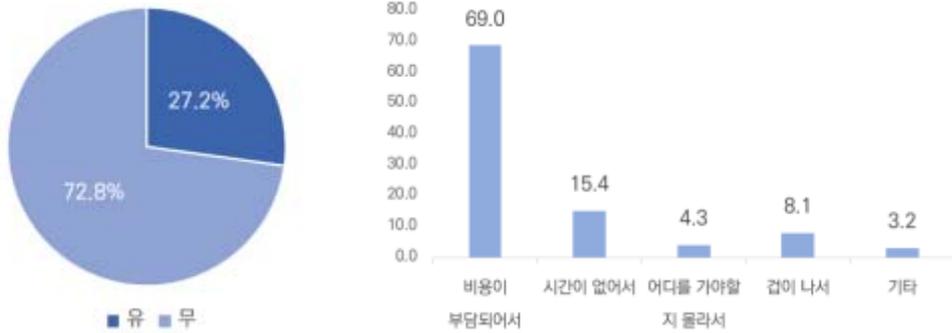
		유	무
학력	무학	64.9	35.1
	초졸	62.0	38.0
	중졸	59.1	40.9
	고졸	56.9	43.1
	대졸	62.1	37.9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50.4	49.6
	6개월 이상 1년 미만	47.3	52.7
	1년 이상 3년 미만	55.7	44.3
	3년 이상 5년 미만	64.7	35.3
	5년 이상	69.0	31.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6.4	43.6
	45점 이상 59점 이하	59.9	40.1
	60점 이상 79점 이하	57.3	42.7
	80점 이상	56.4	43.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8.3	41.7
	조건부수급자	52.6	47.4
	자활특례자	61.1	38.9
	차상위자	71.2	28.8

## (2)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및 이유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없어서(15.4%), 겁이 나서(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29.1%), 수급유형 차상위자(28.7%)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7] 의료 이용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종합)

(단위 : %)



〈표 III-30〉 지난 1년간 의료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특성별)

(단위 : %)

		지난 1년간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유	무	비용이 부담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할 지 몰라서	겉이 나서	기타
종합		27.2	72.8	69.0	15.4	4.3	8.1	3.2
성별	남성	26.7	73.3	71.6	12.1	5.4	7.6	3.3
	여성	27.6	72.4	67.0	17.8	3.5	8.5	3.2
연령	29세 이하	18.0	82.0	64.0	20.0	7.0	5.0	4.0
	30-39세	26.6	73.4	73.3	11.5	3.1	6.9	5.3
	40-49세	25.8	74.2	68.7	16.2	2.7	8.6	3.8
	50-59세	30.7	69.3	68.2	15.3	3.9	9.5	3.1
	60세 이상	28.1	71.9	70.4	14.8	6.2	6.9	1.7
학력	무학	21.6	78.4	52.4	33.3	4.8	0.0	9.5
	초졸	27.9	72.1	62.7	12.7	6.9	12.7	4.9
	중졸	27.9	72.1	65.8	19.5	4.2	8.4	2.1
	고졸	27.0	73.0	70.6	13.9	4.2	7.7	3.6
	대졸	26.0	74.0	63.9	20.6	4.4	6.7	4.4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2.2	67.8	82.4	5.9	4.7	7.1	0.0
	6개월 이상-1년 미만	29.1	70.9	74.5	6.2	5.6	8.7	5.0
	1년 이상-3년 미만	27.6	72.4	69.9	15.1	3.9	7.7	3.4
	3년 이상-5년 미만	25.6	74.4	62.1	22.0	4.6	8.6	2.8
	5년 이상	24.1	75.9	65.7	17.6	3.7	9.3	3.7

		지난 1년간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유	무	비용이 부담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할 지 몰라서	겁이 나서	기타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6.5	73.5	63.5	16.1	8.3	7.8	4.2
	45점 이상-59점 이하	28.8	71.2	69.4	16.5	3.0	7.3	3.8
	60점 이상-79점 이하	25.6	74.4	69.4	14.5	4.4	9.4	2.3
	80점 이상	29.1	70.9	74.3	12.8	2.8	6.4	3.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8.3	71.7	65.8	21.4	3.6	6.9	2.4
	조건부수급자	26.3	73.7	69.1	11.3	5.1	10.5	3.9
	자활특례자	23.5	76.5	59.7	20.1	5.8	10.4	3.9
	차상위자	28.7	71.3	77.8	12.4	2.1	3.6	4.1

## 2)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 (1)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16.6%), 근로자 능력 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특성별로 살펴보면, 수급유형 중 차상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역량점수가 80점 이상(54.0%)에서 참여율이 크게 높게 나타났다. 수급유형 차상위자에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희망근로)이 24.7%로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기타를 제외,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이 3.4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3.33점), 청년 인턴 관련 프로그램(3.3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참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은 취업성공패키지(3.70)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노인일자리(4.00점),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3.44점), 3년 이상 5년 미만 노인일자리(3.50점), 5년 이상은 직장체험 연구 관련 프로그램(3.65점)으로 나타났다. 자활역량점수별로는 45점 미만은 취업성공패키지(3.47점), 45점 이상 59점 이하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3.48점), 60점 이상 79점 이하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3.44점), 80점 이상 청년 인턴 제도

관련 프로그램(3.67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유형별로는 일반수급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각 3.38점),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3.58점), 자활특례자 노인일자리(3.44 점), 차상위자는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3.57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III-38]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종합)



<표 III-31>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특성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직장체험연수 관련 프로그램	실업자 직장훈련 관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청년 인턴제도 관련 프로그램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관련 프로그램	취업성공패 키지	기타
종합		16.6	3.7	5.5	4.7	8.1	5.8	1.7	8.3	26.1	0.8
성별	남성	17.4	3.8	4.9	4.6	7.0	5.7	1.7	7.2	21.1	0.7
	여성	16.0	3.5	5.9	4.8	8.9	5.9	1.8	9.2	30.1	0.8
연령	29세 이하	9.2	-	4.7	4.0	4.5	4.3	4.0	6.1	45.0	1.4
	30-39세	13.6	-	5.3	4.3	6.5	3.7	2.8	7.9	40.7	0.4
	40-49세	17.1	-	5.7	5.0	9.7	6.3	1.9	10.3	29.4	0.4
	50-59세	16.7	-	5.9	5.2	9.7	6.6	1.1	9.5	22.2	0.8
	60세 이상	21.4	3.7	5.1	4.1	6.4	5.9	0.9	5.4	11.7	0.9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직장체험연 수관련 프로그램	실업자 직장훈련 관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청년 인턴제도 관련 프로그램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관련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	기타
학력	무학	19.6	5.2	5.2	1.0	4.1	2.1	3.1	4.1	13.4	2.1
	초졸	22.4	3.6	6.0	4.6	5.7	6.3	1.1	7.4	11.7	0.5
	중졸	19.6	3.9	5.7	3.7	6.3	4.4	0.7	7.6	16.7	0.4
	고졸	14.8	4.4	5.7	5.0	8.3	6.6	1.8	8.6	28.4	0.9
	대졸	17.3	1.9	4.3	4.3	10.4	5.6	2.3	11.4	36.6	0.3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7.0	2.0	4.2	3.8	8.0	4.5	2.3	6.4	24.2	1.1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2	4.0	5.8	4.0	5.8	3.8	1.3	5.8	24.5	1.6
	1년 이상 3년 미만	15.9	4.4	4.9	4.6	7.3	5.3	1.9	7.6	25.0	0.5
	3년 이상 5년 미만	16.6	3.2	6.6	5.1	10.8	6.8	1.4	10.5	29.2	0.6
	5년 이상	18.3	2.5	5.8	5.8	7.6	8.9	1.8	9.8	25.9	1.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5.3	4.9	5.8	5.1	6.4	4.7	1.4	5.8	22.0	1.1
	45점 이상 59점 이하	17.4	2.6	5.4	4.5	8.3	5.4	1.3	7.4	20.3	0.7
	60점 이상 79점 이하	16.5	4.2	5.5	4.9	7.8	6.0	2.2	8.5	27.4	0.7
	80점 이상	16.0	4.5	5.3	4.3	11.5	9.1	1.6	15.8	54.0	0.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5.2	3.1	6.5	5.0	9.1	6.9	1.3	9.5	25.4	0.9
	조건부수급자	14.4	2.8	4.7	3.5	6.2	4.6	1.5	7.0	30.6	0.7
	자활특례자	17.6	4.4	5.2	6.7	10.1	6.3	2.1	9.8	24.0	0.8
	차상위자	24.7	5.6	6.4	5.5	8.9	7.0	2.4	8.6	17.9	0.3

[그림 III-39]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종합)

(단위 : 점)



〈표 III-32〉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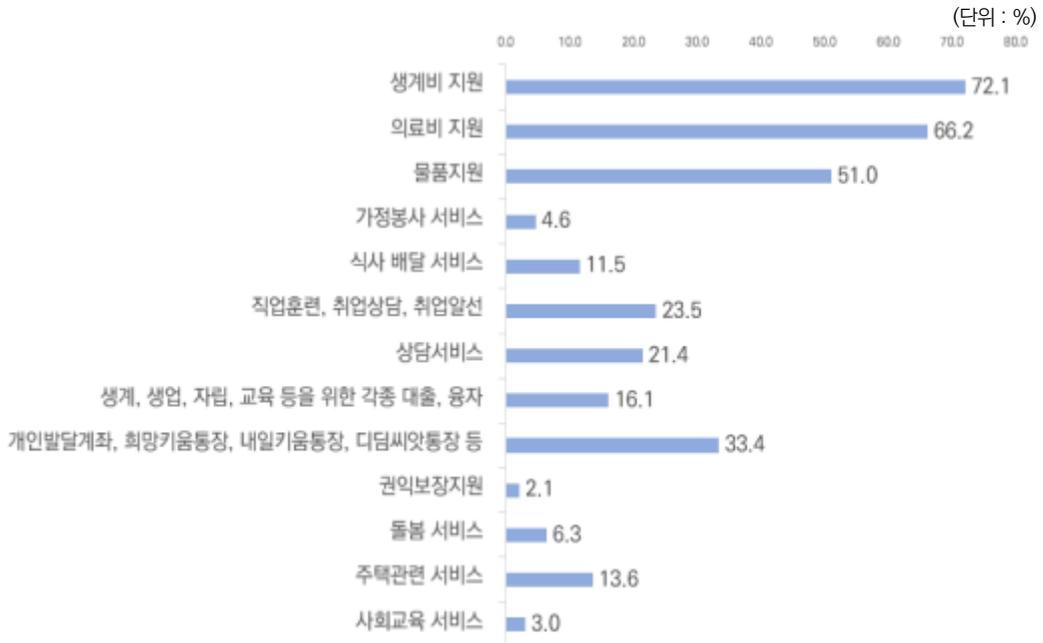
(단위 : 점)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직장체험 연수관련 프로그램	실업자 직상훈련 관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청년 인턴제도 관련 프로그램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관련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	기타
종합		3.28	3.16	3.21	3.25	3.24	3.24	3.31	3.42	3.33	3.67
성별	남성	3.18	3.14	3.13	3.15	3.15	3.17	3.19	3.32	3.16	3.63
	여성	3.39	3.18	3.29	3.35	3.33	3.31	3.42	3.53	3.50	3.71
연령	29세 이하	3.43	-	3.54	3.68	3.44	3.38	3.73	3.56	3.41	4.25
	30-39세	3.67	-	3.38	3.24	3.41	3.39	3.43	3.59	3.30	3.50
	40-49세	3.34	-	3.19	3.30	3.19	3.24	2.95	3.41	3.41	2.75
	50-59세	3.23	-	3.19	3.13	3.25	3.23	3.28	3.43	3.41	3.71
	60세 이상	3.18	3.16	3.09	3.29	3.27	3.20	3.11	3.43	3.26	3.56
학력	무학	3.32	3.00	3.20	3.00	2.75	3.00	3.00	3.00	2.54	3.00
	초졸	3.44	3.71	3.09	3.18	3.05	3.22	2.75	3.70	3.28	3.50
	중졸	3.36	3.25	3.13	3.08	3.19	3.33	2.80	3.40	3.34	4.67
	고졸	3.20	2.80	3.25	3.30	3.32	3.17	3.28	3.43	3.41	3.59
	대졸	3.27	3.00	3.17	3.23	3.24	3.44	3.56	3.46	3.30	4.50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47	3.00	3.27	3.40	3.24	3.42	3.33	3.53	3.70	3.33
	6개월 이상 1년 미만	3.35	4.00	3.34	3.14	3.38	3.62	3.43	3.66	3.38	4.00
	1년 이상 3년 미만	3.28	2.85	3.23	3.23	3.16	3.19	3.27	3.44	3.33	3.92
	3년 이상 5년 미만	3.28	3.50	3.15	3.17	3.30	3.14	3.44	3.38	3.42	3.25
	5년 이상	3.20	3.00	3.23	3.65	3.47	3.43	3.25	3.50	3.33	3.4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27	3.10	3.21	3.24	3.28	3.15	3.40	3.24	3.47	3.88
	45점 이상 59점 이하	3.28	3.17	3.18	3.31	3.17	3.28	3.00	3.48	3.33	3.31
	60점 이상 79점 이하	3.29	3.14	3.27	3.21	3.29	3.28	3.42	3.44	3.40	3.93
	80점 이상	3.40	3.50	3.20	3.38	3.42	3.18	3.67	3.54	3.36	3.5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38	2.70	3.19	3.19	3.33	3.18	3.15	3.33	3.38	3.57
	조간부수급자	3.27	3.57	3.24	3.28	3.22	3.26	3.50	3.58	3.35	3.85
	자활특례자	3.16	3.44	3.09	3.27	3.17	3.20	3.21	3.33	3.34	3.80
	차상위자	3.27	3.08	3.37	3.35	3.32	3.36	3.31	3.57	3.39	3.50

## (2)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

자활사업 참여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서비스로는 생계비 지원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66.2%), 물품지원(5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생계비 지원을 이용해 보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수급유형 중 자활특례자는 의료비 지원(74.2%), 차상위자는 물품지원(44.7%)의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생계비 지원을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그림 III-40] 사회서비스 이용현황(종합)



〈표 Ⅲ-33〉 사회서비스 이용현황(특성별)

(단위 : %)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가정 봉사	식사 배달	직업 훈련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상담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용자	개인 발달 계좌 희망 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 디딤 씨앗 통장 등	권익 보장 지원	돌봄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사회 교육 서비스
종합		72.1	66.2	51.0	4.6	11.5	23.5	21.4	16.1	33.4	2.1	6.3	13.6	3.0
성별	남성	71.8	66.2	52.8	5.2	13.2	22.2	21.1	14.4	26.9	2.6	4.4	13.1	2.8
	여성	72.2	66.2	49.7	4.2	10.1	24.5	21.7	17.4	38.5	1.6	7.9	14.0	3.1
연령	29세 이하	73.3	76.6	48.3	5.6	12.6	35.7	20.7	14.1	32.1	1.1	5.9	11.5	1.8
	30-39세	79.3	66.1	53.9	4.5	15.0	34.6	29.1	17.1	29.3	2.2	15.0	13.4	4.7
	40-49세	79.0	66.4	51.2	5.1	13.3	23.0	23.0	18.6	39.2	2.4	9.5	15.0	2.7
	50-59세	69.8	65.4	50.5	4.2	10.4	19.0	19.2	16.5	33.5	2.1	4.4	14.2	2.7
	60세 이상	64.0	61.7	51.9	4.3	9.0	19.5	19.9	13.4	29.6	2.1	2.1	12.3	3.5
학력	무학	60.8	61.9	57.7	10.3	13.4	16.5	25.8	19.6	33.0	3.1	5.2	18.6	2.1
	초졸	71.0	65.3	57.7	6.3	12.0	19.4	26.2	19.9	26.8	3.0	3.8	15.3	5.7
	중졸	66.6	64.2	48.2	4.5	12.2	17.7	20.8	17.6	31.4	2.6	5.1	13.9	3.2
	고졸	73.5	67.7	51.2	4.7	11.5	24.7	21.6	16.8	35.5	2.2	6.8	14.1	3.0
	대졸	73.1	67.2	53.2	3.6	11.8	26.9	21.1	12.4	39.6	1.4	6.9	13.2	3.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81.1	57.2	42.4	4.2	10.6	24.6	15.5	11.4	9.8	0.8	4.2	9.5	1.5
	6개월 이상 1년 미만	75.3	62.5	43.0	2.0	7.8	27.3	17.1	12.8	12.1	1.1	5.1	7.8	1.4
	1년 이상 3년 미만	72.4	66.9	50.7	4.4	11.1	21.7	21.2	16.0	28.9	2.0	6.2	11.5	2.6
	3년 이상 5년 미만	69.2	67.5	55.0	5.9	12.8	24.3	23.3	18.2	49.3	2.7	7.2	18.4	4.1
	5년 이상	69.2	68.8	56.7	6.3	15.2	25.4	25.9	17.6	51.8	2.5	7.4	20.3	4.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2.1	65.7	50.6	3.7	10.6	22.8	18.1	14.8	30.4	2.2	4.6	13.5	1.8
	45점 이상 59점 이하	71.4	65.8	51.0	4.5	11.8	20.3	22.0	16.1	33.1	2.2	5.8	15.1	3.3
	60점 이상 79점 이하	71.9	65.9	51.2	4.7	11.9	23.3	21.3	16.3	34.3	2.1	7.0	12.5	3.0
	80점 이상	75.9	70.1	51.3	6.7	9.6	40.9	25.4	17.6	35.3	1.1	8.6	12.3	3.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73.1	72.2	55.4	4.9	12.2	24.2	22.8	16.3	39.7	2.3	7.3	15.6	3.2
	조건부수급자	82.4	74.3	49.7	4.7	12.6	24.6	20.4	16.3	26.4	2.1	8.0	12.7	2.4
	자활특례자	68.4	74.2	54.2	4.3	10.4	21.2	22.0	16.3	41.2	2.0	2.4	14.8	4.7
	차상위자	41.6	25.4	44.7	4.1	8.0	21.0	22.3	16.3	38.6	2.1	4.0	12.0	3.0



# IV

## 자활사업 참여 실태

---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2. 자활 참여자 경제적 자활
3. 자활 참여자 정서적 자활
4. 자활사업 만족도
5. 향후 근로 관련 욕구



# IV

## 자활사업 참여 실태 《

###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 1) 자활사업 참여 시기 및 자활사업 참여 이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유로는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가 5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30.5%),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29.3%),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나빠져서(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자활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가 자활사업 참여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IV-1] 자활사업 참여이유(1순위+2위)(종합)

(단위 : %)



〈표 IV-1〉 자활사업 참여 이유(1순위+2순위)(특성별)

(단위 : %)

		생활비지출 이 늘어서	소득이 줄어서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나빠져서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타
종합		50.5	24.5	21.4	30.5	27.6	8.1	29.7	7.7
성별	남성	47.3	23.5	25.6	32.2	27.9	7.8	29.8	6.0
	여성	53.0	25.4	18.0	29.1	27.4	8.4	29.6	9.0
연령	29세 이하	51.5	18.7	8.3	38.6	13.5	7.4	45.0	16.9
	30-39세	52.6	21.5	21.5	31.9	23.0	10.0	29.5	10.0
	40-49세	50.8	23.8	20.2	30.1	31.8	7.6	27.2	8.4
	50-59세	49.0	24.7	23.7	30.3	32.4	7.9	26.8	5.2
	60세 이상	51.1	29.5	25.7	26.3	25.1	8.5	29.1	4.7
학력	무학	53.6	29.9	24.7	18.6	21.6	14.4	32.0	5.2
	초졸	51.1	26.2	24.9	19.9	35.2	8.5	29.0	5.2
	중졸	53.4	27.0	22.7	23.3	29.3	8.8	29.9	5.6
	고졸	51.3	22.0	21.0	31.6	28.2	8.2	29.3	8.3
	대졸	42.3	28.6	20.1	39.2	25.3	6.2	29.6	8.7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54.9	26.5	19.7	27.7	17.0	6.4	39.4	8.3
	6개월 이상-1년 미만	51.6	26.0	19.7	30.5	21.7	6.5	35.9	8.1
	1년 이상-3년 미만	46.9	25.5	22.9	32.5	27.5	7.6	29.9	7.1
	3년 이상-5년 미만	52.4	22.8	20.9	29.2	30.6	10.7	25.1	8.3
	5년 이상	59.8	21.4	17.9	25.4	33.0	6.3	28.6	7.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2.1	28.9	18.2	27.8	29.8	9.0	27.2	7.0
	45점 이상-59점 이하	50.1	23.5	23.4	28.2	29.0	9.0	30.3	6.5
	60점 이상-79점 이하	50.9	24.8	21.5	31.7	26.6	7.0	29.2	8.4
	80점 이상	47.3	19.5	17.1	40.4	22.5	8.6	34.8	9.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8.3	24.7	22.8	30.6	29.1	9.0	27.4	8.1
	조건부수급자	49.4	22.3	20.3	29.9	26.1	7.2	37.2	7.5
	자활특례자	48.4	22.6	24.0	31.9	33.3	8.2	25.6	6.0
	차상위자	58.0	31.4	19.1	31.5	27.1	9.2	15.7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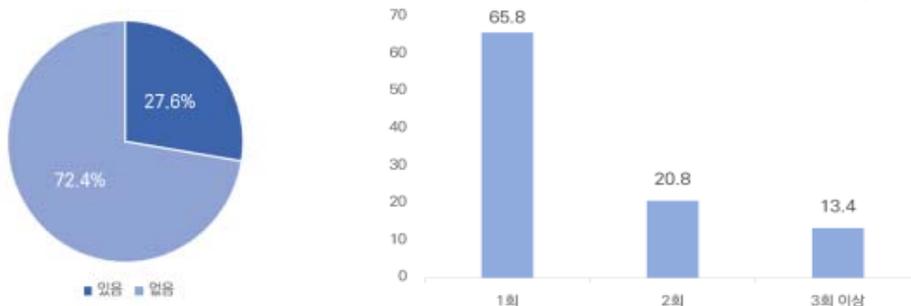
## 2) 사업단 이동 경험 여부

### (1) 사업단 이동경험 및 횟수

자활사업 참여자 중 사업단을 이동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으며, 사업단 이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이동 횟수 평균은 1.54회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29.3%), 수급유형 차상위자(34.0%)에서 사업단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 횟수 평균은 참여기간별로는 참여기간 5년 이상이 1.88회로 가장 높았으나 6개월 미만은 1.79회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1.63회), 차상위자(1.56회)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이동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 사업단 이동 경험 및 이동횟수(종합)

(단위 : %)



<표 IV-2> 사업단 이용경험 및 횟수(특성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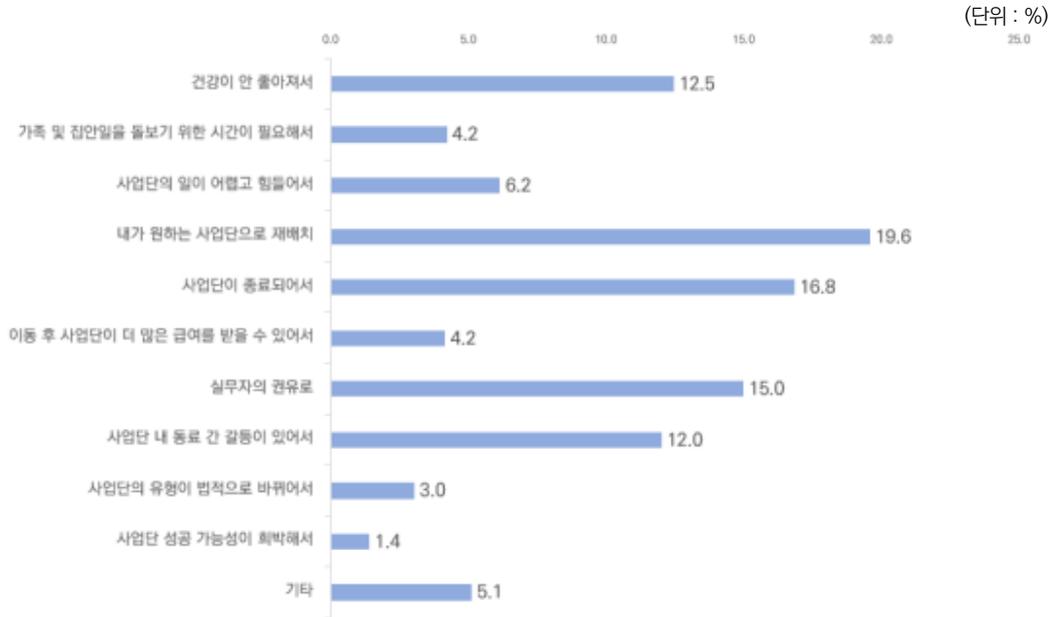
		사업단 이동 경험		사업단 이동횟수(구간)			사업단 이동 횟수 평균
		있음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종합		27.6	72.4	65.8	20.8	13.4	1.54
성별	남성	26.9	73.1	63.5	23.5	13.0	1.56
	여성	28.1	71.9	67.6	18.7	13.7	1.53
연령	29세 이하	26.5	73.5	70.1	19.0	10.9	1.48
	30-39세	22.8	77.2	64.3	20.5	15.2	1.56
	40-49세	27.9	72.1	64.1	22.2	13.7	1.54
	50-59세	28.6	71.4	66.2	19.2	14.6	1.58
	60세 이상	28.5	71.5	65.4	22.7	11.9	1.51

		사업단 이동 경험		사업단 이동 횟수(구간)			사업단 이동 횟수
		있음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평균
학력	무학	30.9	69.1	66.7	20.0	13.3	1.50
	초졸	29.5	70.5	57.4	19.4	23.1	1.77
	중졸	27.0	73.0	62.5	25.0	12.5	1.55
	고졸	28.9	71.1	67.4	21.1	11.5	1.50
	대졸	28.3	71.7	66.3	21.9	11.7	1.5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0.6	89.4	53.6	17.9	28.6	1.79
	6개월 이상 1년 미만	11.2	88.8	82.3	4.8	12.9	1.45
	1년 이상 3년 미만	22.1	77.9	74.9	18.9	6.2	1.33
	3년 이상-5년 미만	41.0	59.0	62.1	23.8	14.1	1.61
	5년 이상	48.0	52.0	49.8	22.8	27.4	1.8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3.8	76.2	59.9	23.3	16.9	1.63
	45점 이상 59점 이하	29.3	70.7	64.1	22.6	13.3	1.56
	60점 이상 79점 이하	28.0	72.0	69.0	18.7	12.3	1.49
	80점 이상	24.6	75.4	66.3	18.5	15.2	1.5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2.4	67.6	67.6	20.3	12.0	1.53
	조건부수급자	21.1	78.9	64.6	22.3	13.1	1.53
	자활특례자	33.6	66.4	65.5	21.4	13.2	1.54
	차상위자	34.0	66.0	65.7	18.7	15.7	1.56

## (2) 사업단 이동 사유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로는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가 1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단이 종료되어서(16.8%), 실무자의 권유로(15.0%), 건강이 안 좋아져서(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가 가장 높았으나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단이 종료되어서가 이동 이유 1순위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유형에서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의 재배치가 이동 이유 1순위로 확인되었으나 수급유형 중 자활특례자의 경우에만 사업단이 종료되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IV-3]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종합)



<표 IV-3>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특성별)

(단위 : %)

		건강악화	가족 집안일 시간필요	사업단 일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	사업단 종료	이동후 사업단이 더 많은 급여지급	실무자의 권유로	사업단 내 동료 간갈등이 있어서	사업단의 유형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사업단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서	기타
종합		12.5	4.2	6.2	19.6	16.8	4.2	15.0	12.0	3.0	1.4	5.1
성별	남성	11.8	2.4	5.8	21.8	13.9	5.3	16.1	13.7	2.6	1.5	5.0
	여성	12.9	5.6	6.4	17.9	19.1	3.3	14.1	10.7	3.4	1.3	5.2
연령	29세 이하	4.1	.7	12.9	17.0	15.0	3.4	20.4	10.2	4.8	1.4	10.2
	30-39세	9.8	8.0	7.1	24.1	11.6	5.4	8.9	7.1	5.4	2.7	9.8
	40-49세	14.6	7.0	5.4	15.9	15.2	4.1	13.0	16.8	3.2	.6	4.1
	50-59세	15.2	4.2	5.2	21.3	16.5	4.4	14.8	9.4	2.7	1.5	4.8
	60세 이상	10.8	1.7	4.7	20.3	22.0	3.7	16.9	13.9	1.7	1.7	2.4
	무학	6.7	0.0	10.0	30.0	10.0	3.3	26.7	10.0	3.3	0.0	0.0
학력	초졸	14.8	.9	7.4	24.1	17.6	5.6	14.8	7.4	1.9	.9	4.6
	중졸	14.7	4.9	6.5	16.3	16.8	5.4	13.0	12.5	2.7	1.6	5.4
	고졸	11.3	4.5	5.4	19.0	16.1	3.8	15.4	13.6	3.9	1.8	5.3
	대졸	11.7	4.6	7.1	21.9	17.3	4.6	14.8	9.7	1.0	1.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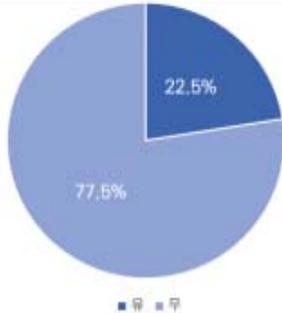
		건강약화	가족 집안일 시간필요	사업단 일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업단 으로 재배치	사업단 종료	이동후 사업단이 더 많은 급여지급	실무자의 권유로	사업단 내 동료 간갈등이 있어서	사업단의 유형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사업단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서	기타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7.9	0.0	7.1	25.0	7.1	0.0	17.9	14.3	0.0	0.0	10.7
	6개월 이상-1년 미만	16.1	8.1	11.3	17.7	11.3	3.2	6.5	11.3	0.0	3.2	11.3
	1년 이상-3년 미만	14.3	5.0	6.4	18.3	11.4	5.0	15.8	13.7	2.1	1.9	6.0
	3년 이상-5년 미만	12.2	4.4	4.8	20.6	18.3	4.4	14.1	12.2	4.0	1.0	4.2
	5년 이상	7.0	1.4	7.4	20.0	29.3	2.3	17.2	7.4	4.2	.9	2.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9.3	7.0	8.7	21.5	14.5	2.9	14.5	12.2	4.7	1.2	3.5
	45점 이상-59점 이하	13.6	2.9	4.3	17.9	17.9	4.1	14.4	14.8	3.1	1.8	5.1
	60점 이상-79점 이하	12.6	4.4	6.5	18.9	16.8	5.1	15.8	10.2	3.0	1.4	5.4
	80점 이상	10.9	5.4	9.8	29.3	15.2	1.1	14.1	7.6	0.0	0.0	6.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6	3.7	7.5	20.1	14.9	3.5	16.8	12.4	2.7	1.7	5.0
	조건부수급자	14.1	7.7	7.2	16.9	14.1	5.1	12.3	10.5	3.3	1.8	6.9
	자활특례자	13.6	1.8	3.2	19.5	22.7	3.6	14.1	12.3	3.6	1.8	3.6
	차상위자	10.0	2.2	4.3	22.2	20.9	4.8	16.1	13.5	3.0	0.0	3.0

### 3)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 (1)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유무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7.5%로 나타났다. 자활특성별로 참여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79.4%),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78.9%), 수급유형 자활특례자(79.4%)에서 구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 구직경험 유무(종합)



〈표 IV-4〉 구직경험 유무(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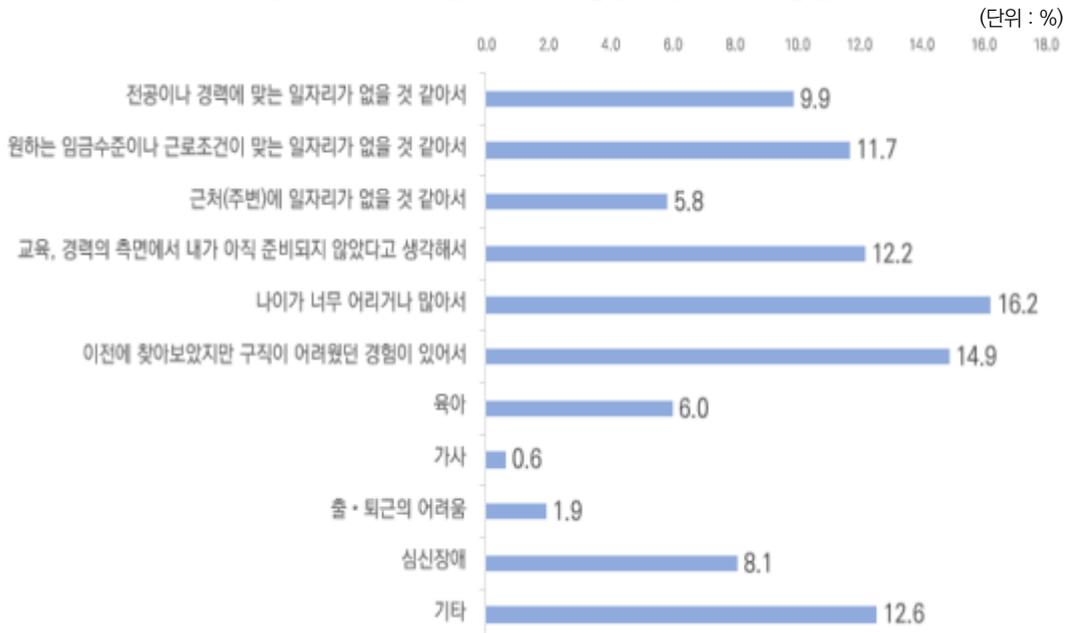
(단위 : %)

		유	무
종합		22.5	77.5
성별	남성	24.7	75.3
	여성	20.8	79.2
연령	29세 이하	25.2	74.8
	30-39세	25.8	74.2
	40-49세	23.6	76.4
	50-59세	22.5	77.5
	60세 이상	18.4	81.6
학력	무학	17.5	82.5
	초졸	20.5	79.5
	중졸	19.6	80.4
	고졸	21.9	78.1
	대졸	26.3	73.7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2.6	67.4
	6개월 이상 1년 미만	21.7	78.3
	1년 이상 1년 미만	22.7	77.3
	3년 이상 5년 미만	20.6	79.4
	5년 이상	22.1	77.9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2.5	77.5
	45점 이상 59점 이하	21.1	78.9
	60점 이상 79점 이하	23.2	76.8
	80점 이상	25.7	74.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0.9	79.1
	조건부수급자	23.3	76.7
	자활특례자	20.6	79.4
	차상위자	22.2	77.8

## (2) 구직하지 않은 이유

자활사업 참여 중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가 1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14.9%), 교육, 경력의 측면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미만까지는 교육, 경력의 측면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13.5%, 14.7%)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년 이상부터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5.3%, 17.6%, 22.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활역량 점수별로는 59점 이하까지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7.5%, 18.0%)가 가장 높았으며, 60점 이상 79점 이하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16.7%), 80점 이상은 교육, 경력의 측면에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20.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유형 중 일반수급자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7.4%), 조건부수급자는 교육 경력의 측면에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14.4%), 자활특례자와 차상위자에서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20.4%, 21.3%)가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하지 않은 이유 1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IV-5]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종합)



〈표 IV-5〉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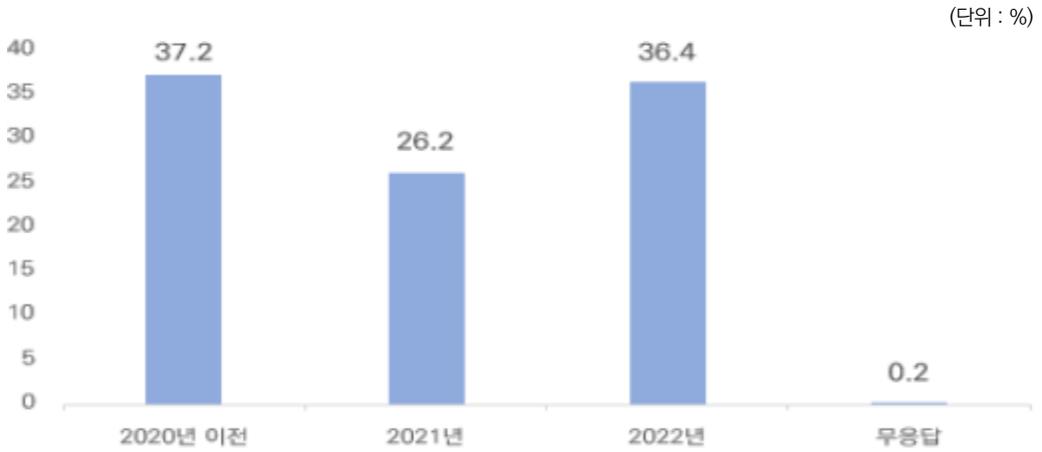
(단위 : %)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아서	임금수준·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아서	근처에 일자리 없을 것 같아서	교육·경력 측면에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육아	가사	출퇴근 어려움	심신장애	기타
종합		9.9	11.7	5.8	12.2	16.2	14.9	6.0	0.6	1.9	8.1	12.6
성별	남성	12.1	11.8	6.3	10.6	17.6	15.5	.8	0.3	1.1	10.4	13.5
	여성	8.3	11.6	5.5	13.4	15.2	14.5	9.9	0.9	2.5	6.3	11.9
연령	29세 이하	13.5	5.3	8.9	33.0	2.4	12.8	7.5	0.2	1.9	3.9	10.6
	30-39세	9.0	11.2	4.9	14.5	2.7	17.8	23.0	1.9	1.9	4.4	8.5
	40-49세	7.8	13.5	6.5	14.5	5.2	16.2	10.0	0.7	2.9	9.0	13.7
	50-59세	11.2	13.6	4.6	8.5	16.1	16.8	1.8	0.6	1.6	9.9	15.2
	60세 이상	8.8	10.3	5.9	4.3	40.4	10.4	.4	0.2	1.4	7.9	10.1
학력	무학	8.8	8.8	1.3	2.5	42.5	6.3	1.3	2.5	1.3	6.3	18.8
	초졸	11.0	10.7	5.8	5.5	29.6	10.0	2.1	0.3	1.4	8.2	15.5
	중졸	8.9	9.3	6.0	8.4	20.8	15.3	4.0	0.4	3.3	8.9	14.6
	고졸	9.4	12.5	6.4	13.1	13.0	16.4	7.3	0.6	1.8	7.6	11.9
	대졸	13.7	11.8	3.5	18.8	14.5	12.9	6.1	0.6	1.4	7.5	9.2
참여기간	6개월 미만	10.7	9.0	4.5	13.5	11.2	12.4	4.5	1.1	2.2	10.7	20.2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6	9.2	5.3	14.7	14.3	13.6	6.9	0.5	2.1	9.0	13.8
	1년 이상 3년 미만	9.6	12.7	5.9	12.5	15.3	14.9	5.7	0.6	1.7	8.2	12.9
	3년 이상 5년 미만	9.9	11.7	5.8	11.2	17.6	15.1	7.6	0.6	2.0	7.4	11.1
	5년 이상	10.3	11.2	6.9	9.5	22.1	17.2	2.3	1.1	2.6	7.2	9.7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8.6	12.8	6.6	10.2	17.5	13.4	4.6	0.2	3.2	9.6	13.4
	45점 이상 59점 이하	10.3	11.9	6.1	10.4	18.0	13.8	4.7	0.9	1.9	9.7	12.3
	60점 이상 79점 이하	9.6	11.6	5.5	13.2	15.1	16.7	7.4	0.4	1.7	6.5	12.3
	80점 이상	12.6	9.0	5.0	20.1	11.5	12.9	7.2	1.1	.7	5.8	14.0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0.5	12.0	5.9	11.4	17.4	14.4	5.1	0.7	2.7	7.8	12.2
	조건부수급자	9.5	11.7	5.4	14.4	12.4	14.1	9.9	0.5	1.6	7.8	12.7
	자활특례자	10.4	12.1	6.3	9.4	20.4	17.7	.8	0.4	1.0	9.2	12.3
	차상위자	9.3	11.2	7.0	10.6	21.3	16.2	2.9	1.0	1.7	7.6	11.2

### (3)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 시기

자활사업 참여 중 마지막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했던 시기로는 2년 이상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19.5%), 3개월 미만(17.4%), 1년 이상 2년 미만(16.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13.7%)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참여 기간 5년 이상(56.6%), 자활역량 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41.1%), 수급유형 자활특례자(53.0%)에서 마지막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했던 시기가 2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6]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종합)



<표 IV-6>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특성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종합		17.4	13.7	19.5	16.2	33.2
성별	남성	16.1	12.7	20	17.2	33.9
	여성	18.6	14.7	19.1	15.2	32.5
연령	29세 이하	30.7	17.9	22.1	14.3	15
	30-39세	23	21.4	18.3	12.7	24.6
	40-49세	17.2	15	21.3	16.9	29.6
	50-59세	14.3	10.9	18.6	16.4	39.8
	60세 이상	10	9.5	17.9	18.4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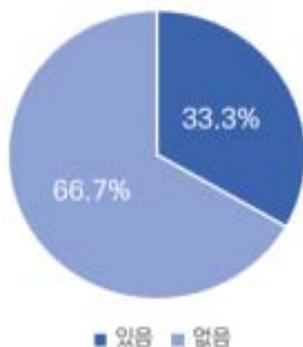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학력	무학	5.9	5.9	11.8	5.9	70.6
	초졸	2.7	9.5	20.3	9.5	58.1
	중졸	7.5	7.5	21.6	23.9	39.6
	고졸	17.0	15.7	20.5	17	29.8
	대졸	23.1	14.8	16.5	14.3	31.3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4.9	19.8	14	11.6	19.8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8	21.7	23.3	9.2	15
	1년 이상 3년 미만	15.6	12.6	22.6	21.6	27.6
	3년 이상 5년 미만	12.2	12.2	15.6	11.8	48.3
	5년 이상	9.1	9.1	14.1	11.1	56.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0.2	14.7	18.4	16	30.7
	45점 이상 59점 이하	12.3	12	19.3	15.3	41.1
	60점 이상 79점 이하	17.3	13.1	20.3	18.6	30.8
	80점 이상	32.3	21.9	18.8	8.3	18.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6.1	14.5	19.9	16.4	33.1
	조건부수급자	18.6	14.2	20.7	16.5	30
	자활특례자	8.2	6.7	15.7	16.4	53
	차상위자	15.4	14.8	22.1	16.1	31.5

## 2. 자활 참여자 경제적 자활

### 1)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여부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역량점수 60점 이상 79점 이하(35.0%), 수급유형 차상위자(40.3%)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9.6%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V-7] 자활사업 참여 여부(종합)



<표 IV-7> 자활사업 참여 여부(특성별)

(단위 : %)

		있음	없음
종합		33.3	66.7
성별	남성	28.2	71.8
	여성	37.3	62.7
연령	29세 이하	37.5	62.5
	30-39세	32.9	67.1
	40-49세	33.2	66.8
	50-59세	33.5	66.5
	60세 이상	30.9	69.1
학력	무학	27.8	72.2
	초졸	31.7	68.3
	중졸	33.9	66.1
	고졸	36.1	63.9
	대졸	36.8	63.2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9.8	90.2
	6개월 이상 1년 미만	8.8	91.2
	1년 이상 3년 미만	28.6	71.4
	3년 이상 5년 미만	48.0	52.0
	5년 이상	59.6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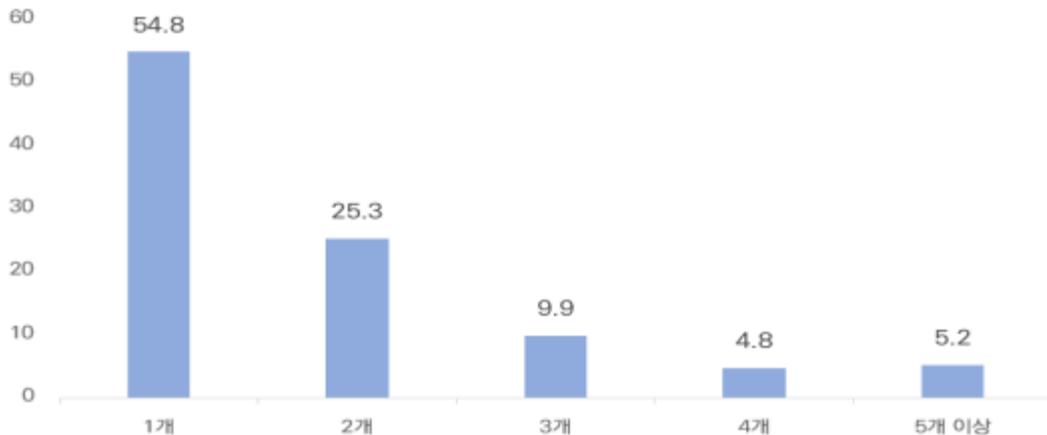
		있음	없음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0.2	69.8
	45점 이상 59점 이하	32.2	67.8
	60점 이상 79점 이하	35.0	65.0
	80점 이상	34.5	65.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9.6	60.4
	조건부수급자	25.0	75.0
	자활특례자	40.3	59.7
	차상위자	42.9	57.1

## 2) 취득 자격증 개수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의 취득 자격증 개수로는 1개가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개 25.3%, 3개 9.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역량 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인 경우에 취득한 자격증이 2개 이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자격증 개수(종합)

(단위 : %)



〈표 IV-8〉 자격증 개수(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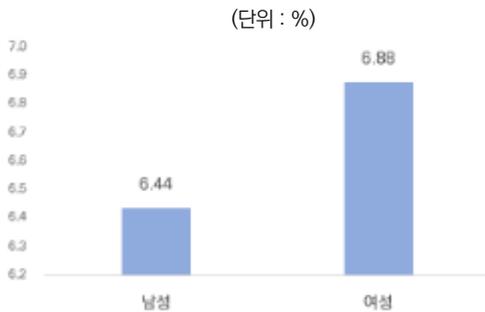
(단위 : %)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종합		54.8	25.3	9.9	4.8	5.2
성별	남성	61.5	24.9	8.4	3.3	2.0
	여성	50.8	25.6	10.8	5.7	7.1
연령	29세 이하	58.7	22.6	8.7	5.3	4.8
	30-39세	50.0	25.9	9.3	4.3	10.5
	40-49세	52.5	28.8	8.5	5.6	4.5
	50-59세	56.7	23.2	10.2	5.3	4.6
	60세 이상	54.1	26.6	12.2	2.8	4.4
학력	무학	29.6	55.6	11.1	0.0	3.7
	초졸	54.3	25.9	11.2	5.2	3.4
	중졸	58.9	26.0	9.1	3.5	2.6
	고졸	54.9	24.5	9.7	5.4	5.5
	대졸	51.8	23.5	10.6	5.9	8.2
참여기간	6개월 미만	80.8	7.7	7.7	3.8	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77.6	14.3	4.1	2.0	2.0
	1년 이상 3년 미만	64.8	22.1	7.2	2.4	3.6
	3년 이상 5년 미만	47.2	28.7	11.9	5.5	6.7
	5년 이상	40.4	29.6	13.5	9.7	6.7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56.6	23.3	9.6	5.0	5.5
	45점 이상 59점 이하	57.9	26.1	7.5	3.7	4.8
	60점 이상 79점 이하	52.3	25.6	11.9	5.3	4.9
	80점 이상	51.9	24.0	10.1	6.2	7.8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52.6	26.8	10.5	4.9	5.1
	조건부수급자	60.1	21.3	7.6	5.6	5.4
	자활특례자	49.6	29.9	13.3	2.7	4.5
	차상위자	53.8	25.9	9.3	5.2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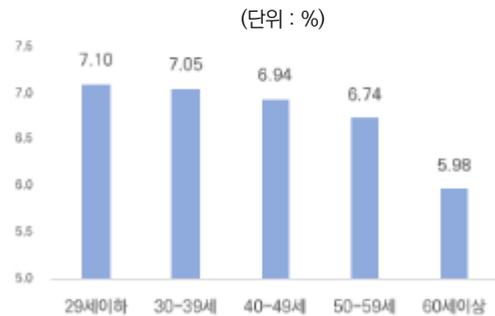
### 3) 취득 자격증의 도움 인지 정도

취득한 자격증의 도움 인지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68점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참여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6.96점),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6.91점), 조건부수급자(6.85점)에서 상대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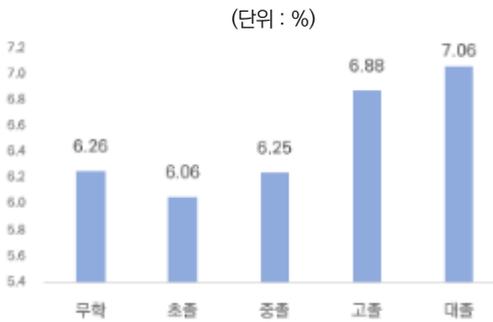
[그림 IV-9] 자격증 도움 정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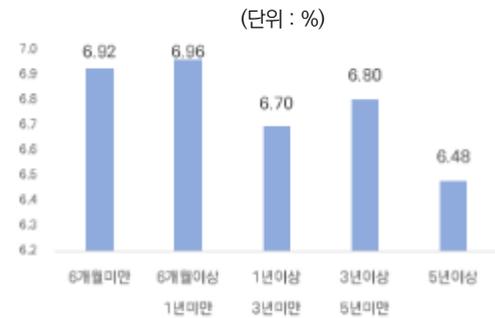
[그림 IV-10] 자격증 도움 정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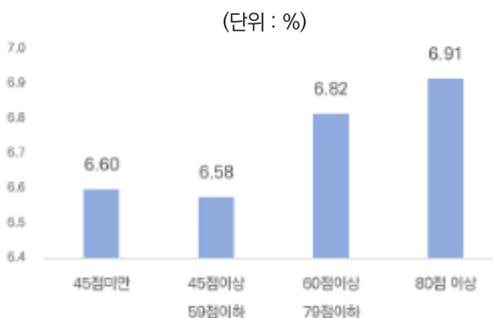
[그림 IV-11] 자격증 도움 정도(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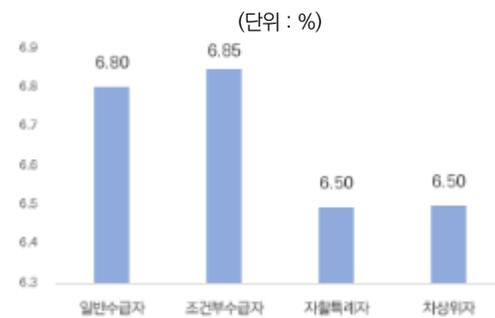
[그림 IV-12] 자격증 도움 정도(참여기간)



[그림 IV-13] 자격증 도움 정도(자활역량점수)



[그림 IV-14] 자격증 도움 정도(수급유형)



〈표 IV-9〉 자격증 도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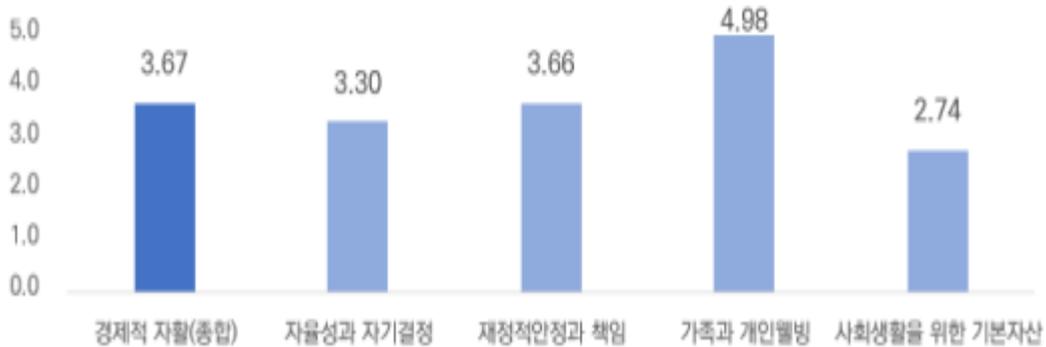
		평균	전혀 도움 안됨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도움이 됨
종합		6.68	4.4	1.5	1.8	2.6	1.5	32.0	4.6	7.7	11.0	5.8	27.1
성별	남성	6.44	4.9	2.0	2.5	2.8	0.8	35.7	3.9	8.5	10.2	4.9	23.8
	여성	6.88	4.1	1.2	1.5	2.5	1.9	29.8	5.0	7.2	11.5	6.3	29.0
연령	29세 이하	7.10	2.4	1.4	2.4	5.8	1.4	21.2	3.8	10.6	12.5	6.7	31.7
	30-39세	7.05	3.1	1.2	1.2	2.5	1.2	29.6	4.9	4.3	15.4	6.8	29.6
	40-49세	6.94	4.0	1.3	1.1	2.4	1.6	28.5	4.3	7.7	14.9	6.4	27.7
	50-59세	6.74	4.3	1.2	1.4	1.8	0.9	34.9	5.3	8.2	8.2	5.9	27.8
	60세 이상	5.98	7.2	2.2	3.4	2.2	2.5	39.4	4.1	6.6	8.1	3.8	20.6
학력	무학	6.26	3.7	0.0	0.0	3.7	3.7	44.4	3.7	3.7	18.5	3.7	14.8
	초졸	6.06	6.9	3.4	0.0	4.3	0.9	40.5	4.3	6.9	7.8	2.6	22.4
	중졸	6.25	6.5	2.2	2.6	2.6	2.6	35.5	4.8	8.2	5.2	4.8	25.1
	고졸	6.88	3.4	1.3	1.8	2.5	1.2	31.5	4.7	7.4	11.8	6.3	28.2
	대졸	7.06	3.9	0.8	2.4	2.4	1.6	24.7	3.5	9.8	14.9	6.3	29.8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6.92	3.8	0.0	0.0	7.7	0.0	34.6	0.0	7.7	7.7	3.8	34.6
	6개월 이상 1년 미만	6.96	6.1	0.0	2.0	6.1	0.0	28.6	0.0	6.1	8.2	6.1	36.7
	1년 이상 3년 미만	6.70	4.3	1.8	2.1	2.8	1.5	31.3	4.6	7.9	10.3	6.0	27.3
	3년 이상 5년 미만	6.80	3.9	1.8	1.6	1.6	1.6	31.1	5.2	8.1	12.1	5.4	27.5
	5년 이상	6.48	5.6	0.4	1.9	3.0	1.5	36.3	4.5	6.4	11.2	6.4	22.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6.60	4.1	1.4	0.9	2.7	1.8	33.8	5.9	9.1	12.3	4.6	23.3
	45점 이상 59점 이하	6.58	5.0	2.0	3.4	1.6	1.6	31.1	4.4	8.3	11.4	6.2	25.0
	60점 이상 79점 이하	6.82	4.5	1.3	0.6	3.1	1.3	32.6	4.5	6.7	10.9	5.9	28.8
	80점 이상	6.91	2.3	0.8	3.9	3.9	1.6	30.2	3.9	7.8	7.8	5.4	32.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6.80	3.6	1.2	1.7	2.4	2.0	32.8	4.2	7.6	10.7	5.8	28.0
	조건부수급자	6.85	3.3	1.1	2.2	3.3	0.9	29.9	5.2	8.2	12.8	6.7	26.5
	자활특례자	6.50	7.6	1.5	1.5	2.3	1.5	32.6	3.0	8.7	8.7	5.3	27.3
	차상위자	6.50	5.2	2.8	2.1	2.1	1.4	32.8	6.2	6.2	11.0	4.8	25.5

#### 4) 주관적 경제적 자활

참여자의 주관적 경제적 자활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인 경제적 자활 수준은 5점 만점 기준 2.81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자율성과 자기결정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개인 웰빙이 3.09점, 재정안정과 책임,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이 각각 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5년 이상(3.07점),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3.18점), 수급유형 자활특례자(3.51점)에서 주관적 경제적 자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5] 주관적 경제적 자활(종합)

(단위 : 점)



<표 IV-10> 주관적 경제적 자활 현황(특성별)

(단위 : 점)

참여자 특성		경제적 자활				
		경제적 자활	자율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과 개인웰빙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종합		2.81	3.30	2.74	3.09	2.74
성별	남성	2.86	3.29	2.80	3.08	2.79
	여성	2.80	3.31	2.69	3.10	2.71
연령	29세 이하	3.14	3.68	3.14	3.51	3.13
	30-39세	2.73	3.31	2.88	3.05	2.76
	40-49세	2.86	3.26	2.70	3.10	2.68
	50-59세	2.57	3.24	2.71	2.83	2.69
	60세 이상	2.82	3.25	2.67	2.74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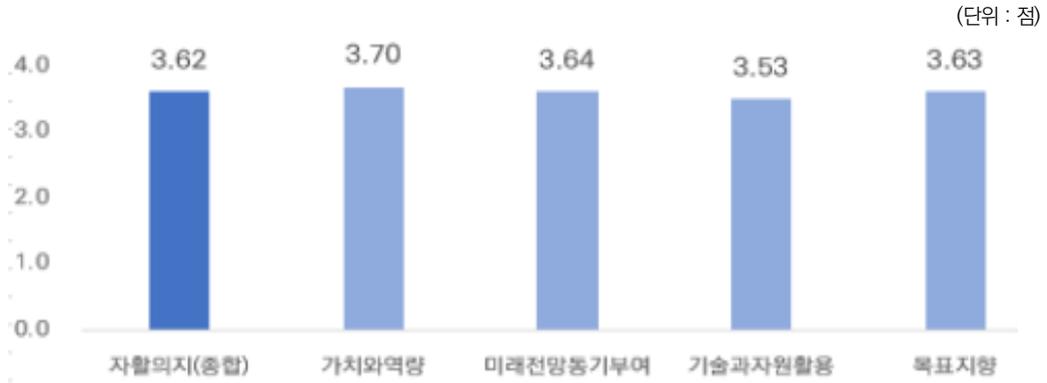
참여자 특성		경제적 자활	자율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과 개인웰빙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학력	무학	3.29	3.25	2.81	2.78	2.70
	초졸	3.07	3.22	2.71	3.21	2.64
	중졸	2.79	3.29	2.68	3.15	2.70
	고졸	2.79	3.32	2.74	3.07	2.75
	대졸	2.92	3.34	2.81	3.15	2.85
참여기간	6개월 미만	2.94	3.20	2.73	3.10	2.66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8	3.26	2.68	3.01	2.71
	1년 이상 3년 미만	2.71	3.30	2.73	3.09	2.73
	3년 이상 5년 미만	2.95	3.34	2.80	3.18	2.78
	5년 이상	3.07	3.35	2.74	2.89	2.76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3.18	3.31	2.74	3.22	2.72
	45점 이상 59점 이하	2.75	3.25	2.71	2.96	2.69
	60점 이상 79점 이하	2.82	3.33	2.77	3.18	2.78
	80점 이상	2.61	3.34	2.72	2.94	2.81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2.85	3.33	2.80	3.14	2.77
	조건부수급자	2.75	3.24	2.64	3.08	2.63
	자활특례자	3.51	3.28	2.85	3.26	2.77
	차상위자	2.90	3.46	2.82	3.01	2.99

### 3. 자활참여자 정서적 자활

#### 1) 자활의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자활의지는 5점 기준 평균 3.62점으로 확인되었다. 영역별로는 가치와 역량(3.70점), 미래전망 동기부여(3.64점), 목표지향(3.63점), 기술과 자원활용(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3.73점), 수급유형 차상위자(3.65점)에서 종합적인 자활의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6] 자활의지(종합)



<표 IV-11> 자활의지(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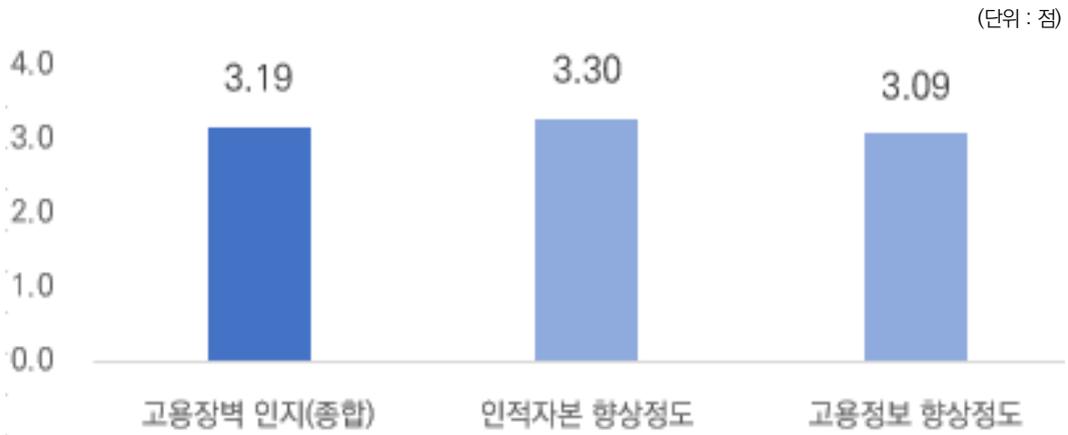
참여자 특성		자활의지				
		가치와 역량	미래전망 동기부여	기술과 자원활용	목표지향	
종합		3.62	3.70	3.64	3.53	3.63
성별	남성	3.57	3.65	3.57	3.45	3.60
	여성	3.66	3.73	3.69	3.58	3.65
연령	29세 이하	3.65	3.62	3.71	3.53	3.75
	30-39세	3.64	3.63	3.69	3.49	3.73
	40-49세	3.65	3.67	3.68	3.57	3.68
	50-59세	3.66	3.73	3.67	3.59	3.67
	60세 이상	3.50	3.74	3.48	3.40	3.38
학력	무학	3.34	3.49	3.34	3.30	3.24
	초졸	3.48	3.64	3.44	3.40	3.43
	중졸	3.57	3.74	3.57	3.45	3.51
	고졸	3.65	3.70	3.66	3.55	3.66
	대졸	3.67	3.69	3.70	3.61	3.69
참여기간	6개월 미만	3.75	3.73	3.81	3.60	3.86
	6개월 이상 1년 미만	3.70	3.77	3.74	3.58	3.71
	1년 이상 3년 미만	3.61	3.68	3.62	3.50	3.63
	3년 이상 5년 미만	3.61	3.69	3.61	3.54	3.59
	5년 이상	3.55	3.65	3.55	3.51	3.48

참여자 특성		자활의지	가치와 역량	미래전망 동기부여	기술과 자원활용	목표지향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64	3.76	3.64	3.55	3.62
	45점 이상 59점 이하	3.57	3.68	3.57	3.47	3.54
	60점 이상 79점 이하	3.64	3.67	3.67	3.56	3.67
	80점 이상	3.73	3.79	3.77	3.59	3.7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62	3.71	3.64	3.53	3.61
	조건부수급자	3.62	3.66	3.64	3.52	3.65
	자활특례자	3.54	3.65	3.53	3.47	3.52
	차상위자	3.65	3.78	3.66	3.56	3.61

## 2)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전·후 고용장벽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변화는 5점 기준 평균 3.62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인적자본 향상정도 3.70점, 고용정보 향상정도 3.64점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3.73점), 수급유형 차상위자(3.65점)에서 종합적인 고용장벽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7] 고용장벽 인지(종합)



〈표 IV-12〉 고용장벽 인지(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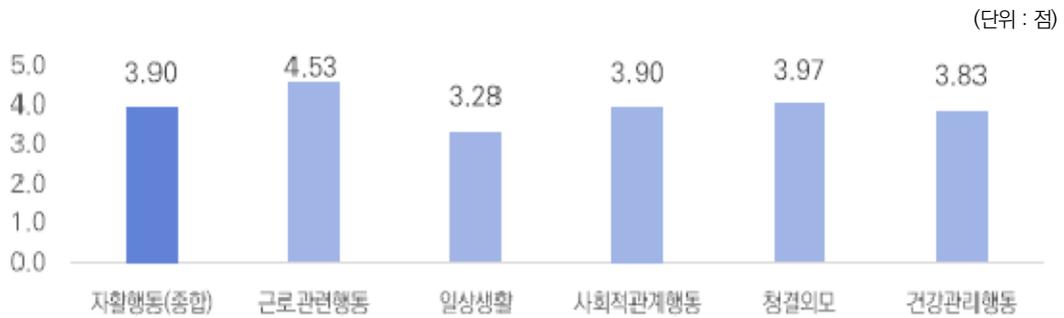
(단위 : 점)

참여자 특성		고용장벽 인지(총합)		
		고용장벽 인지(총합)	인적자본 향상정도	고용정보 향상정도
종합		3.62	3.70	3.64
성별	남성	3.57	3.65	3.57
	여성	3.66	3.73	3.69
연령	29세 이하	3.65	3.62	3.71
	30-39세	3.64	3.63	3.69
	40-49세	3.65	3.67	3.68
	50-59세	3.66	3.73	3.67
	60세 이상	3.50	3.74	3.48
학력	무학	3.34	3.49	3.34
	초졸	3.48	3.64	3.44
	중졸	3.57	3.74	3.57
	고졸	3.65	3.70	3.66
	대졸	3.67	3.69	3.70
참여기간	6개월 미만	3.75	3.73	3.81
	6개월 이상 1년 미만	3.70	3.77	3.74
	1년 이상 3년 미만	3.61	3.68	3.62
	3년 이상 5년 미만	3.61	3.69	3.61
	5년 이상	3.55	3.65	3.55
자활역량접수	45점 미만	3.64	3.76	3.64
	45점 이상 59점 이하	3.57	3.68	3.57
	60점 이상 79점 이하	3.64	3.67	3.67
	80점 이상	3.73	3.79	3.77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3.62	3.71	3.64
	조건부수급자	3.62	3.66	3.64
	자활특례자	3.54	3.65	3.53
	차상위자	3.65	3.78	3.66

### 3) 자활 행동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전·후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자활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합적인 자활행동 변화에 대해 5점 기준 평균 3.90 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근로관련 행동 4.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결외모(3.97점), 사회적 관계 행동(3.90점), 건강관리 행동(3.8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3.94점),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와 80점 이상(3.92점), 수급유형 차상위자(3.98점)에서 종합적인 자활행동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8] 자활행동(종합)



<표 IV-13> 자활행동(특성별)

(단위 : 점)

참여자 특성		자활행동(종합)					
		자활행동(종합)	근로관련 행동	일상생활	사회적관계 행동	청결외모	건강관리 행동
종합		3.90	4.53	3.28	3.90	3.97	3.83
성별	남성	3.84	4.47	3.30	3.80	3.84	3.79
	여성	3.95	4.57	3.27	3.99	4.08	3.86
연령	29세 이하	3.67	4.26	3.08	3.64	3.77	3.57
	30-39세	3.74	4.40	3.13	3.74	3.82	3.61
	40-49세	3.89	4.54	3.27	3.92	3.94	3.76
	50-59세	3.99	4.61	3.35	3.98	4.07	3.92
	60세 이상	3.99	4.58	3.37	3.98	4.03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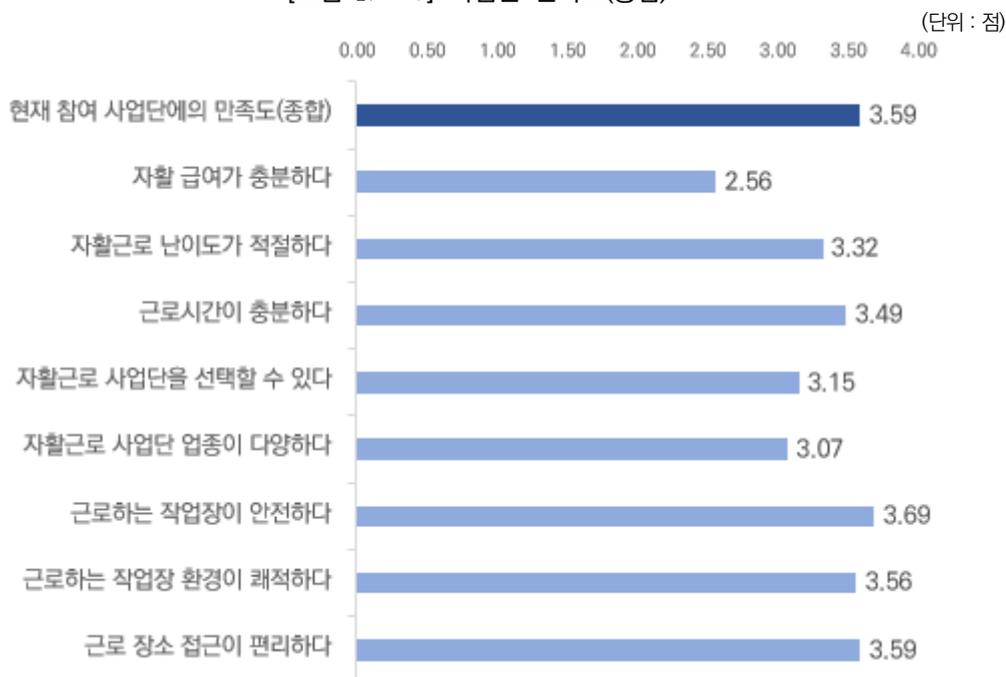
참여자 특성		자활사업 참여실태					
		자활행동 (종합)	근로관련 행동	일상생활	사회적관계 행동	청결외모	건강관리 행동
학력	무학	3.87	4.43	3.27	3.76	3.84	4.06
	초졸	3.88	4.47	3.29	3.86	3.89	3.90
	중졸	3.94	4.53	3.32	3.97	4.01	3.86
	고졸	3.90	4.53	3.27	3.91	3.98	3.79
	대졸	3.91	4.58	3.27	3.90	3.94	3.85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84	4.44	3.29	3.74	3.94	3.78
	6개월 이상 1년 미만	3.88	4.53	3.28	3.91	3.98	3.71
	1년 이상 3년 미만	3.89	4.53	3.28	3.89	3.96	3.80
	3년 이상 5년 미만	3.94	4.54	3.31	3.96	4.01	3.90
	5년 이상	3.92	4.55	3.25	3.89	3.95	3.9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91	4.53	3.30	3.91	3.96	3.85
	45점 이상 59점 이하	3.92	4.53	3.30	3.90	3.99	3.86
	60점 이상 79점 이하	3.88	4.51	3.26	3.90	3.96	3.80
	80점 이상	3.92	4.57	3.30	3.93	4.01	3.7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92	4.54	3.29	3.93	4.00	3.85
	조건부수급자	3.86	4.49	3.25	3.86	3.94	3.75
	자활특례자	3.92	4.54	3.32	3.91	3.96	3.87
	차상위자	3.98	4.59	3.32	3.99	4.02	3.97

## 4. 자활사업 만족도

### 1) 현재 참여 사업단에서의 만족도

참여자의 현재 참여 사업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하다가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 장소 접근이 편리하다(3.59점), 근로하는 작업장 환경이 쾌적하다(3.56점), 근로시간이 충분하다(3.4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자활 참여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3.71점), 자활역량점수 60점 이상 79점 이하(3.61점), 수급유형 차상위자(3.63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사업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9] 사업단 만족도(종합)



<표 IV-14> 사업단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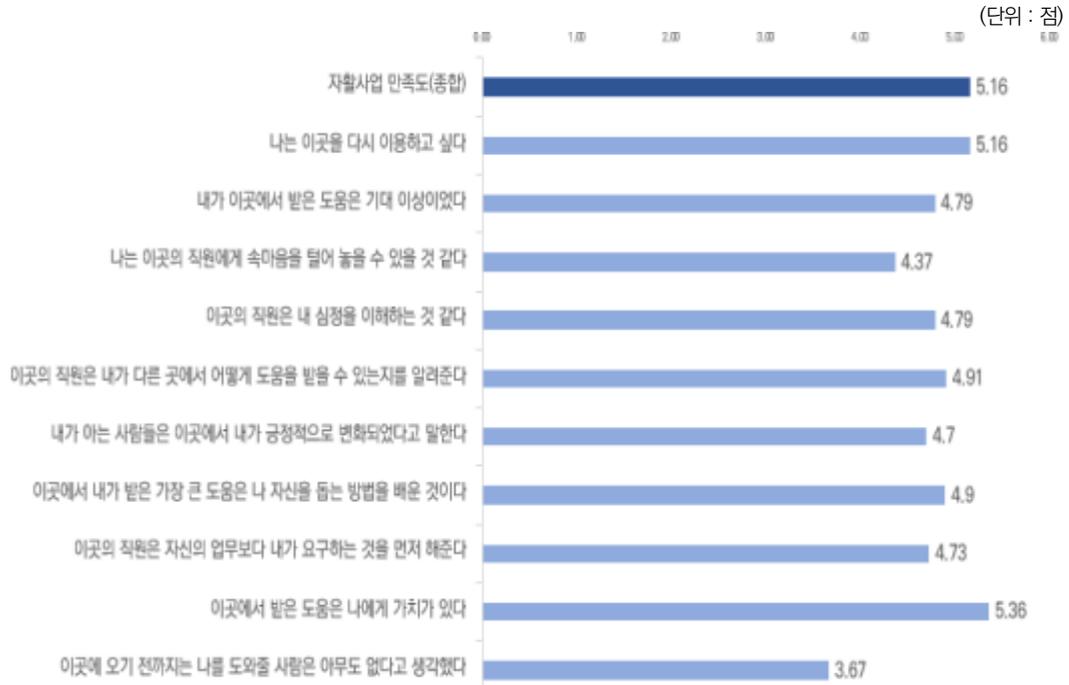
		현재 참여 사업단 만족도(종합)	자활 급여가 충분하다	자활근로 난이도가 적절하다	근로시간이 충분하다	자활근로 사업단을 선택할 수 있다	자활근로 사업단 업종이 다양하다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하다	근로하는 작업장 환경이 쾌적하다	근로장소 접근이 편리하다
종합		3.59	2.56	3.32	3.49	3.15	3.07	3.69	3.56	3.59
성별	남성	3.59	2.57	3.31	3.45	3.09	3.11	3.70	3.54	3.59
	여성	3.59	2.56	3.34	3.53	3.20	3.04	3.69	3.57	3.59
연령	29세 이하	3.74	2.88	3.70	3.75	3.45	3.43	3.88	3.81	3.74
	30-39세	3.68	2.67	3.53	3.67	3.22	3.09	3.85	3.72	3.68
	40-49세	3.54	2.49	3.25	3.48	3.14	2.99	3.59	3.50	3.54
	50-59세	3.59	2.45	3.25	3.42	3.08	2.98	3.68	3.51	3.59
	60세 이상	3.53	2.59	3.22	3.40	3.07	3.10	3.64	3.49	3.53
학력	무학	3.58	2.85	3.32	3.45	3.13	3.21	3.63	3.58	3.58
	초졸	3.66	2.63	3.28	3.49	3.04	3.22	3.69	3.54	3.66
	중졸	3.55	2.62	3.32	3.53	3.17	3.23	3.68	3.53	3.55
	고졸	3.59	2.54	3.32	3.49	3.15	3.05	3.69	3.56	3.59
	대졸	3.56	2.46	3.33	3.41	3.10	2.88	3.64	3.47	3.56

		현재 참여 사업단 만족도 (종합)	자활 급여가 충분하다	자활근로 년이도가 적절하다	근로시간이 충분하다	자활근로 사업단을 선택할 수 있다	자활근로 사업단 업종이 다양하다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하다	근로하는 작업장 환경이 쾌적하다	근로장소 접근이 편리하다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3.59	2.64	3.41	3.46	3.28	3.12	3.79	3.66	3.59
	6개월 이상 1년 미만	3.71	2.65	3.45	3.55	3.30	3.17	3.89	3.78	3.71
	1년 이상 3년 미만	3.58	2.52	3.35	3.48	3.14	3.06	3.68	3.53	3.58
	3년 이상 5년 미만	3.57	2.54	3.22	3.46	3.09	3.03	3.63	3.49	3.57
	5년 이상	3.56	2.64	3.31	3.57	3.07	3.11	3.62	3.52	3.5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60	2.58	3.32	3.50	3.20	3.16	3.72	3.57	3.60
	45점 이상 59점 이하	3.56	2.54	3.30	3.48	3.11	3.02	3.66	3.48	3.56
	60점 이상 79점 이하	3.61	2.58	3.34	3.48	3.16	3.07	3.69	3.60	3.61
	80점 이상	3.60	2.54	3.41	3.61	3.17	3.17	3.77	3.61	3.6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57	2.54	3.30	3.45	3.12	3.06	3.65	3.54	3.57
	조건부수급자	3.60	2.57	3.39	3.54	3.16	3.09	3.74	3.58	3.60
	자활특례자	3.56	2.59	3.20	3.38	3.03	3.02	3.61	3.46	3.56
	차상위자	3.63	2.50	3.30	3.56	3.22	3.10	3.68	3.56	3.63

## 2) 자활사업 만족도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만점 평균 5.16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5.36점)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5.16점),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4.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 별로는 참여기간 6개월 미만(5.37점),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5.25점), 수급유형 차상위자(5.26점)에서 전반적인 자활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0] 자활사업 만족도(종합)



<표 IV-15> 자활사업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자활사업 만족도 (종합)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었 다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수 있을것 같다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긍정적 으로 변화되었 다고 말한다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이곳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내에게 가치가 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종합	5.16	5.16	4.79	4.37	4.79	4.91	4.7	4.9	4.73	5.36	3.67	
성별	남성	5.10	5.10	4.81	4.44	4.80	4.92	4.69	4.89	4.80	5.33	4.35
	여성	5.20	5.20	4.78	4.32	4.78	4.90	4.71	4.91	4.68	5.39	4.32
연령	29세 이하	5.19	5.19	5.04	4.24	4.84	5.05	4.69	4.82	4.81	5.39	3.75
	30-39세	5.24	5.24	4.85	4.29	4.75	5.02	4.76	4.85	4.79	5.37	4.35
	40-49세	5.09	5.09	4.67	4.22	4.70	4.84	4.62	4.78	4.64	5.27	4.15
	50-59세	5.17	5.17	4.76	4.43	4.79	4.91	4.72	4.95	4.71	5.39	4.47
	60세 이상	5.16	5.16	4.80	4.56	4.89	4.85	4.75	5.02	4.80	5.40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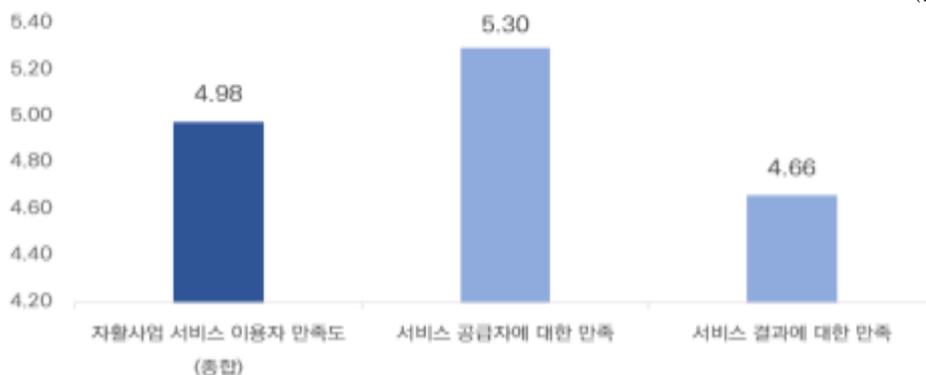
		자활사업 만족도 (종합)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었다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이곳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학력	무학	5.18	5.18	4.76	4.55	5.00	4.88	4.65	4.88	4.74	5.36	4.71
	초졸	5.35	5.35	4.86	4.54	4.90	4.83	4.81	4.98	4.67	5.42	4.75
	중졸	5.18	5.18	4.68	4.37	4.76	4.87	4.72	4.87	4.67	5.30	4.44
	고졸	5.15	5.15	4.78	4.34	4.76	4.91	4.69	4.88	4.74	5.34	4.25
	대졸	5.02	5.02	4.83	4.39	4.78	4.90	4.64	4.86	4.72	5.40	4.21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5.37	5.37	5.05	4.52	5.02	5.16	4.85	5.10	5.05	5.50	4.37
	6개월 이상 1년 미만	5.31	5.31	5.01	4.47	5.00	5.07	4.75	4.99	4.97	5.46	4.16
	1년 이상 3년 미만	5.10	5.10	4.75	4.35	4.76	4.90	4.69	4.87	4.70	5.37	4.38
	3년 이상 5년 미만	5.09	5.09	4.73	4.30	4.70	4.81	4.65	4.83	4.64	5.28	4.28
	5년 이상	5.32	5.32	4.74	4.47	4.80	4.89	4.77	5.00	4.69	5.35	4.4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18	5.18	4.77	4.31	4.73	4.89	4.66	4.94	4.66	5.44	4.39
	45점 이상 59점 이하	5.13	5.13	4.73	4.32	4.75	4.86	4.67	4.85	4.69	5.30	4.41
	60점 이상 79점 이하	5.15	5.15	4.83	4.42	4.83	4.94	4.74	4.91	4.78	5.37	4.28
	80점 이상	5.25	5.25	4.93	4.44	4.92	4.98	4.71	5.01	4.82	5.44	4.1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16	5.16	4.79	4.36	4.74	4.91	4.72	4.90	4.73	5.40	4.44
	조건부수급자	5.13	5.13	4.80	4.33	4.79	4.91	4.67	4.85	4.73	5.33	4.31
	자활특례자	5.03	5.03	4.64	4.35	4.67	4.78	4.60	4.83	4.54	5.27	4.35
	차상위자	5.26	5.26	4.86	4.48	4.95	4.95	4.80	5.03	4.82	5.39	4.13

### 3)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자활사업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 평균 4.98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별로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은 5.30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은 4.66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종합적인 자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5년 이상에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5.10점), 수급유형 차상위자(5.09점)에서 종합적인 자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1] 자활서비스 만족도(종합)

(단위 : 점)



<표 IV-16> 자활서비스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종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종합		4.98	5.30	4.66
성별	남성	5.02	5.28	4.75
	여성	5.03	5.31	4.74
연령	29세 이하	5.03	5.36	4.70
	30-39세	5.06	5.37	4.76
	40-49세	4.93	5.23	4.63
	50-59세	5.03	5.28	4.78
	60세 이상	5.08	5.33	4.83
학력	무학	5.06	5.30	4.82
	초졸	5.10	5.32	4.88
	중졸	5.00	5.27	4.74
	고졸	5.01	5.30	4.72
	대졸	4.97	5.24	4.70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5.24	5.56	4.93
	6개월 이상 1년 미만	5.16	5.47	4.85
	1년 이상 3년 미만	5.00	5.28	4.73
	3년 이상 5년 미만	4.95	5.22	4.67
	5년 이상	5.04	5.28	4.80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종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04	5.35	4.73
	45점 이상 59점 이하	4.98	5.25	4.72
	60점 이상 79점 이하	5.03	5.30	4.76
	80점 이상	5.10	5.41	4.80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5.01	5.27	4.75
	조건부수급자	5.02	5.32	4.72
	자활특례자	4.90	5.15	4.66
	차상위자	5.09	5.37	4.81

(1)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평균 5.30 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이곳의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함이 5.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음(5.47점), 방문했을 때보다 지금 나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함(5.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곳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가 4.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5.41점), 수급 유형 차상위자(5.37점)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2]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종합)



〈표 IV-17〉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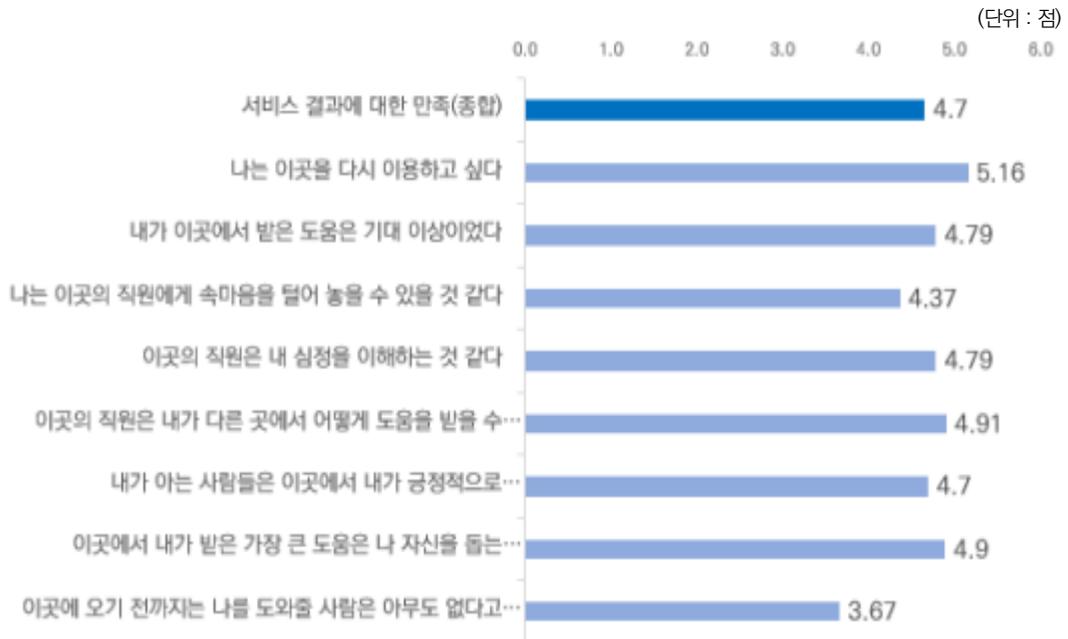
(단위 : 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종합)	이곳 직원 본인 업무 보다 내 요구를 먼저 들어줌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나에게 가치있음	처음 방문 때보다 지금 나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함	이곳 직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줌	이곳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 받음	이곳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함	이곳을 추천할 의향이 있음	이곳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움	이곳 직원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함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음	이곳 직원은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함	이곳 서비스는 도움 됨
종합		5.30	4.73	5.36	5.46	5.42	5.27	5.61	5.17	5.03	5.42	5.47	5.41	5.23
성별	남성	5.28	4.80	5.33	5.45	5.42	5.23	5.60	5.12	4.99	5.42	5.45	5.40	5.16
	여성	5.31	4.68	5.39	5.47	5.43	5.29	5.62	5.22	5.07	5.41	5.49	5.41	5.29
연령	29세 이하	5.36	4.81	5.39	5.51	5.49	5.26	5.70	5.23	5.02	5.49	5.42	5.55	5.46
	30-39세	5.37	4.79	5.37	5.52	5.50	5.34	5.73	5.27	5.10	5.42	5.48	5.48	5.42
	40-49세	5.23	4.64	5.27	5.38	5.36	5.21	5.51	5.11	4.95	5.35	5.45	5.35	5.17
	50-59세	5.28	4.71	5.39	5.43	5.39	5.24	5.59	5.15	5.03	5.41	5.50	5.40	5.19
	60세 이상	5.33	4.80	5.40	5.54	5.48	5.34	5.66	5.21	5.10	5.45	5.48	5.38	5.16
학력	무학	5.30	4.74	5.36	5.48	5.36	5.36	5.47	5.26	5.18	5.34	5.59	5.32	5.12
	초졸	5.32	4.67	5.42	5.65	5.48	5.27	5.64	5.16	5.16	5.33	5.55	5.39	5.17
	중졸	5.27	4.67	5.30	5.48	5.46	5.27	5.62	5.12	5.07	5.36	5.41	5.35	5.11
	고졸	5.30	4.74	5.34	5.47	5.41	5.27	5.61	5.18	5.02	5.42	5.46	5.41	5.23
	대졸	5.24	4.72	5.40	5.33	5.32	5.16	5.53	5.13	4.85	5.38	5.39	5.37	5.26
참여기간	6개월 미만	5.56	5.05	5.50	5.50	5.80	5.50	5.90	5.52	5.28	5.75	5.75	5.72	5.45
	6개월 이상 1년 미만	5.47	4.97	5.46	5.53	5.62	5.42	5.81	5.39	5.10	5.63	5.61	5.64	5.46
	1년 이상 3년 미만	5.28	4.70	5.37	5.42	5.40	5.25	5.62	5.13	4.99	5.40	5.45	5.40	5.21
	3년 이상 5년 미만	5.22	4.64	5.28	5.46	5.32	5.19	5.49	5.09	5.01	5.32	5.38	5.28	5.14
	5년 이상	5.28	4.69	5.35	5.53	5.41	5.24	5.51	5.14	5.09	5.30	5.51	5.36	5.21
자활역량 점수	45점 미만	5.35	4.66	5.44	5.54	5.47	5.32	5.67	5.24	5.12	5.45	5.52	5.43	5.34
	45점 이상 59점 이하	5.25	4.69	5.30	5.42	5.39	5.22	5.58	5.13	4.99	5.36	5.44	5.34	5.17
	60점 이상 79점 이하	5.30	4.78	5.37	5.45	5.42	5.28	5.60	5.15	5.03	5.42	5.47	5.43	5.23
	80점 이상	5.41	4.82	5.44	5.55	5.53	5.34	5.71	5.34	5.11	5.59	5.55	5.53	5.37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5.27	4.73	5.40	5.45	5.38	5.24	5.57	5.13	5.04	5.37	5.41	5.34	5.19
	조건부수급자	5.32	4.73	5.33	5.46	5.44	5.26	5.63	5.21	5.02	5.46	5.52	5.47	5.27
	자활특례자	5.15	4.54	5.27	5.35	5.27	5.15	5.44	5.00	4.86	5.20	5.37	5.24	5.13
	차상위자	5.37	4.82	5.39	5.57	5.51	5.39	5.73	5.21	5.13	5.50	5.45	5.44	5.25

(2)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자활사업 참여자의 서비스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평균 4.7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가 5.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4.91점),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4.9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3.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자활 참여기간 6개월 미만(4.93점),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4.80점), 수급유형 차상위자(4.81점)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3]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종합)



〈표 IV-18〉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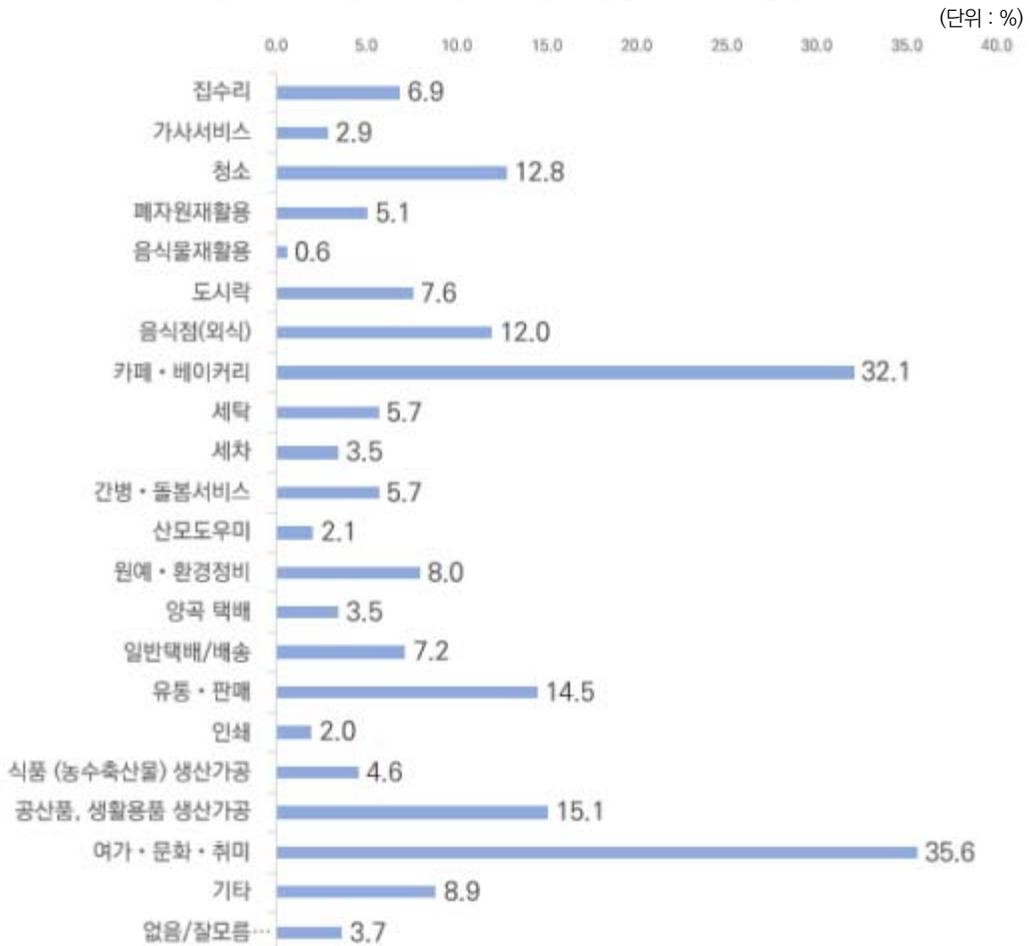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종합)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음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임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음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음	이곳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었는지 알려줌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함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것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함
종합		4.66	5.16	4.79	4.37	4.79	4.91	4.7	4.9	3.67
성별	남성	4.75	5.10	4.81	4.44	4.80	4.92	4.69	4.89	4.35
	여성	4.74	5.20	4.78	4.32	4.78	4.90	4.71	4.91	4.32
연령	29세 이하	4.70	5.19	5.04	4.24	4.84	5.05	4.69	4.82	3.75
	30-39세	4.76	5.24	4.85	4.29	4.75	5.02	4.76	4.85	4.35
	40-49세	4.63	5.09	4.67	4.22	4.70	4.84	4.62	4.78	4.15
	50-59세	4.78	5.17	4.76	4.43	4.79	4.91	4.72	4.95	4.47
	60세 이상	4.83	5.16	4.80	4.56	4.89	4.85	4.75	5.02	4.61
학력	무학	4.82	5.18	4.76	4.55	5.00	4.88	4.65	4.88	4.71
	초졸	4.88	5.35	4.86	4.54	4.90	4.83	4.81	4.98	4.75
	중졸	4.74	5.18	4.68	4.37	4.76	4.87	4.72	4.87	4.44
	고졸	4.72	5.15	4.78	4.34	4.76	4.91	4.69	4.88	4.25
	대졸	4.70	5.02	4.83	4.39	4.78	4.90	4.64	4.86	4.21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4.93	5.37	5.05	4.52	5.02	5.16	4.85	5.10	4.37
	6개월 이상 1년 미만	4.85	5.31	5.01	4.47	5.00	5.07	4.75	4.99	4.16
	1년 이상 3년 미만	4.73	5.10	4.75	4.35	4.76	4.90	4.69	4.87	4.38
	3년 이상 5년 미만	4.67	5.09	4.73	4.30	4.70	4.81	4.65	4.83	4.28
	5년 이상	4.80	5.32	4.74	4.47	4.80	4.89	4.77	5.00	4.4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73	5.18	4.77	4.31	4.73	4.89	4.66	4.94	4.39
	45점 이상 59점 이하	4.72	5.13	4.73	4.32	4.75	4.86	4.67	4.85	4.41
	60점 이상 79점 이하	4.76	5.15	4.83	4.42	4.83	4.94	4.74	4.91	4.28
	80점 이상	4.80	5.25	4.93	4.44	4.92	4.98	4.71	5.01	4.1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75	5.16	4.79	4.36	4.74	4.91	4.72	4.90	4.44
	조건부수급자	4.72	5.13	4.80	4.33	4.79	4.91	4.67	4.85	4.31
	자활특례자	4.66	5.03	4.64	4.35	4.67	4.78	4.60	4.83	4.35
	차상위자	4.81	5.26	4.86	4.48	4.95	4.95	4.80	5.03	4.13

## 5. 향후 근로 관련 욕구

### 1)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및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및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창업 중 원하는 일의 유형으로는 여가·문화·취미가 3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카페·베이커리(32.1%), 생활용품 생산가공(15.1%), 유통·판매(14.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종합)



〈표 IV-19〉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특성별)

(단위 : %)

		잡수리	가사 서비스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사탁	음식점 (외식)	카페·베 이커리	세탁	세차	카페· 돌봄 서비스
종합		6.9	2.9	12.8	5.1	0.6	7.6	12.0	32.1	5.7	3.5	5.7
성별	남성	13.4	1.2	17.2	8.1	0.6	5.5	9.0	15.1	6.9	6.0	2.2
	여성	1.8	4.3	9.3	2.7	0.5	9.4	14.3	45.6	4.8	1.5	8.4
연령	29세 이하	2.9	0.5	4.5	1.1	0.7	3.6	13.9	60.7	1.8	2.5	4.5
	30-39세	4.7	1.8	8.9	4.1	0.0	4.9	10.6	41.7	5.1	2.2	5.5
	40-49세	6.0	2.6	11.6	4.4	0.6	7.3	12.1	36.9	5.0	2.7	5.8
	50-59세	7.9	3.6	14.1	5.3	0.5	9.4	12.3	27.4	6.2	4.5	5.6
	60세 이상	9.5	3.8	18.2	8.2	0.8	8.8	10.9	14.7	8.3	3.7	6.3
학력	무학	7.2	5.2	33.0	12.4	1.0	5.2	11.3	6.2	16.5	3.1	5.2
	초졸	10.1	4.4	25.7	8.2	0.8	10.4	12.3	12.8	8.5	4.6	6.3
	중졸	9.5	3.4	17.0	6.9	0.7	8.2	14.1	21.4	7.2	3.5	6.6
	고졸	6.7	2.7	10.4	4.4	0.5	7.2	11.7	36.6	5.2	4.1	4.9
	대졸	3.9	1.7	7.2	4.8	0.1	6.2	8.7	41.5	3.5	1.4	6.5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7.6	3.0	14.8	3.0	0.8	8.3	13.3	28.0	3.8	4.2	4.5
	6개월 이상 1년 미만	8.1	3.1	11.0	4.2	0.5	7.8	15.3	35.6	7.2	1.8	4.5
	1년 이상 3년 미만	7.0	2.3	12.0	4.7	0.5	8.1	12.0	32.9	5.2	3.4	5.5
	3년 이상 5년 미만	6.1	3.2	12.9	5.7	0.9	6.3	10.9	32.0	5.5	4.0	6.3
	5년 이상	6.7	4.7	17.2	7.8	0.0	8.7	10.0	26.6	8.5	4.0	7.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8.3	2.9	15.6	5.9	0.1	7.5	13.8	27.2	5.0	3.0	5.5
	45점 이상 59점 이하	7.3	3.4	13.7	5.4	0.8	8.1	10.7	28.0	6.3	4.3	5.7
	60점 이상 79점 이하	6.4	2.3	12.0	5.0	0.5	7.6	12.5	35.4	5.7	3.3	5.7
	80점 이상	5.6	3.7	7.2	2.4	0.3	6.1	11.5	43.0	4.8	1.1	5.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4	3.0	12.4	5.4	0.6	7.4	12.9	33.5	6.0	3.6	6.7
	조건부수급자	7.6	2.7	10.9	3.9	0.6	7.6	11.5	35.4	5.7	2.8	5.3
	자활특례자	8.7	2.3	15.4	7.3	0.5	7.5	11.1	24.3	5.5	5.2	4.1
	차상위자	6.4	3.7	15.5	6.2	0.3	8.1	11.1	29.0	6.1	3.3	6.4

IV. 자활사업 참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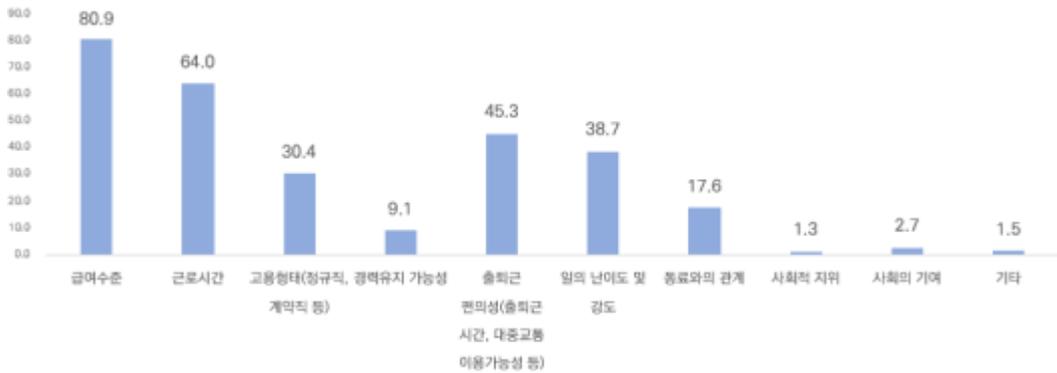
		산모 도우미	원예· 환경 정비	양곡 택배	일반 택배/ 배송	유통· 판매	인쇄	식품 (농수축 산물) 생산 가공	공산품· 생활 용품 생산 가공	여가· 문화· 취미	기타	없음/ 잘 모름 /현재 만족
종합		2.1	8.0	3.5	7.2	14.5	2.0	4.6	15.1	35.6	8.9	3.7
성별	남성	0.1	9.2	7.4	13.7	16.3	2.4	4.5	16.3	30.5	9.5	4.8
	여성	3.7	7.0	0.4	2.0	13.0	1.7	4.6	14.2	39.6	8.4	2.9
연령	29세 이하	2.3	5.4	2.3	3.8	11.4	2.2	2.7	6.3	53.3	10.5	3.1
	30-39세	2.4	4.3	2.8	4.7	16.7	4.5	4.9	13.8	43.1	11.2	2.2
	40-49세	2.3	5.4	3.3	7.4	15.3	1.6	4.3	15.5	35.8	8.9	5.1
	50-59세	1.9	9.4	4.1	8.1	15.1	1.7	4.3	15.9	31.1	8.8	3.0
	60세 이상	1.8	11.6	3.9	8.6	13.1	1.7	6.2	18.7	29.5	7.2	4.5
학력	무학	2.1	10.3	3.1	6.2	2.1	0.0	18.6	18.6	13.4	10.3	9.3
	초졸	0.8	11.2	5.5	9.3	8.2	1.4	4.4	21.6	20.5	6.8	6.3
	중졸	2.2	8.8	4.7	7.6	11.9	0.6	7.2	18.5	27.7	9.1	3.2
	고졸	2.3	6.8	3.2	7.3	16.9	2.2	4.1	14.0	36.9	8.4	3.6
	대졸	1.6	7.8	3.0	6.8	13.4	3.3	3.0	12.0	49.7	11.4	2.3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2.3	12.5	0.8	6.1	14.0	3.4	3.4	15.2	38.3	9.8	3.0
	6개월 이상 1년 미만	1.6	7.0	2.7	7.0	16.2	1.1	3.6	11.4	34.8	11.2	4.2
	1년 이상 3년 미만	2.3	7.5	4.3	8.6	15.0	2.2	3.8	14.0	36.4	8.5	3.8
	3년 이상 5년 미만	2.0	8.1	2.8	5.9	13.8	2.0	5.2	17.0	36.7	8.5	4.5
	5년 이상	1.8	8.7	4.2	4.2	11.6	1.1	8.9	20.1	27.7	8.9	1.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2	8.0	3.6	9.9	14.0	1.7	5.8	12.4	34.7	8.7	4.1
	45점 이상 59점 이하	1.9	8.7	3.6	7.8	14.5	1.9	5.1	16.7	32.9	9.2	3.8
	60점 이상 79점 이하	2.0	7.6	3.7	6.0	14.5	1.9	4.0	14.8	36.9	8.5	3.8
	80점 이상	3.2	6.1	2.1	5.6	15.2	3.5	3.2	14.4	42.5	9.9	2.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0	6.7	3.7	7.5	13.8	2.2	5.0	14.8	35.7	8.4	3.5
	조건부수급자	2.0	7.3	3.0	7.6	15.5	2.1	3.2	14.6	37.6	9.2	3.9
	자활특례자	1.2	10.1	4.1	6.9	15.7	1.8	4.9	16.9	32.2	9.8	4.4
	차상위자	3.1	10.2	4.9	5.9	12.1	1.5	7.5	15.1	32.4	7.8	3.4

## 2) 취업 시 고려사항

자활사업 종료 후 취업 희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급여수준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로시간(64.0%), 출퇴근 편의성(45.3%), 고용형태(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5]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단위 : %)



<표 IV-20>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단위 : %)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고용 형태	경력 유지 가능성	출퇴근 편의성	일의 난이도 및 강도	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지위	사회의 기여	기타
종합		80.9	64.0	30.4	9.1	45.3	38.7	17.6	1.3	2.7	1.5
성별	남성	80.8	59.2	35.0	10.4	38.7	40.3	19.5	1.4	3.7	2.1
	여성	80.9	67.6	27.0	8.1	50.3	37.5	16.1	1.2	2.0	1.1
연령	29세 이하	76.3	54.5	40.2	14.3	51.1	29.9	20.9	2.1	2.4	1.9
	30-39세	82.4	69.7	29.5	11.3	53.4	25.6	16.0	1.9	2.5	1.1
	40-49세	82.2	67.6	33.6	7.2	45.2	38.6	15.6	0.9	1.3	1.0
	50-59세	80.6	63.2	29.6	7.4	41.7	43.5	17.1	1.4	3.3	1.7
	60세 이상	82.0	64.6	22.5	9.3	43.1	43.8	19.0	0.7	3.8	1.6
학력	무학	76.6	63.6	14.3	5.2	46.8	48.1	27.3	0.0	0.0	5.2
	초졸	81.5	63.7	23.5	8.5	39.9	39.5	25.3	1.1	2.5	2.8
	중졸	82.0	63.2	24.1	7.7	45.2	39.7	20.1	0.8	4.2	1.5
	고졸	80.7	64.6	31.8	8.4	47.1	38.8	16.4	1.2	2.9	1.3
	대졸	80.1	61.2	38.8	12.4	40.5	35.8	15.6	3.0	2.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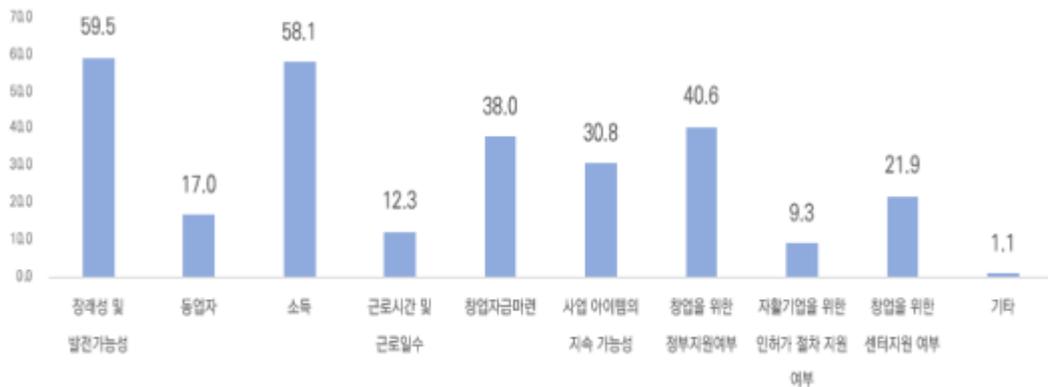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고용 형태	경력 유지 가능성	출퇴근편의성	일의 난이도 및 강도	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자위	사회의 기여	기타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83.5	64.4	33.5	10.8	41.2	40.7	15.5	1.0	1.0	2.1
	6개월 이상 1년 미만	83.6	63.1	30.9	10.8	44.3	36.7	17.9	1.3	2.9	1.8
	1년 이상 3년 미만	80.5	63.2	29.9	9.2	47.0	37.7	17.1	1.6	3.5	1.7
	3년 이상 5년 미만	79.9	65.9	30.6	7.2	44.9	40.1	18.4	0.9	1.6	1.2
	5년 이상	80.6	63.3	29.9	11.0	41.8	40.9	17.9	0.9	2.7	0.9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81.2	64.9	26.4	7.6	44.9	38.4	18.8	1.9	2.7	1.9
	45점 이상 59점 이하	79.4	65.3	28.5	8.6	44.3	41.4	18.6	1.1	2.9	0.8
	60점 이상 79점 이하	81.5	63.2	32.4	9.6	46.6	37.8	15.7	1.0	2.4	2.1
	80점 이상	83.7	60.6	36.4	11.4	43.6	31.8	20.1	1.9	3.8	0.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81.4	62.8	31.8	8.7	46.1	38.3	16.3	1.5	2.6	1.7
	조건부수급자	80.6	63.9	30.0	10.2	46.7	37.3	17.5	1.5	2.5	1.5
	자활특례자	79.2	63.9	27.9	8.2	43.6	42.7	17.4	0.4	3.0	1.5
	차상위자	81.5	65.6	29.8	7.4	42.5	39.8	21.3	1.2	4.2	1.0

### 3) 창업 시 고려사항

자활사업 종료 후에 창업을 희망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은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58.1%),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여부(40.6%), 창업자금마련(3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단위 : %)



〈표 IV-21〉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단위 : %)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	동업자	소득	근로 시간 및 근로 일수	창업 자금 마련	사업 아이템 지속 가능성	창업을 위한 정부지 원여부	자활 기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지원 여부	창업을 위한 센터 지원 여부	기타
총합		59.5	17.0	58.1	12.3	38.0	30.8	40.6	9.3	21.9	1.1
성별	남성	62.0	17.4	59.1	10.6	36.9	33.1	36.9	10.2	21.6	1.5
	여성	57.2	16.6	57.3	13.8	38.9	28.9	43.9	8.6	22.1	0.8
연령	29세 이하	55.2	25.3	51.7	17.2	34.5	34.5	41.4	6.9	25.3	1.1
	30-39세	61.2	13.2	65.9	18.6	29.5	33.3	39.5	10.1	18.6	0.8
	40-49세	58.1	16.8	58.4	11.3	38.2	29.8	45.1	8.7	22.5	0.9
	50-59세	59.3	16.6	56.8	9.7	41.1	31.2	40.9	10.2	22.4	0.7
	60세 이상	62.0	17.2	58.9	14.5	36.4	29.3	35.0	8.8	20.5	2.4
학력	무학	55.0	10.0	75.0	15.0	45.0	15.0	30.0	15.0	25.0	0.0
	초졸	54.1	17.6	57.6	17.6	31.8	25.9	43.5	9.4	24.7	0.0
	중졸	61.8	18.6	59.3	16.2	38.2	31.4	34.8	12.3	14.2	1.0
	고졸	60.4	16.8	59.1	11.7	38.0	28.9	41.5	7.4	23.0	1.4
	대졸	52.9	14.7	57.8	11.1	40.0	34.7	46.2	10.7	22.7	0.4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64.3	18.6	47.1	10.0	32.9	35.7	41.4	10.0	21.4	2.9
	6개월 이상 1년 미만	57.1	18.9	60.6	16.0	36.6	33.7	33.1	9.1	20.6	1.1
	1년 이상 3년 미만	60.1	15.6	58.2	11.0	40.6	31.6	41.2	9.5	21.6	0.7
	3년 이상 5년 미만	59.1	18.5	59.4	13.8	35.1	27.3	41.2	9.1	23.2	1.4
	5년 이상	57.5	16.8	56.6	11.5	35.4	30.1	46.0	8.8	21.2	1.8
자활 역량 접수	45점 미만	57.9	15.8	58.9	11.5	38.3	28.7	42.1	9.6	24.9	1.4
	45점 이상 59점 이하	58.4	15.5	59.0	13.2	38.5	32.4	38.7	10.5	19.9	1.0
	60점 이상 79점 이하	61.0	19.7	55.5	12.6	36.0	30.1	41.7	8.4	22.9	0.8
	80점 이상	59.1	11.8	67.3	8.2	45.5	31.8	40.9	8.2	20.0	2.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8.4	17.9	56.5	13.0	39.9	29.9	39.7	10.2	22.8	0.9
	조건부수급자	57.5	15.8	59.9	12.6	39.0	30.8	41.6	8.7	22.1	1.3
	자활특례자	65.1	16.9	56.6	11.1	37.6	27.5	42.9	7.4	20.6	0.0
	차상위자	62.6	17.3	63.1	12.3	31.8	35.2	36.9	10.1	19.6	1.7



##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

---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관련 주요결과
2. 자활사업 참여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3. 정성적 자활 실태 분석 관련 주요 결과
4. 경제적 자활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V

##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 《

###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관련 주요결과

#### 1) 참여자 일반적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연령은 50-59세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49세 23.1%, 60세 이상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자활 참여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자활역량점수는 60점 이상 79점 이하가 39.5%, 45점 이상 59점 이하 33.9%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수급유형은 조건부수급자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수급자 28.8%, 차상위자 13.1%, 자활특례자 12.7%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개인소득 구성은 자활 기본급여가 평균 93.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성과급 평균 9.7만 원, 통장 적립금 평균 4.0만 원, 자활급여 외 근로 및 사업소득은 평균 2.4만 원, 저축계좌 1.5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참여자의 총 금융자산 분포는 '없음'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 원 미만(13.1%) 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59.9%가 통장사업 외 월평균 저축액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부채의 경우 1,000만 원~3,000만 원(19.1%), 1,000만 원 미만(18.7%), 3,000만 원~5,000만 원(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부담 인지 정도는 11점 만점에 평균 7.70점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 규모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39.0%로 가장 높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28.4%),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식

료품비가 52.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거비(23.0%), 교육비(5.3%) 등이었다.

거주 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반전세)가 54.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세(15.1%), 보증금이 없는 월세(13.6%), 자가(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 시기는 원하는 만큼 거주가 가능하다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2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18.5%), 1년 이내 이주해야 함(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의 내외부 쾌적함에 대한 평가(각 3.10점, 3.07점)는 여타 주거환경 요인(대중교통 편리함, 편의시설이 갖추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2) 참여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실태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는 고강도 노동이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합 형태의 스포츠 종목(2.30점), 무거운 물건 옮기기(2.18점),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1.84점)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이나 작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33.6%) 등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신체화 평균 11.8점, 우울 평균 13.9점, 불안 평균 12.6점으로 나타났다. PHQ-9를 사용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우울증 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증상이 6.8%,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증상이 4.5%로 나타났다. 경한 증상도 13.4%로 확인되었다.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8.0%,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없어서(15.4%), 겁이 나서(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자활사업 참여자 중 동거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1%로 나타났다. 한편,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중 자녀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26.8%), 모(22.0%), 형제자매(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노인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13세 미만) 30.2%, 장애인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의 지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7점 만점에 평균 4.1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평가 항목별로는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4.24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4.18점),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3.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5점 만점에 2.67점으로 나타났다.

#### 4) 경제활동 및 고용지원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자활실태조사 참여자의 과거 마지막 일자리 중단 시점은 3년 이상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미만(30.5%), 1년 이상 3년 미만(26.2%), 6개월 이상 1년 미만(10.98%)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평균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이 47.2%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신체적, 정신적)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10.4%), 실직(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16.6%),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자활사업 참여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유로는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가 5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30.5%),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29.3%),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나빠져서(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 중 사업단을 이동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으며, 사업단 이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이동 횟수 평균은 1.54회로 나타났다.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로는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가 1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단이 종료되어서(16.8%), 실무자의 권유로(15.0%), 건강이 안 좋아져서(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참여자의 현재 참여 사업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하다가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 장소 접근이 편리하다(3.59점), 근로하는 작업장 환경이 쾌적하다(3.56점), 근로시간이 충분하다(3.4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만점 평균 5.16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가 5.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5.16점),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4.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 평균 4.98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요인별로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은 5.30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은 4.66점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서비스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평균 4.7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가 5.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4.91점),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4.9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및 향후 근로 욕구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7.5%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참여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79.4%),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78.9%)가 구직경험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중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가 1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14.9%), 교육, 경력의 측면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유형 중 일반 수급자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7.4%), 조건부수급자는 교육 경력의 측면에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다고 생각해서(14.4%)가 구직하지 않은 이유 1순위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종료 후 취업 희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급여수준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로시간(64.0%), 출퇴근 편의성(45.3%), 고용형태(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 종료 후에 창업을 희망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은 장래성 및 발전가능성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58.1%),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여부(40.6%), 창업자금마련(3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정성적 자활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 1) 정성적 자활 주요결과

자활의지, 고용장벽, 자활행동으로 구성되는 정성적 자활 점수 평균은 3.69점, 하위 영역인 자활의지, 고용장벽, 자활행동은 각각 3.62점, 3.19점, 3.9점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행동이 수준이 그렇다(4점)에 가까운 정도를 보이며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용장벽충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성적 자활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정성적 자활 점수가 높았다. 연령대는 40-50대의 정성적 자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활의지와 고용장벽은 60대 이상에서 현격히 감소한 반면, 자활행동 점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정성적 자활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정성적 자활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단 유형에 따른 정성적 자활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사업단 유형 중 시장진입형, 도우미, 청년자립도전,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점수는 자활의지, 고용장벽, 자활행동 영역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활 참여기간에 따른 정성적 자활 총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자활의지는 참여 기간

이 짧을수록, 자활행동은 참여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활역량점수에 따른 총점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자활의지와 고용장벽 점수는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2) 자활 의지 세부 하위 영역별 주요결과

자활의지는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동기부여, 목표지향, 기술과 자원 활용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활의지 총점은 3.62점, 하위 차원인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동기부여, 목표지향, 기술과 자원 활용은 각각 3.70점, 3.64점, 3.63점, 3.53점임. 모두 보통(3점)과 그렇다(4점) 사이 정도로 유사하나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차원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술과 자원 활용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를 살펴보면, 먼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자활의지 점수가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동기부여, 목표지향, 기술과 자원 활용 등 모든 차원에 걸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따른 인지 차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기부여, 목표지향, 기술과 자원활용은 연령이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자활의지 하위 차원 전반에 걸쳐 점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를 살펴보면 참여기간에 따라 자활의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1년 미만 참여자의 자활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이 자활 의지를 고취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을 의미하는 동시에 장기간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자활 향상을 위한 개입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자활역량점수에 따라서는 80점 이상 참여자의 경우에 자활의지의 하위 차원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79점 미만 참여자 간에 자활 의지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에 따라서는 시장진입형, 도우미사업단,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경우에 자활의지에 하위 차원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근로유지형과 게이트웨이 참여자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고용장벽 세부 하위 영역별 주요결과

고용장벽은 인적자본 충분 정도, 정보 활용 정도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장벽을 덜 가짐을 의미한다. 고용장벽 총점은 3.19점, 하위 차원인 인적자본 충분 정도, 정보 활용 정도는 각각 3.30점, 3.09점임. 정성적 자활 중 상대적으로 점수 낮은 편이며(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높은 수준의 고용 장벽을 가짐을 의미할 수 있음), 정보 활용 정도를 더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장벽을 살펴보면, 먼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장벽 점수가 두 차원 모두에서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두 차원 모두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고용장벽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 고용장벽을 덜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고용장벽을 살펴보면 참여기간에 따른 고용장벽 점수는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이 고용장벽 극복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비함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자활역량점수에 따라서는 고용장벽의 하위 차원 중 정보 활용 정도 차원의 경우에만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정보 활용 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에 따라서는 시장진입형, 도우미사업단,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경우에 인적자본 충분 정도, 정보 활용 정도 등 하위 차원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근로유지형, 시간제자활 및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자활행동 세부 하위 영역별 주요결과

자활행동은 근로관련행동, 일상생활 기술 및 행동, 사회적관계 행동, 청결 및 외모 관리 행동, 건강 관리 행동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에 가까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자활행동 총점은 3.90점, 하위 차원인 근로 관련 행동, 일상생활 기술 및 행동, 사회적 관계 행동, 청결 및 외모 관리 행동, 건강 관리 행동은 각각 4.47점, 4.22점, 3.90점, 3.97점, 3.83점임. 정성적 자활 중 상대적으로 점수 높은 편이며(자활사업에

서 자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사업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을 의미할 수 있음), 근로관련 행동, 일상생활 기술 및 행동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한편, 사회적 관계 행동, 건강 관리 행동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활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총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전반적으로 자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이 자활행동의 5개 하위 차원 중 근로관련 행동을 제외한 4개 차원, 일상생활 기술 및 행동, 사회적 관계 행동, 청결 및 외모 관리 행동, 건강 관리 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근로 관련 행동은 남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모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다가 60세 이상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50대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활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다가, 60세 이상에서는 그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에 따른 자활행동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5개 하위 차원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활 행동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자활행동을 살펴보면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행동 수준이 높아 자활사업에의 참여가 자활행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세부 차원별로 사회적 관계 행동과 건강관리행동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했으며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활역량점수에 따라서는 자활행동의 다섯가지 차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가 목격되지도 점수 차이의 경향도 발견되지 않아 자활역량점수가 자활행동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에 따라서는 시장진입형, 도우미사업단,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경우에 하위 차원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및 청년자립도전사업 참여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경제적 자활 실태 분석 관련 주요결과

경제적 자활에 대한 총점은 2.81점, 하위 차원인 재정적 자율성,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 및 자신의 웰빙,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자산은 각각 3.30점, 2.74점, 3.09점, 2.74점으로 나타났다. 3점(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정성적 자활 중 상대적으로 점수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소득을 가지나

경제적 자활을 이룰 정도로 충분치는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 차원 중에서 재정적 자율성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한편, 재정적 안정과 책임, 지역 사회거주를 위한 기본자산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활 수준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비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모든 차원에서 29세 이하가 경제적 자활 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자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자활을 하지 못했다고 인지하였다. 학력에 따른 자활행동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경제적 자활 수준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활 수준을 살펴보면 참여기간이 길수록 경제적 자활 수준을 높게 인지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경제적 자활에 기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세부 차원별로는 모든 차원에서 자활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했으나 재정적 자율성 차원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자활역량점수에 따라서는 경제적 자활의 네 차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가 목격되지도 점수 차이의 경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활역량점수가 경제적 자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업단 유형에 따라서는 시장진입형, 도우미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경우에 하위 차원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청년자립도전사업 참여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의 정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목적은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자활 근로 사업 및 향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유사 규모의 실태조사 중,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해 매 1년 마다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법제화 혹은 통계적 승인 기반 마련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가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뒤 통계품질관리(Statistics Quality Management : SQM)를 실시하여, 양질의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의 법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목적에 적합한 조사로 활용될 수 있다.

## 2) 자활사업 참여자 기능에 적합한 자활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본 조사를 통해 2022년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참여 기간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매개일 수 있다. 즉,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완화시키고, 스스로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개선 효과를 감안할 때,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건강상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 수준을 고려한 참여자 기능별 사업단 재구성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의 첫 진입에서 참여자들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활역량평가표(자활지침 P.35)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

한편, 자활사업단 참여자 건강관리 미흡에 따른 장기적 근로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의 건강검진 등 기본적 건강관리 서비스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경증 정신 질환(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사업단 배치 전 간이정신진단 혹은 우울증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군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 3)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창출

자활사업 참여자 중 사업단을 이동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6%이었고, 이동의 주된 이유로는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가 19.6%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자활사업단 배치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나 능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활동의 수행 정도가 낮고, 자격증 취득률은 높으나 취득한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향후 원하는 취업과 창업 직종과는 무관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경험이 부족한 참여자들의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내의 현실성 있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참여자가 적절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도록 근로 능력 및 자활 욕구 단계별 지원체계를 다각화해야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과 직접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인적 특성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창업을 희망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자활사업단 업종 고려 시, 향후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업 유지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자원 일자리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수요처를 마련하고, 전문적 창업 자립을 위해 관심과 체계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 4) 자활사업의 정서적 자활에 주목하는 자활사업의 목표 설정

자활사업의 목표와 성과로서 사회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조사결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근로 및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서적·경제적 자활에 대한 인지 등 정서적, 태도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발견되었다. 취·창업 이전, 혹은 취·창업 실패 시에도 심리 정서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제고하고, 동기부여 하며, 일과 관련하여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와 행동을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자활사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참여자에게 다차원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고용희망,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 자활 행동 등 정서적 자활 지표 및 경제적 자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적, 경제적, 결과적 측면에 집중되어있는 자활사업의 목표

와 성과를 이용자 중심, 정서적, 과정적 측면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증거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조사결과로 미루어 보면, 기존의 자활사업 성과인 탈수급과 취·창업률을 대체할 성과지표로서 자활사업 참여 후 소득 증가, 자활사업 참여 후 신용상태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효과(고용희망, 자활행동,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 등)가 활용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결과들은 자활사업의 목표가 탈빈곤 및 빈곤예방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통합으로 지향해야 함을 보여주며, 향후 자활사업의 목표에 대해 분명히 하고 성과를 드러내는 실증적 차원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 경승구·이용갑. 2018. 단기·장기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 인천광역시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679-690.
- 고경환·이성운·강지원·임완섭. 2009. 자활사업 평가 연구 -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2004. 2005년 종합취업지원계획.
- 권민숙·윤영석·김근식.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435-454.
- 권지성·조준용·정선욱·장연진. 2020. 자활사업 실무자들이 경험한 자활사업의 맥락과 패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20(8), 232-250.
- 김경휘·백학영·엄태영·최상미·이상우·박송이. 2020.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유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경휘·조성희·최상미·한은영. 2022. 자활사업 과정적 성과지표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2), 89-118.
- 김경휘·최상미·조성희·한은영·박송이. 2021. 자활사업 참여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예수대학교.
- 김교성·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5-32.
- 김영춘. 20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G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21(11), 553-564.
- 김용석·이은영·고경은·민은희. 2007.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종합사회복지관을

-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83-109.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95-129.
- 김자옥·유태균. 2018. 자활사업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2), 39-64.
- 김정희·강정배·김현자·김태용·이혜수. 2021.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리서치 앤 리서치. 2018.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 - 7차년도 보고서. 중앙자활센터.
- 박경하·김문정·김수린·배재운, 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재민·유태균·최수영.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1(4), 125-146.
- 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백학영·김경휘. 2013. 지역사회활센터 사례관리 특성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29-60.
- 서광국. 2021.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2010년 연차학술대회, 213-222.
- 신준섭·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4), 241-269.
- 안서연. 2008. 자활직업훈련 사업의 임금 효과 분석 -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사회복지연구, 37, 171-197.
- 엄태영. 2014. 정서적 자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1(4), 81-102.
- 엄태영·임진섭.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가에 관한 연구: 대구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3), 79-105.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신현웅·정해식....여나금. 2017.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오미애·이원진·우선희·이병재....신재동. 2020. 2020년 한국복지 패널 심층분석-한국복지패널 종단분석 및 표본 특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태균·김경휘·조성은·주은수·최은영...윤성원. 2012. 자활사업 분야(불완전 취업자) 패널구축 연구. 숭실대학교·중앙자활센터
- 이민홍·고정은. 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85-110.
- 이상아·백학영·황명주·박송이·고은새. 2021a. 자활사업의 변화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상아·최상미·김소형·고은새·설소희. 2021b.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정책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석원·정희정. 2007.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 분석 -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149-176.
- 이승호·조성은·백학영·한경훈.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207-233.
- 이채정. 2012. 자활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이형하·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17-244.
-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75-97.
- 정해식·고혜진·김미곤·노대명·정은희·하은솔.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상미·조자영·이혜인·설소희. 202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 구축 연구. 동국대학교·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상미·홍송이. 2018. 현장의 시각으로부터 구조화된 자활 개념 탐색 연구: 자활사업 실무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3), 5-33.
-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 하승범·신원식. 2020. 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전망 및 자활의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6(2), 163-189.

- Derogotis, L. R. 2000.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 Gowdy, E. A., & Pearlmutter, S. 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Affilia*, 8(4), 368-387.
- McMurtry, S. L., & Hudson, W. W. 2000. 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Results of an initial validation stud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0(5), 644-663.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